

**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저의 케이스를 진행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703.916.1111 / 703.916.1215

경쟁력 있는 이자율  
**Promo Plus 정기예금 (CD)**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점에 문의하십시오.  
Bank of Hope

“최고”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배준원** 응자  
NMLS# 178471  
703-868-7147

유 파이낸셜 그룹  
**메디케어**  
703-961-88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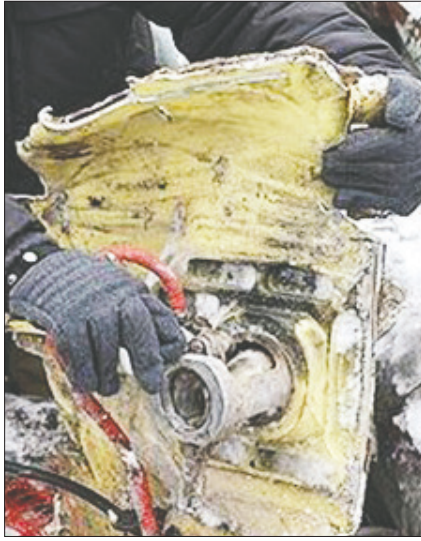
## 북미사일에 최신 미국 반도체가?

### 구멍 뚫린 대북 제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한 북한제 미사일에 지난해 3월 만들어진 미국산 컴퓨터 반도체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방위적인 국제사회의 제재 압박에도 북한이 단시일 내에 미국산 부품까지 조달해 무기화에 성공했다는 의미다.

5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올 1월 2일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에 떨어진 미사일에서는 수 년 간 미국과 유럽에서 제조된 전자 부품, 특히 2023년 3월에 만들어진 미국산 컴퓨터 반도체 등이 발견됐다. 해당 미사일에는 북한의 ‘주체 연호’로 2023년에 해당하는 ‘112’(주체 112년)라는 숫자도 적혀 있었다.

BBC는 “이는 북한이 핵심 무기 부품을 불법적으로 조달해 조립한 미사일이 비밀리에 러시아로 운송되고 최전방으로 옮겨져 발사되기까지 불과 몇 달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월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시에 떨어진 미사일의 잔해가 북한산 탄도미사일임을 유엔 소속 전문가 조사단이 확인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지난날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

영국 무기감시단체인 분쟁군비연구소(CAR)의 데미안 스피리터스 부국장은 “거의 20년 동안 심각한 제재를 받고 있어도 북한은 여전히 무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놀라운 속

도로 확보하고 있다”며 “현대 무기에 필수적인 컴퓨터 반도체 중 상당수가 휴대폰, 세탁기, 자동차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하다”고 말했다.

RUSI의 북한 전문가 조셉 변에 따르면 해외에 거주하는 북한 노동자들은 홍콩이나 중앙아시아 국가에 유령 회사를 설립하고 주로 현금으로 물품을 구매한다. 그런 다음 주로 중국 쪽 국경을 통해 북한으로 제품을 보낸다. 발각돼 제재를 받으면 또 다른 유령 회사가 등장한다.

변은 “우리는 북한에 대한 유엔의 제재가 실시간으로 무너지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영국 국방 싱크탱크인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는 위성사진을 통해 러시아 화물선 4척이 한 번에 수백 개의 컨테이너를 싣고 북한과 러시아 군항을 오가는 모습을 포착했는데, 총 7000개 컨테이너에 100만 발 이상의 탄약과 그라드 로켓이 실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백일현 기자 >> 6면 ‘미사일’로 이어집니다

## 고용 둔화에 다시 싹튼 희망 “9월엔 금리 내리려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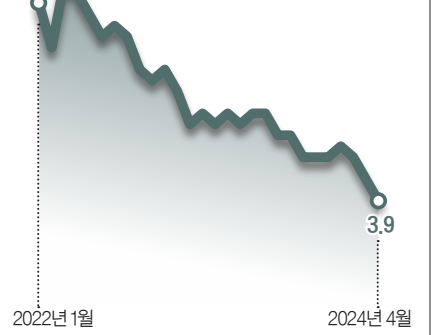
지난달 비농업 일자리 예상치 하회  
실업률도 3.9%로 전월보다 올라

연방준비제도(Fed)가 올 9월쯤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라 전망이 다시 힘을 받고 있다. 물가 상승세를 견인해온 노동시장이 최근 들어 둔화세를 보였다. 이런 둔화 흐름이 향후 2~3개월간 추세적으로 이어지는지 가인하 시점을 가를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3일 노동부는 지난달 비농업 부문 신규 일자리가 17만5000건 늘었다고 밝혔다. 최근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시장 예상치(23만8000건)와 전월 수치(31만5000건)를 크게 밑돌았다. 실업률도 3.9%로 예상치·전월 수치(3.8%)보다 소폭 올랐다.

시장이 주목한 건 시간당 평균임금 상승률 둔화세다. 전년 동월 대비 3.9% 올라 예상치(4%)와 전월 수치(4.1%)를 모두 밑돌았다. 임금 상승

미국 시간당 평균임금 상승률  
단위: % ※전년 동월 대비  
자료: 노동통계국



세가 추중해지면 기업이 임금 부담을 물건 가격에 전가할 가능성이 줄어든다. 소비자의 구매 여력도 위축될 수 있다. 그간 Fed가 ‘뜨거운 노동시장’을 물가 상승세의 원인 중 하나로 주목했던 이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노동시장이 과열되면서, 임금상승률은 높은 수준을 보여왔다.

요효정 기자 >> 5면 ‘기준 금리’로 이어집니다

## 검찰·공수처의 급피치, 여야 특검대치 변수로

### 공수처, 김계환 해병사령관 조사 검찰도 김건희 명품백 의혹 수사

거야(巨野)가 채 상병 특검법 통과를 밀어붙인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이후 각종 의혹과 관련된 수사에 속도가 붙으면서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갈수록 격화하는 분위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4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중장)을 소환해 15시간 가까이 조사했다. 김 사령관은 이른바 ‘VIP(윤석열 대통령

지칭) 격노설’을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게 전했다고 알려진 핵심 피의자다. 채 상병 특검법이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가결된 지 이틀 만에 워싱턴 수사로 직행한 것이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도 지난 2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바로 발의할 생각”(지난 1일, SBS라디오 인터뷰)이라고 밝힌 바로

다음 날이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서울의소리 측에 9일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뒤늦게 명품백 의혹 수사가 개시됐으니 민주당이 반길 법도 하지만 외려 “5개월 동안 조금도 움직이지 않던 검찰이 별안간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니 조금도 신뢰가 가질 않는다”는 반응이 나왔다.

오현석·박태민·전민구 기자 >> 2면 ‘수사’로 이어집니다



뉴욕 소방관들과 악수하는 트럼프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일 뉴욕 맨해튼 소방서를 방문해 소방관들과 악수하고 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재집권 가능성이 제기되는 트럼프의 행보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 관계기사 6면 [뉴욕 AP=연합뉴스]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사고**  
원장 Dr. 김홍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금 고가 매입  
순금 야기 불만지발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43-759-9798

### 형사법 전문 변호사

## ERIK JURGENSEN

막막한 순간, 나에게 힘이 되는 변호사를 믿으세요.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영향을 끼치는 형사사건, 대응에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 음주운전 / 교통위반
- 폭행 / 아동학대
- 절도 / 횡령
- 기물파손 ■ 마약

에릭 저겐슨 변호사 C. Erik Jurgensen, ESQ

- TOP Criminal Lawyers by Northern Magazine
- TOP 20년간의 법정경력

### 시작이 강해야 결과가 강합니다

## DAVID MARKS

20년 이상 한인사회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강하고 힘있는 법정 변호사, 데이빗 막스! 정확한 분석력과 정보,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실력으로 합당한 판결을 받아드리겠습니다.

저희 손을 잡으십시오. 저희에게 맡기십시오. 그리고 편히 주무십시오.

David L. Marks, ESQ **데이빗 막스 변호사**

- 20년간의 법정경력
- Rated AV-PREEMINENT
- SUPER LAWYERS
- Member of "MILLION DOLLAR ADVOCATES FORUM"
- NATIONAL TRIAL LAWYERS TOP 100 LAWYERS
- TOP ATTORNEYS IN VIRGINIA

형사법,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담부터 재판까지 페어팩스 카운티 검사출신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상담 무료**

교통사고 문의, 데이빗 막스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Connie A. Yoon  
카니 윤 법무이사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데이빗막스**

한국어 상담 환영 **703.385.1100**  
10513 Judicial Dr. #204, Fairfax, VA 22030

**FREE**  
The Ultimate Accident Guide

버지니아 자동차 사고 보험 청구 세번째 가이드북 출간

이 책을 읽으시기전까지 보험회사와 연락하지 마십시오. 703-385-1100으로 연락주시면 무료로 위의 책자를 드립니다.

# 윗선 거는 '채상병' 수사... '명품백' 전담팀엔 특수부 검사 셋

공수처, 수사외압 의혹 규명 속도  
이첩보고 때 'VIP 격노' 여부 관련

중앙지검, 형사1부 팀에 인원 보강  
명품백과 대통령 직무관련성 쟁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 수사가 대통령실 등 윗선을 향해 치닫하고 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를 맡게 된 전담수사팀에 특수부 검사 3명을 투입했다.

공수처는 지난 2일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의 처리 전후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지난달 26·29일)→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지난 2일)→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지난 4일)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쳤다. 이들 3명은 경북경찰청에 이첩됐던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기록을 회수하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과실치사 혐의자에서 제외하는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지목된 이들이다.

수사외압 의혹의 시발점은 채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해병대수사단의 조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가운데)이 5일 오전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경기도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해 15시간가량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뉴스]

사 결과가 보고된 지난해 7월 3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외교·안보 분야 수석보좌관 회의다. 채상병 사건 조사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처음 보고된 회의이자, 이른바 'VIP 격노설'이 제기된 자리다. 윤 대통령이 당시 "이런 일로 사

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고 질책했다는 게 격노설의 내용이다.

이후 대통령실·국방부가 임성근 1사단장을 혐의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조직적 개입에 나섰다"는 게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인 만큼 VIP 격노설은 진상 규명의 첫 단추에 해당한다. 실제 대통령 주재 회의 직후 관련 사건 기록의 경찰 이첩 보류 지시가 하달됐다. 채상병 건을 놓고 대통령실·국방부·해병대 사령부 간 통화를 주고받은 것 역시 대통령 주재 회의 직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윤 대통령이 회의에서 격노했는지 여부는 분명치 않다.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은 김계환 사령관으로부터 윤 대통령의 격노 사실을 들었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김 사령관은 "그런 사실은 없다"(지난 2월 1일, 박대령 항명 사건 중앙군사법원 재판)고 부인했다.

검찰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와 관련해선 전담수사팀에 특별수사를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4차장 산하 검사들이 대거 투입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지난 2일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로 서울중앙지검 형사부(부장 김승호) 산하에 꾸려진 전담수사팀은 이 사건을 시민단체 고발 때부터 수사해온 형사1부 검사 1명을 비롯해 4차장 산하 반부패수사3부 검사 1명, 공정거

래조사부 검사 1명, 범죄수익환수부 검사 1명으로 구성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인터넷채널 서울의소리(대표 백은종)가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김 여사가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디오르 가방 등을 받았다

는 내용이다. 검찰이 고발 5개월 만에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면서 법조계에서는 '직무관련성'과 '처벌 가능성'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과 윤 대통령의 직무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는지가 첫 번째 관문이다.

그러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현행 청탁금지법에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고, 법을 개정하더라도 소급 적용은 할 수 없는 만큼 '청탁금지법 위반이지만 김 여사는 처벌 불가능'이라는 점을 검찰 수사로 재확인하는 데 그칠 가능성이 현재로선 크다. 다만 이 과정에서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 이행 여부나 김 여사의 소환 여부 등은 뇌관으로 떠오를 수 있다.

정진우·김정민 기자

## “대통령, 특검 거부권 행사해야” 여권 내 강경론 확산

야당은 “법사위원장 반드시 확보”  
전문가 “극단적 적대 정치의 한계”

▶1면 '수사'에서 이어집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22대 국회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도저히 막을 방법이 없어 보이니 부랴부랴 수사하는 시늉이라도 내며 특검 거부를 위한 명분을 쌓으려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에선 채상병 사건 수사는 폐 의혹과 관련한 공수처의 수사 확대에 대해서도 “반가운 소식이지만, 왜 지금이야 속도를 높이냐”(당직자)는 의구심이 나온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공수처 수사와 상관없이 특검법은 추진한다”며 “공수처가 수사해도 피의자가 관감사나 고위 경찰이 아니면 검찰이 기소권을 행사하기 때문”이라고 밝

혔다. 결국 검찰은 못 믿겠으니, 특검을 거쳐야 한다는 논리로 '특검 만능주의'에 빠진 듯한 모습이다.

반대로 여권은 공수처와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는 걸 '선(先) 수사, 후(後) 특검'의 근거로 삼아 반격에 나서려 한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공수처 등이 한창 수사하는 시점에 민주당이 특검법을 밀어붙인 것 자체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불통 이미지'를 쌓겠다는 정략적 의도”라며 “수사 결과를 보지 않고 특검법부터 통과시킨 전례는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몽게기 의혹이 일 정도로 더딘 수사가 갑작스레 속도를 내는 것이 특검을 반대하는 여당 논리의 핵심 근거였다. 야권의 특검 공세를 여권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근거로 방어하는 초유의 풍경이 벌어지는 중이다.

여권에선 “대통령이 과감하게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확산하고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을 못 믿겠다고 민주당이 발족시킨 공수처 수사를 이제 와서 민주당이 '특검을 막기 위한 수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견 어불성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특검법의 경우 수사 등 정부 권한을 입법부에 잠시 넘겨주는 것인 만큼 여야 합의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가시화된 가운데,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더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까지 밀어붙일 준비에도 나섰다. 우선 22대 국회 원(院) 구성 협상에서 법사위원장직을 가져오는 데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3일 신인 원내정책수석부대표엔 ‘법사위 수사과’인 김용민 의원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돼 국회원 의원들이 본청 계단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이 임명됐다.

결국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회담으로 여야 협치가 시작되기는 커녕, 초(超)갈등 국면으로 회귀한 셈이다. 윤 대통령과 이대표의 양자 회담과 이태원 특별법 합의처리 등 얽게나마 이어졌던 협치의 흐름도 중단됐다. 전문가들은 “극단적

적대 정치의 한계”라고 지적한다. 윤평중 한신대 명예교수는 “여야 모두 협상과는 사라지고, 극소수의 열성 팬덤에만 귀 기울이고 있다”며 “그러나 수사기관 움직임에 맞춰 정당이 흔들리고, 정치가 이뤄질 수 있는 자신들의 고유한 공간을 스스로 좁혀버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오현석·박태민·전민우 기자

**워싱턴 날씨 (°F)**

|             |              |
|-------------|--------------|
| 7일(화) 76-65 | 10일(금) 72-58 |
| 8일(수) 84-67 | 11일(토) 70-55 |
| 9일(목) 76-62 | 12일(일) 70-55 |

5월 6일(월) 77~64

**워싱턴 중양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C.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20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으로 여러분의 부동산을 잘 팔고 잘 사고 렌트도 잘 매니지먼트 해드립니다.**

# 2024년 성경 통독 집회

창립 21주년 58차 성경통독집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계1:3)』

3박 4일 동안 신구약 성경을 완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분들을 초대합니다.

(성경핵심 관통 세미나 및 성경암송 강의도 있습니다.)

**58차 성경 (신구약) 통독 집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 읽습니다.)

• 일시: **5월 20일(월) 오전 10시 부터**  
**23일(목) 오후 6시 까지**

• 장소: **안나산 기도원 (301-874-2984)**  
7910 Peters Rd, Frederick, MD 21704



- 주 관: 미주성경통독선교회
- 문 의: 김양일 목사 / 703-597-7611
- 등 록: 안나산 기도원에 오셔서 등록하세요.
- 등록비: 200불 (3박 4일 숙식비)
- 준비물: 개역성경

\*3박 4일 성경통독자에게 성경통독 수료증을 드립니다.  
\*등록시, 교재와 김양일 목사 설교 11집을 드립니다.

후원: **워싱턴지역 한인교회협의회 · 하나님의말씀교회 · 국제성경연구원**

# “한미동맹위한 아이들의 진지한 고민”

미주한미동맹재단  
PIP학생대회 본선전 성료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한 한인 청소년들의 진지한 고민과 성찰을 이끌어내는 바람직한 대회였다. 미주한미동맹재단(회장 최태은, 이사장 잭 피터슨)은 4일 한미동맹 강화 및 정전 71주년 기념을 목적으로 PIP학생대회 본선전을 개최하고 결선전 진출 10개팀을 선정했다.



3일 열린 PIP 학생대회에서 대회관계자 및 결선 진출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대회에는 미주 전역에서 총 150개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팀이 참석해 예선전을 통과한 20개 팀이 출전해 선의의 경쟁을 벌였다. 결선전 진출 10팀은 버지니아 5개팀, 캘리포니아 2개팀, 일리노이 1개팀, 네브라스카 1개팀, 미주리/앨라배마 1개팀 등이 선정돼 “명실공히 미 전국대회 담겨 지역별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는 것이 재단 측의 설명이다. 결선전 티켓을 거머쥔 10개 팀에게는 국가보훈부 후원으로 각 팀당 500달러 씩 캠페인 예산이 지급되며, 각 팀은 10월말까지 계획한 캠페인을 실

제로 진행하고 그 결과를 오는 11월 16일 결선전에서 발표할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수상여부가 결정된다.

특히 본선전 상위 3개팀에게는 6월 17일부터 21일까지 한국 해군사관학교 여름 캠프에 초청받아 사관생도들과 함께 생활하며 해양스포츠도 즐기고 역사의 식도 고취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최태은 회장은 “치열한 예선전을 거쳐 본선전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 모두가 이미 다 승자”라며 출전한 학생들을 격려하고 “과정을 통해 얻은 경험

을 통해 미래 한미동맹의 주역이 되고 한국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일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대회의 공식후원기관인 국가보훈부의 이길현 보훈영사는 “한미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미래를 짚어주고 나갈 청소년들이 양국의 현실과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알아가려는 노력이 요구된다”면서 “이 대회는 (이를 위한) 모범적인 교훈을 만들어내는 가치지향적인 행사”라고 말했다.

박세용 기자

## 2024 코러스 축제 열렸다

워싱턴지구한인연합회(회장 스티브 리) 주최 ‘2024 코러스 축제’가 지난 주말 애난데일



사의 개최 기도와 함께 JUB한국문화센터 회원들이 고운 자태를 뽐내며 공중

소재 케이마켓 주차장에서 열렸다. 올해 코러스 축제는 5월 아시아 태평양계 미국인 유산의 달(AAPI)을 맞아 한인사회가 선두가 되어 기념한 첫 공식행사로 치러졌다는 데 의의가 있다.

무용 ‘화관무’ 무대를 장식하며 5월의 화려한 축제 시작을 알렸다. 첫날, 여러 아시안 문화공연을 비롯해 K-팝 나잇이 펼쳐졌다.

한편 주말 내내 이어진 곳은 날씨가 좋았으며, 관중도 예년보다 부쩍 즐겼다.

김윤미 기자



3일 개막식에서 한복 곱게 입은 어린이들이 국가를 부르고 있다

## “인턴십 위해 실용적 스펙 쌓아라”

옴니화재 콘서트 강연회 성황  
지영미-유영준 박사 초청

옴니화재(대표 강고은)가 차세대를 위해 펼치는 콘서트 강연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4일 타이슨스 보도에서 열린 강연회에는 국립보건연구원(NIH) 지영미 박사, 존스홉킨스 대학 유영준 박사 등이 ‘한인 학생들을 위한 인턴십’을 중점적 주제로 설명했다.

참석자들의 관심 속에 예상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세 시간이나 지속된 강연회에서, 지영미 박사는 ‘열정’과 ‘확실한 목표’를 청소년들에게 주문했다.

지 박사는 “인턴십으로 맺은 인연을 평생 소중한 관계로 발전시킨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면서 “항상 질문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박사는 “STEM 전공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이 분야의 스펙을 쌓



세미나에서 강고은 옴니화재 대표가 강연회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아야 좋은 인턴 기회를 얻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운동, 예술 등의 과외활동 보다는, 드론 조종, 파이썬 코딩 등 자신이 활동하고 싶은 인턴분야에서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스펙을 쌓아라”고 조언했다.

강연회를 마련한 강고은 대표는 “자식들의 성공과 미래를 위해 희생하려

는 학부모들의 마음은, 수십년 전 이민왔던 한인 1세대들이나, 이제 40~50대로 학부모 세대가 된 1.5~2세대들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다”면서 콘서트 시리즈의 기획 목적을 설명했다. 강 대표는 “세대를 이어 발전하는 한인사회를 위해 옴니화재는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세용 기자

## 워싱턴 한인복지센터 50주년 기념 라포엠 미주 단독 콘서트 예매중



워싱턴한인복지센터

워싱턴한인복지센터

워싱턴한인복지센터

워싱턴한인복지센터

워싱턴한인복지센터

워싱턴한인복지센터

워싱턴한인복지센터

워싱턴한인복지센터

워싱턴한인복지센터

워싱턴한인복지센터

워싱턴한인복지센터

워싱턴한인복지센터

워싱턴한인복지센터

워싱턴한인복지센터

워싱턴한인복지센터

워싱턴한인복지센터(이사장 김진아) 설립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정통 크로스오버 그룹 라포엠(La Poem)의 미국 내 첫 콘서트가 10월 5일(토) 저녁 7시, 버지니아 타이슨스 소재 ‘캐피탈원 홀’에서 열린다.

라포엠은 전 세계 최초 정통 카운터테너가 포함된 크로스오버 남성4중창 그룹으로서 JTBC 예능프로그램 ‘팬텀싱어’에 출연, 시즌3의 우승팀이 되면서 다수의 방송과 콘서트를 통해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달 한국어 열리는 콘서트는 오픈과 동시에 전석 매진을 기록하는 등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현재 다양한 통로로 라포엠 콘서트 티켓 판매가 진행중이다. 티켓마스터

닷컴(ticketmaster.com)에서 온라인 구매할 수 있으며 타이슨스의 캐피탈원 홀(Capital One Hal) 박스 오피스에서 현장 구매도 할 수 있다.

또한 워싱턴한인복지센터 애난데일(VA) 또는 게이더스버그(MD) 사무실을 방문해 온라인 티켓 구매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진아 이사장은 “한결같이 이민 사회를 위해 일해온 저희 센터의 뜻깊은 50주년을 기념하며 다양한 사업을 통한 소통에 노력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라포엠이라는 훌륭한 가수들과 함께 기념 콘서트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문의 및 안내: 703-354-6345(애난데일 VA), 240-683-6663 (게이더스버그 MD)

김윤미 기자

1985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오직 옴니!**  
보험에 관한 모든 선택 - 옴니화재

- 사업체보험
- 자동차보험
- 집보험
- 의료보험
- 생명보험

강고은 대표  
OMNI  
1-866-915-6664

**김진옥**  
척추신경전문의

-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난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난데일 703.256.0606 VA  
엘리콧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 Implant Crown,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치과 임플란트,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703)569-8000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Zespri** KIWIFRUIT

**풍부한 맛과 영양으로**

**귀하고 소중한 골드**

**썬골드 키위 하나에**

**비타민C 하루 권장량 100%**

시즌이 왔습니다! 가까운 마켓에서 찾으세요.

# 디폴트 사상 최대 수준, 오피스 빌딩 비상

높은 이자율·수요 감소 영향  
대출 상환 어려워 연체 급증  
재정난 건물 380억불 넘어  
“대출 73%, 재융자 어려워”

오피스 빌딩에서 대출 디폴트(채무불이행)가 사상 최대 수준에 이르면서 상업용 부동산 업계는 물론 대출을 진행한 금융업계가 초긴장하고 있다.

지난 1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MSCI)의 발표를 인용해 380억 달러 이상의 오피스 빌딩이 채무불이행, 압류, 재정난 위기에 놓여 있다고 보도했다. 금융 위기의 여파가 미쳤던 2012년 4분기 이후 12년 만에 최고치다.

오피스 빌딩 소유주들은 높은 이자율과 오피스 수요 감소로 대출금 상환

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대출 연체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무디스에 따르면 최근 2021년까지 상업용 모기지담보증권으로 전환된 사무실 대출의 90% 이상이 만기일에 상환됐는데 지난해에는 35%로 폭 떨어졌다. 이는 200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팬데믹 이후에도 재택근무가 일반화되면서 사무실 수요가 이전보다 급감한 데다가 고금리 장기화로 이자 부담이 많이 늘어난 게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과거 낮은 수준의 고정금리로 돈을 빌린 건물주들 역시 대출 만기가 다가오면서 훨씬 비싼 이자로 돈을 빌려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정난의 위기다. 문제는 신규 오피스 수요도 매우 낮다는 점이다.

무디스 애널리틱스는 올해 초 지난



380억 달러 이상의 오피스 빌딩이 디폴트 위기에 놓여 있는 등 오피스 임대 시장이 더 악화하고 있다. 오피스 건물이 몰려 있는 LACA운타운. [중앙포토]

해 4분기 기준 주요 도시 사무실 공실률이 19.6%였다고 전했다. 이는 전년 동기 18.8%보다 오른 것으로, 1986년과 1991년의 이전 최고 기록 19.3%도 넘는 수치다. 무디스가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79년 이후 44년 만에 가장 높다. 더욱이 경기 하강으로 비용 절감을 해야 하는 기업들이 직원 1인당 사용 공간을 줄이기 시작한 것도 오피스 시장에는 악재다. 코로나19 유행은 직원

들의 재택근무를 확산시키면서 직원 1인당 필요 공간을 더 줄였다.

오피스 공실률이 높고 신규 수요 약세 등 오피스 임대 시장이 악화하면서 신규 임대차 계약을 하려는 임차인들이 건물주의 재무 상태를 면밀히 살피고 있다.

빌딩 소유주가 채권자로부터 부동산을 압류당할 가능성이 없는지, 약속한 편의시설을 추가할 자금을 확보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세입자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향후 12개월 동안 사무실 대출 180억 달러 만기가 도래하기 때문이다. 이는 2023년 규모의 두 배 이상이다. 무디스는 대출의 73%가 부동산 수익 감소, 높은 부채, 공실률 등의 문제로 재융자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은영 기자

## 100세 한인 운전면허 갱신

시력·청력·보행검사가 뚝뚝 통과



고 말했다. 신씨는 21세부터 차를 몰기 시작한 운전 경력 79년이라며 “지금까지 내 잘못으로 사고를 낸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올해 100살이 된 한인이 운전면허를 갱신해 화제다. 주인공은 애너하임에 거주하는 신향만(사진)씨다. 지난달 22일 만 100세가 된 신씨는 나흘 뒤인 26일 풀러턴의 거주 차량국(DMV)에서 면허를 갱신하며 노의장을 과시했다.

신씨는 DMV에서 필기 시험에 합격한 것은 물론 색맹을 포함한 시력, 청력 검사, 앞과 뒤로 걷는 보행 검사도 가뿐히 통과했다. 감독관의 입에서 “합격”이란 말이 나오자 주위 DMV 직원들도 활짝 웃으며 신씨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다고 한다.

신씨는 “뒤늦은 생일 선물을 받은 셈이다. 앞으로 1~2년 더 운전하고 상황을 봐서 면허를 반납할까 한다”

신씨는 40대에 당뇨 판정을 받은 것 외에 매우 건강하다고 밝혔다. 지금도 매일 아침 1시간 30분 동안 근력 운동과 걷기를 할 정도로 당뇨를 포함한 전반적인 건강 관리에 힘쓴 덕분이라고 한다.

한국의 대기업 효성에 다니던 신씨는 당뇨 판정을 받은 뒤 회사를 그만두고 미국에 왔다. 몬테레이에서 모텔을 운영하다 은퇴, 오렌지카운티에 자리 잡았다. 임성환 기자

## 스몰비즈니스 10곳 중 1곳 아시안 소유

30% “업소 운영이 아메리칸드림”  
중소기업 3300만개, 전체 99.9%

아시안이 전국 스몰비즈니스의 11%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10명 중 3명은 비즈니스 소유가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같은 결과는 전국 스몰비즈니스 주간(National Small Business Week)이 다가오면서 퓨리서치센터가 실시한 스몰비즈니스 관련 설문조사에서 나왔다.

연방중소기업청(SBA)에 따르면 직원 수 500명 이하 기업이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한다. 스몰비즈니스 3300만 개는 유급 직원이 없다. 유급 직원을 둔 스몰비즈니스는 600만 개뿐이다.

센서스가 실시하는 연례비즈니스 설문조사(ASB)에 따르면 스몰비즈니스

규모는 연간 16조200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며 2021년 기준으로 약 5640만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직원을 둔 600만 개의 스몰비즈니스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49%는 직원 수가 1~4명이었다. 27%는 5~19명, 8%는 20~99명 수준이었다. 이중 100명~499명 직원을 보유한 스몰비즈니스는 1%에 불과했다.

스몰비즈니스는 일반적으로 가족이 소유한 경우가 많다고 여겨지지만, 조사 결과는 달랐다. 가족 소유는 27%뿐이었다. 특이한 점은 프랜차이즈 방식의 스몰비즈니스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았다는 것이다. 설문조사 응답자의 5%만이 프랜차이즈로 운영됐다.

인구통계학적 측면에서는 남성이 스몰비즈니스 지분을 더 많이 소유하고

있었다. 2021년 기준 중소기업 10곳 중 약 6곳(61%)은 남성이 대주주였다. 22%만 여성이 소유했다. 14%는 남성과 여성 지분 비율이 동등했다. 인종별로 살펴보면 백인이 대주주인 경우가 85%나 됐다. 아시아계는 11%, 히스패닉은 7%, 흑인 또는 아프리카계는 3% 정도다.

2022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실시된 퓨리서치센터 설문조사에 따르면 아시아계의 30%는 사업체 소유가 아메리칸 드림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스몰비즈니스 신청 건수는 2019년 약 130만 건에서 2023년 거의 180만 건으로 4년 만에 38%가 증가했다.

주별로 살펴보면 인구가 가장 많은 곳에서 2023년 스몰비즈니스 신청이 가장 높았다. 1위를 차지한 플로리다는 22만5809건이었으며, 그 뒤를 이어 캘리포니아 22만1571건, 텍사스 14만1888건, 뉴욕 13만1206건, 조지아 8만1403건 순으로 집계됐다. 이은영 기자

## 구글, 핵심부서 인력 200명 해고

구글이 핵심부서 인력을 최소 200명 해고했다. 일부 해고된 직원 인력은 조직 개편 차원에서 멕시코와 인도에서 충당할 계획이다.

지난 1일 CNBC 방송에 따르면 구글 개발자 에코시스템의 아심 후사인 부사장은 지난주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이런 구조조정 계획을 밝히고 이번 감원이 올해 개발자 팀이 계획한 가장 큰 규모라고 전했다.

그는 “우리는 현재의 글로벌 입지를 유지하고 고성장하는 지역에 인력을 확충해 파트너 및 개발자들과 더 가까

운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글의 핵심부서는 회사 주력 제품의 기술적 기반을 구축하고 사용자의 온라인 안전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정보 기술, 프로그래밍 언어 파이썬 개발, 기술 인프라, 보안, 앱 플랫폼, 개발자 및 엔지니어링 기술 부서가 포함된다.

해고 인력 중 최소 50명은 캘리포니아주 서니베일 본사의 엔지니어링 인력이다. 구글은 멕시코와 인도에 이 부서를 배치해 현지에서 해당 직무 인력을 채용할 예정이다.



태권도 고단자회 2024 연례 모임 개최 미국 내 태권도 8, 9단 고단자들의 모임인 미국 태권도 고단자회의 2024 연례 모임 및 16주년 명예의 전당 시상식이 지난달 12~14일 애틀랜타 웨스턴 공화 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122여 명의 고단자 및 가족 등 250여 명이 모여 품세 세미나, 명인 시상식 등 순서를 갖 고 친목을 다졌다. 신임 회장으로는 신재근(82) 관장이 당선됐다.



〈문&박 합동법률사무소〉는 1984년 이래로 지난 38년간 워싱턴 한인사회와 함께 성장해왔습니다. 교육위원회, 도시개발위원회, 인권위원회, 소수계학생문제 자문위원회 등 지역 주류사회에서도 적극 활동하며, 한인동포 여러분을 위해 정확하고 친절한 종합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취급 업무** 민/형사 소송, 교통사고, 학생/취업/연수/종교/투자 비자, 각종 이민, NIW, 추방재판/면제, 손해배상, 가정법, 사업체/부동산 매매, 영리/비영리 회사설립, 임대차 계약, 고용 관계, 유서 작성, 상속 수속, 이혼, 입양 등

**문일롱 변호사**  
· Harvard 대학  
· William and Mary 법과대학원  
· 페어팩스 카운티 현 6선 교육위원  
· 페어팩스 카운티 Planning Commissioner(전)  
· 버지니아 주지사 도시정책 자문위원(전)  
· VA, MD, DC 변호사 자격

**박상근 변호사**  
· 서울 법대, 대학원 졸업  
· George Washington 법대 법학 석사  
· 전 Fairfax County 인권위원회 부의장  
· 전 버지니아 주의회 이민난민 정책위원  
· 전 북미주 기독교인협회 총연합회 회장(소수계학생문제)  
· VA, MD, DC 변호사 자격

**임현식 변호사**  
· 아메리칸대학교 로스쿨 졸업 (Juris Doctor)  
· 아메리칸대학교 비즈니스쿨 졸업  
· 전 대한민국 경제 5단체 한국무역협회 소속변호사 (한미통상담당)  
· 전 버지니아 주 페어팩스 교육청 자문위원(소수계학생문제)  
· VA, MD, D.C. 변호사협회 정회원

**우시영 변호사**  
· Georgetown 법대 법학 석사  
·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 주요 일간지 이민 법률 상담 변호사  
· 전 아태법률구조센터(APALRC) 법률 통역  
· 전 LG에서 채권 및 담보 업무 담당  
· VA, NY 변호사 자격

**문&박 합동법률사무소** 대표전화 **703-941-7395** [www.moonparklaw.com](http://www.moonparklaw.com)  
7617 Little River Tpke., Suite 800  
Annandale, VA 2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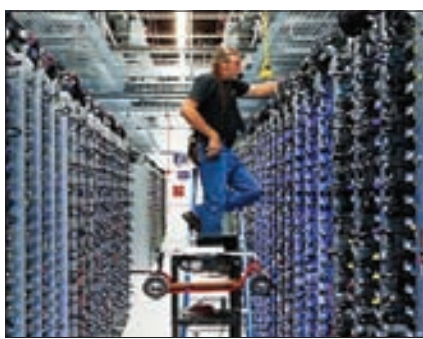
# 구글, VA 10억불 데이터센터 확장

라우든-PW 카운티, 전력 부족  
100% 재생에너지 정책 차질 우려

IT 기업 구글이 버지니아 라운던 카운티와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에 10억달러 이상을 투입해 데이터센터를 확장하겠다고 발표했다.

루스 포렛 구글 CEO와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는 구글의 레스톤 지역본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투자를 포함해 구글의 버지니아 직접 투자액이 42억달러에 이른다고 밝혔다.

구글은 버지니아와 협력을 통해 인공지능 개발 업무에 모두 7500만달러 직접 투자를 약속했다. AI 개발이 가



속화되면서 데이터 센터 필요성이 더욱 커져가고 있다.

이에 따라 대형 IT 기업의 데이터 센터 선점 경쟁까지 벌어지고 있다. 전력 공급이 용이한 지역이 고갈되면서 유력 입지의 토지가격이 급상승하고 있으며 세금 인상과 함께 소음 및 전자파

규제도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버지니아 환경단체들은 막대한 전기를 소모하는 데이터센터에 전기를 싸게 공급하면서 버지니아 전체의 전력산업 구조재편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버지니아는 2050년까지 소비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기로 했으나 데이터센터 소비전력이 늘어나면서 더욱 많은 시설투자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버지니아 주정부는 아무런 문제가 안된다는 입장이다. 공화당 행정부는 어차피 재생에너지 정책에 반대하기 때문에 전력이 부족할 경우 화석연료 발전의 명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옥채 기자**

# 대학 시위 강제진압 시사

영킨 주지사 "사태 악화시 개입"

글렌 영킨(사진) 버지니아 주지사가 강경보수파의 대학 캠퍼스 시위 진압 요구에 대해 평화로운 시위는 보장하지만 폭력이 개입될 경우 절대 관용하지 않고 캠퍼스를 포위할 것이라고 밝혔다.

버지니아에서는 버지니아대학(UVA)과 버지니아텍, 메리워싱턴 대학 등에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 공격을 비판하는 시위가 발생해 200여명이 체포되거나 징계를 당하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버지니아텍에서는 지난달 29일 체포과정에서 경찰과 학생 간에 물리적인 부상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버지니아텍은 대학 내에서 체포된 시위대 중 학생은 53명 뿐이며 나머지는 외부인사라고 밝혔다.

영킨 주지사는 CNN 방송의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언' 프로그램에 출연해 "연방 수정헌법 제1조는 표현의 자유 및 평화로운 시위를 자유를 보장한다"면서도 "유대인 학생들을 위협하는 행위 등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시위 학생들의 수업참



여를 금지하고 반유대적 발언을 할 경우 반드시 처벌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영킨 주지사가 반유대주의(Antisemitism)를 더욱 폭넓게 규정한 법안에 서명한 사실을 상기시켰다. 버지니아는 국제홀로코스트기억연맹(IHRA)이 주장해온 반유대주의 개념을 그대로 차용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IHRA는 '유대인에 대한 증오적 표현이 될 수 있는 특정한 인식 자체도 반유대주의에 해당하며, 유대인 혹은 비유대인에 대한 수사학적, 물리적 표현 중 증오적 표현을 모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작년 7월부터 시행된 개정법률은 반유대주의 범죄 추적과 보고서 작성, 증오범죄 예방을 위한 훈련과 교육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의 국제 인권단체는 확대된 반유대주의 개념이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는 구실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옥채 기자**

# MD, 번아웃 금지법률 도입

메릴랜드 의회가 각종 자동차 변칙 기술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성사시키고 웨스 무어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

통과된 법안에 의하면 도로교통과 보행자 안전에 심각한 위협요인으로 지목되는 자동차 도넛과 번아웃을 금지하고 위반시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자동차 도넛은 고속출력을 통해 좁은 곳에서 스팀을 도는 기술이며, 번아웃은 타이어의 접지력을 초과하는 출력에 의해 타이어가 고속 회전하



며 마찰열에 의해 화재를 유발하는 기술이다. 후륜구동차량 번아웃의 경우 브레이크를 밟아 앞바퀴를 잠그고 기어를 넣고 액셀러레이터를 꼭 밟아 티

이어 연기와 화재를 유발한다. 심하면 불이 붙는 경우도 있다.

법안에 의하면 기존 벌금 500달러를 1천달러로, 벌점을 8점에서 12점으로 올리게 된다. 이같은 벌점은 음주운전에 상응하는 것이다. 벌점 8점은 면허 정지, 12점은 면허 박탈에 준한다.

메릴랜드에서는 번아웃과 도넛 등 각종 불법 자동차 밋업 행사에 인과가 물리고 이를 구경하다 부상을 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무어 주지사는 다음주 안으로 법안 서명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법안 시행 시기는 6월1일이다.

# "약필 처방전 때문에 반려견 죽어"

버지니아의 한 CVS 약국이 처방전을 오독해 엉뚱한 약을 처방하는 바람에 반려견이 죽는 사건이 발생했다.

미로스라바 미르체바(VA 알링턴 거주)는 자신이 기르던 카발리에 킹찰스스페니얼종 반려견 데이지(10세)를 가족처럼 아꼈으며 영국 런던의 동물병원에서 심장수술을 받게 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나 알링턴으로 돌아온 미르체바는 한 동물병원에서 수술 경과 6개월 정기 체크업을 한 결과 심장부정맥약을 처방받아 CVS 약국에서 약을 받았다. 이 약을 먹은 후에도 반려견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호흡곤란 증상이 더욱 심해지고 갈증을 호소했다.

미르체바는 혹시 처방약이 잘못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약병을 사진 찍어 수의사에게 보냈다. 수의사는 비로소 원인을 알 수 있었다. 자신이 처방한 Amiodarone 대신 고혈압약인 Amlodipine이 처방됐던 것이다.

또한 처방전이 요구한 약품 함량도 아니었다. CVS 약국 측은 처방약을 잘못 조제한 사실에 대해 사과했으나 처방전을 읽기 매우 힘들었다고 변명했다. 미르체바는 "버지니아 주법상 반려견을 소유 물품에 지나지 않지만, 내게는 가족이었다"고 밝혔다. 미국의학협회에서는 미국에서 의사의 약필 때문에 사망하는 환자가 매년 5천 명이 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윤미 기자**

## ▶ 1번 '기준 금리'에서 이어집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에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이 3.3%(2019년 2월~2020년 1월 평균)를 나타냈던 것에 비하면 지난달(3.9%)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다만 시장은 이 지표가 3월(4.1%)과 2월(4.3%)에 이어 꾸준히 둔화 흐름을 보인다는 점에 주목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몇 달간 지속해서 높은 물가 상승세가 나타났음에도 임금상승률이 완화된 것은 Fed에게 매우 반가운 신호가 될 것

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1일 제롬 파월 Fed 의장은 "노동시장이 의미있게 둔화한다면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극심한 경기침체 없이 물가 목표(2%)에 다가가는 연착륙 전망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시장은 Fed가 하반기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기대에 다시 불을 지폈다. WSJ은 "경기가 둔화하면서 9월 인하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는 이런 고용 둔화세가 3개월 이상 지속해 하나의 추세로 자리 잡는

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의 울루소놀라 분석가는 "한달의 수치를 추세로 보기는 어렵다"며 "Fed가 금리인하카드를 다시 쥐기 위해서는 향후 몇 개월 동안 이러한 유형의 완화가 나타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금융사 BNP파리바는 "향후 2~3개월간 일자리 수가 10만~15만 건 이하로 지속해서 악화하고 실업률이 4.5%에 가깝게 상승할 경우 6~7월 금리인하가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효정 기자**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할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380, Ellicott City, MD 21043

**맞춤형 자산의 달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유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 상업용자 ·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 301-275-1494**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헤민한의의원**

동서 의학의 접목

Columbia  
화, 목, 토 진료

Gaithersburg  
월, 수, 금 진료

**Tel. 443-878-4637**

**"최고"**  
모두가 최고라고 말합니다.

이제 주택 융자는 그린웨이 홈론 **배준원** 융자에 맡겨 주세요!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길을 갑니다"**

이자율이 높다구요? 그럴수록 비교해보세요.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직접 경험해 보세요!

**WWW.JUNBAEMORTGAGE.COM**

**배준원 (Jun W. Bae)**  
Vice President / MBA / Sr. Mortgage Banker

**703.868.7147**  
Jun@gwhomelending.com  
(NMLS# 178471)

**센터빌 오피스 토요일도 오픈합니다.**  
(토요일 오전 10시~1시 무료상담)

13890 Braddock Road, Suite 207, Centreville, VA 20121  
(센터빌 하이마트 건너편 위치)

**GREENWAY HOME LOANS**  
VA, MD, DC, NC, TX, PA, SC, FL

Greenway Home Loans, Inc. is licensed by the District of Columbia Government DSB, Maryland State DLR, Virginia State Corporation, North Carolina Commissioner of Banks, Texas Department of Savings and Mortgage Lending, Pennsylvania Department of Banking & Securities, Florida Bureau of Regulatory Review - Finance, South Carolina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License Numbers: DC.MLB2501870; MD 2501870; NC.L-219065; VA.MC-7782; TX 2501870; PA 106923; FL.MLD2525; SC 2501870 Greenway Home Loans Inc. NMLS# 2501870

**영아패션**  
YOUNG AH FASHION

각종 약세사리 스카프, 모자, 신발, 가방, 마스크 등 판매

한국 최신패션! 최고의 퀄리티!  
유명 브랜드의 고품질 제품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장만하세요!

**영아패션**  
T. 443-440-2000  
3215 Corporate Ct., Ellicott City, MD 21042

Baltimore National Pike  
M&T 대장금(아라조)를  
웨일리노레방

미락조 물 대장금 식당  
뒤쪽 길로 300m 정도  
내려오시면 새로지는 뉴타운을  
맞은편 미국 성조기 달려있는  
파킹장으로 들어오세요~

# 대학가 반전시위 유럽 확산

## 베를린 300명 강제해산

미국에서 시작한 대학가 반전 시위가 유럽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4일(현지시간) 독일 일간 타게스슈피겔·쥐트도이체차이퉁에 따르면 전날 베를린 훔볼트대(HU)에서 약 300명, 뮌헨 루트비히막시밀리안대(LMU) 캠퍼스에서 약 100명이 연좌 농성을 벌였다.

학생들은 '팔레스타인 만세', '학살 중단' 등 팔레스타인 지지 구호를 외쳤다. '컬럼비아에서 뮌헨까지', '독일 대학을 점령하라' 등 최근 미국과 프랑스 등지에서 확산하는 캠퍼스 시위에 연대한다는 구호도 등장했다.

올리아 폰블루멘탈 훔볼트대 총장은 시위가 아닌 토론 자리를 따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총장을 '시온리스트(유대민족주의자)'라고 비난하며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훔볼트대는 지난 2월 이스라엘 대법관을 초청해 법학 토론회를 열었다가 친팔레스타인 시위대의 항의로 행사를 중단한 바 있다.

베를린 경찰은 훔볼트대 캠퍼스 시위를 강제로 해산했다. 이 과정에서 퇴거 명령에 불응하는 시위대 38명을 체포했고 증오 선동과 공무집행 방해·폭행 등 37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카이 베그너 베를린 시장은 엑스(X·옛 트위터)에 "베를린의 대학에서 반유대주의와 증오, 혐오는 용납되지 않는다.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상황을 만들려는 이들과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적었다.

베를린 경찰은 시위대가 선동 구호를 외치기 시작해 경찰관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이후 독일에서 금지된 구호 '강에서 바다로'를 문제 삼았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아일랜드에서는 더블린대 트리니티 칼리지 학생 수십 명이 전날부터 이틀간 캠퍼스 중앙광장에 텐트를 친 뒤 도서관 앞에 벤치를 쌓아 출입을 봉쇄하며 시위를 벌였다.

트리니티 칼리지 도서관은 9세기 라틴어 복음서 '켈스의 서'를 소장·전시해 관광명소로도 꼽힌다.

학생들은 이스라엘 대학들과 관계를 끊고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 계획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아일랜드 정부는 최근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팔레스타인에 유화적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은 대학 측이 팔레스타인 지지 등 각종 집회로 손실을 봤다며 학생회에 벌금 21만4천유로를 부과한 뒤 시위 텐트를 차렸다.



훔볼트대 팔레스타인 지지 농성

### > 1면 '미사일'에서 이어집니다

1980년대 이후 북한은 주로 리비아, 시리아, 이란 등 북아프리카와 중동 국가에 구식 소련제 미사일을 주로 판매해 왔으나 1월 2일에 발사된 미사일은 북한이 최근 몇 년 사이 개발에 성공한 단거리 미사일 화성-11형로 사실상 확인됐다. 화성-11형의 사거리는 약 700~900km다.

미들버리 국제학 연구소의 북한 무기 및 비확산 전문가인 제프리 루이스 박사는 "북한 미사일의 성능이 러시아 미사일보다 크게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이 1년에 수백 개의 미사일을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을 더 어렵고 불



올 1월 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대 생산 공장을 둘러보며 현지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편하게 만들 수 있고 비용을 높일 수도 있지만, 북한의 무기 생산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며 "서방은 궁극적으로 불량 국가를 봉쇄하려는 시도에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백일현 기자

# 트럼프 4월 후원금 7천600만불 ↑

## "바이든 정부는 계슈타포"

공화당 대선 후보 자리를 확정할 도널드 트럼프(사진) 전 대통령이 지난달 모두 1천억원이 넘는 후원금을 모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5일 성명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 선대위와 공화당 전국위원회를 합쳐 지난달 모두 7천600만달러를 거둬들였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후원금 총액(6천560만달러)을 넘어서는 규모다.

선대위는 "지난달 전체 후원금의 절반이 소액 기부자로부터 발생했다"며 "우리의 기반이 강화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난달 후원금 내역은 아직 공개전이다. 11월 대선에서 리턴 매치를 앞두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여론 조사 결과상 열세 와중에도 후원금에서는 꾸준히 앞서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들어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각종 여론조사 상으로도 다시 박빙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월에는 버락 오바마, 빌 클린턴 등 민주당 출신 전직 대통령들이 참여한 조호화 후원 행사를 개최, 2천600만달러를 단숨에 거둬들인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에는 자택이 위치한 플로리다 마라라고에서 공화당 전국위와 공동으로 고액 후원자 오찬 행사를 개최했다.

모두 4개의 행사 재판을 진행 중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법 비용 중 상당액을 대선 자금으로 충당하면서 '돈가슴'에 시달리는 상황이다.

뉴욕타임스(NYT)와 NBC 방송 등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특히 크리스티 노먼 사우스다코타 주지사, 더그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 J.D 밴스 상원의원, 엘리즈 스테파니 하원의원,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팀 스콧 상원의원, 바이런 도널즈 하원의원 등 부통령 후보군에 포함된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행사에서 바이

든 대통령을 "역대 최악의 대통령"으로 규정하며 자신에 대한 형사 기소는 정치 탄압이라는 주장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진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특히 "이 사람들은 계슈타포 행정부를 운영하고 있다"며 바이든 정부를 나치 시절 비밀 경찰 조직 계슈타포에 비유했다고 NYT는 보도했다. 행사에 참석한 잠재적 '러닝메이트'들은 각종 방송 출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전폭적 충성심을 확인했다.

스콧 의원은 NBC 방송 '미트 더 프레스'에서 '누가 당선돼도 2024 대선 결과를 인정하겠느냐'는 압박 질문에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을 선택할 것"이라는 대답을 되풀이했다.

그는 부통령 후보 지명 가능성에 대해선 "향후 60일 안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결정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신의 지명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버검 주지사는 CNN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 관련 회계 조작 의혹 재판에서 유죄를 받는다면 "이는 정의를 빙자한 졸렬한 모방"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공개 계약으로 돈을 지불하는 것은 언제나 일어나는 일이며, 사업 신고 오류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안"이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전폭 방어했다.

# 브라질 남부, 3일 만에 두달치 물폭탄...178명 사망·실종

## 과이바 강, 1941년 이래 최고 수위

브라질 남부 지역을 휩쓴 수마로 인한 인명피해가 시시각각 늘고 있다.

5일(현지시간) 오글로부와 G1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일주일간 최남단 히우그란지두술주(州) 곳곳에 내린 강함비로 이날 정오까지 75명이 숨지고 103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3일 정오 기준(101명 사망·실종)보다 증가한 수치다. 이재민은 1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재난 당국은 확인했다.

브라질 기상청은 히우그란지두술주 전역에서 300mm 안팎의 강우량이 기록됐다고 밝혔다. 벤투군사우베스의 경우 일주일 누적 강우량이 543mm를 넘었다.

히우그란지두술 중심 도시인 포르투알레그리에서는 사흘 만에 258.6mm의 비가 내렸는데, 이는 4월(114.4mm)과 5월(112.8mm) 평년 강우량을 합친 것보다 많다고 브라질 기상청은 강조했다. 포르투알레그리 인근 과이바강 수위는 이



5일(현지시간) 브라질 히우그란지두술 주도인 포르투알레그리 도심 곳곳이 침수돼 있다.

날 오전 7시에 1941년(4.76m) 이후 최고인 5.3m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 곳곳은 대부분 침수됐다.

포르투알레그리 지역 상공에서 촬영해 현지 매체에 보도된 사진과 동영상은 보면 도로엔 물이 가득 들어차고, 시청사를 비롯한 저지대 건물은 대부분 1층의 절반 이상 물에 잠겨 마치 수중 도시처럼 변했다.

교도소 역시 피해를 봤다. 1천여명의 수감자가 인근 도시 교정 시설로 긴급 이감됐다고 G1은 보도했다. 이 지역 국

제 공항은 폐쇄됐고, 시내버스 95%의 운행도 중단됐다.

주 정부는 전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식수 및 비상식량 공급 등 재난 대응에 간간힘을 쓰고 있다. 브라질 연방 정부도 군 장병을 투입해 이재민을 지원하고 배수작업 등을 돕도록 했다.

오글로부는 아마존에서 기원한 거대한 수증기 통로, 강한 바람, 고온다습한 고기압 '공기 벽' 등 영향으로 이 지역에 비극적 수해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상학자들의 분석을 전했다.



## 워싱턴 가정상담소

# 강혜정 박사와 함께 하는 2024 봄 온라인 세미나

## Anxiety to Security Transformation



강사 강혜정 Ph.D

- 전)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대학교 상담심리학 교수 역임
- 전) 이화여대, 한신대 등
- SMP(The Society of Modern Psychoanalysis) 정신 분석가
- 나무와 새 심리상담연구소 전문가 및 사례지도 감독
- 저서 투사적 동일시: 너를 들어주고 나를 내쉬다
- 공역서 현대정신분석

1강 4월 23일 (화) 오후 7시 30분 너를 들어주고 나를 내쉬다: 투사적 동일시

2강 5월 21일 (화) 오후 7시 30분 늘 은밀히 귀 기울이기: 애착

3강 6월 18일 (화) 오후 7시 30분 헛된 자기복구 시도: 중독

- 장소: Online Zoom Meeting (당일 전체 이메일로 줌 링크 올리고 초대합니다)
- 등록비: 무료 (사전 등록 필수)
- 등록 신청 링크: QR Code 첨부
- 문의: 703-761-2225 / counseling@fccgw.org



등록 QR 코드

후원: KACF KOREAN AMERICAN COMMUNITY FOUNDATION 재외동포청 David & Kim Sohn Foundation LLOYD A. FRY FOUNDATION Jurie Foundation



워싱턴 가정상담소 1952 Gallows Rd. #210, Vienna, VA 22182

# CUCKOO

## 쿠쿠 5월 가정의 달

# ONLY 쿠쿠 프로모션

기간 | 04.26.2024 - 05.28.2024

조건 | 기간 내 주문 & 5월 내 설치

### 쿠쿠 최초! 최대! 최고가의 밥솥 증정! & 쿠쿠 제품 최대 할인!

증정품

6-Cup HP Twin Pressure Rice Cooker

\$330 VALUE



CRP-ST0609FW

CRP-LHTR0609FW

쿠쿠라서 가능한 혜택

절대 놓치지 마세요!

증정품

6-Cup IH Twin Pressure Rice Cooker

\$550 VALUE

## 일시불 최대 40% 할인



\*제품별 할인율 다름

프리미엄 제품 구매시

20% 할인 ◦ 블렌더 증정

프리미엄 2nd 제품 부터

40% 할인 ◦ 트윈프레서 밥솥 증정

## 렌탈 시 다운페이 면제 & 최고급 프리미엄 쿠쿠 밥솥

타사 고객 보상 혜택은 또 추가 선물 증정

- 1건 렌탈 시 쿠쿠 블렌더 증정!
- 2건 렌탈 시 트윈 프레서 밥솥 증정!
- 3건 이상 렌탈 시 프리미엄 IH 압력밥솥 증정!



증정품

## 쿠쿠 시그니처 제품 인상전 가격으로 특별 할인

일시불 / 렌탈  
시그니처 제품

CP-P011G / CP-P011T / CP-MN031BK



## 쿠쿠 리네이처 안마의자 할인



증정품

일시불

최대 \$1,500 할인 ◦ LED MASK 증정

렌탈시

3D 다운페이 면제 - \$500 - ◦ LED MASK 증정

### Virginia

리빙스토리 Centreville 703-975-1313    하이트론즈 Centreville 571-404-4132  
건강마을 Centreville 703-712-7116

### Maryland

롯데마트 Ellicott City 410-750-8011  
힐링마을 Ellicott City 443-878-9010

- 동일 계약자 & 동일 빌링 & 동일 설치처 필수
- 사은품 관련 부품과 필터 등의 추가 구매 및 A/S는 유상 제공

- 구매 후 계약 해지 또는 반품시 지급된 사은품은 회수될 수 있음
- 일부 혜택은 중복 적용 불가

사은품은 지역/매장/판매인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본 프로모션의 최종 해석권 및 결정권은 CUCKOO AMERICA INC. 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쿠쿠 렌탈 고객센터 또는 가까운 판매처 및 홈페이지를 방문하세요. 해당 프로모션 복수 고객 시 사은품 중복 증정, 단 선물당 고객 최대 1개 증정

888.700.0425 | CUCKOORENTAL.COM |

\*동일 계약자 & 동일 빌링 & 동일 설치처 필수  
-사은품 관련 부품과 필터 등의 추가 구매 및 A/S는 유상제공  
-구매 후 계약 해지 또는 반품시 지급된 사은품은 회수될 수 있음  
일부 혜택은 중복 적용 불가

# 마크롱, 시진핑에 특급 환대... '제2 고향' 피레네로 초대

시 주석, 5년 만에 유럽 순방 시작  
오늘 프랑스 국민 방문... 정상회담  
미국의 대중 견제망 균열 노릴 듯  
“푸틴 15~16일 방중” 중·러는 결속



오는 7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찬 회담을 하는 피레네 산맥 투르말레의 라몽지 스키 리조트. (AFP=연합뉴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5일 프랑스·세르비아·헝가리 유럽 3개국 순방에 나섰다.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미국의 우방이면서도 대중 정책에서 전략적 자율성을 표방하는 프랑스와의 정상회담 결과가 주목된다.  
중국 관영 신화사는 이날 오전 시 주석이 베이징에서 전용기를 타고 첫 방문지인 프랑스를 향해 출발했다고 보도했다. 시 주석의 유럽 단독 순방은 이탈리아·모나코·프랑스 3개국을 방문한 2019년 3월 이후 5년여 만이다.

이번 순방에는 부인 평리위안(彭麗媛) 여사, 시 주석의 비서실장인 장이(張毅) 중령, 시 주석의 특사 장이(張毅) 중령이 동행했다. 시 주석은 6일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3차 회담도 할 예정이다.  
엘리제 궁은 양국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정세를 핵심 의제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여름 파리 올림픽을 개최하는 프랑스는 경기 기간 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을 추진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압박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의 방중이 오는 15일로

이동했다.  
시 주석의 프랑스 국민 방문이 양국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이뤄지는 만큼 초점은 우호 증진에 맞춰질 전망이다. 시 주석은 이번 방문을 미국 중심의 대중 견제망에 틈새를 벌릴 기회로 볼 가능성이 크다. 시 주석은 6일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3차 회담도 할 예정이다.  
엘리제 궁은 양국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정세를 핵심 의제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여름 파리 올림픽을 개최하는 프랑스는 경기 기간 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을 추진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압박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의 방중이 오는 15일로

예정된 만큼 중국의 전략적 입장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마크롱 대통령은 7일 파리 일정을 마친 시 주석 부부를 외할머니 고향인 남부 피레네 산맥으로 초대해 환대할 예정이다. 스페인과 국경을 접한 피레네 산맥의 투르말레 인근은 마크롱 대통령이 어린 시절 외할머니를 만나기 위해 자주 방문해 '제2의 고향'으로 불린다. 피레네 회동은 지난해 4월 중국을 방문한 마크롱 대통령을 위해 시 주석이 마련했던 광저우 일정에 대한 답례로 마련됐다.  
시 주석은 다음 순방국인 세르비아에서 1999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전투기의 오폭으로 파괴됐던 중국 대사관 부지에 건립된 중국문화센터 개관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 “트럼프 당선 땐, 나토 국방비 GDP 2%→3% 인상 압박할 듯”... 한국도 영향권

한국, 현재 GDP 2.48% 국방비 지출  
기준 따라 분담금 증액 요구할 수도  
재임 시절 동맹국을 ‘지켜주는 대가’라며 국방비 인상을 요구해 온 도널드 트럼프(열골)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과거보다 한층 높은 기준을 설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한국에 대한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금 증액 압박도 더 거세질 전망이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3일(현지시간) 트럼프와 가까운 소식통을 인용해 “트

럼프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의 국방비 지출 비율을 지금의 국내총생산(GDP)의 2%에서 3%에서 올리라고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그의 생각이 새로운 타킷인 3%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전했다.  
나토 회원국들은 2014년 국방비 지출 비율을 GDP의 2%까지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를 충족한 회원국은 지난해 기준 나토 31개국(미국 포함) 중 11개국에 불과하다.  
그의 측근은 트럼프가 지난달 뉴욕에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을 만난 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두다는 그간 러시아의 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해 나토가 방위비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3% 안을 제시했다.  
더타임스는 트럼프가 생각하는 3%는 우크라이나 지원 비용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라고 전했다. 나토 회원국 내에서 GDP 대비 국방비 지출 비율이 3%를 넘는 국가는 폴란드(4.3%), 미국(3.3%), 그리스(3.1%)밖에 없다.

트럼프는 이전에도 나토를 방위비 증액 압박의 주된 대상으로 거론했다. 지난 2월에는 나토 회원국들이 적절한 국방비를 지출하지 않는다면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격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토 회원국 대부분이 스스로 정한 2% 지출을 지키지 않아 나토 전체 국방비의 3분의 2 정도를 미국이 부담하고 있다.  
국방비 지출이 GDP의 2.48%인 한국은 적절한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트럼프의 기준이 3%라면 한국 역시 인상 압박에서

벗어날 수 없다. 국방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국방중기계획에서 향후 5년간 방위력 개선과 전력 운영에 들어가는 재원을 연평균 7%씩 늘리겠다고 밝혔는데, 이렇게 해도 전체 국방예산이 GDP의 3%에 도달하는 시점은 2028년은 돼야 한다.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 즉 방위비 분담금 총액을 대폭 인상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는 지난 달 30일 타임 인터뷰에서 “한국은 부자 나라”라며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크게 올릴 것을 시사했다.  
이유정 기자

## 중국, 짬테크 확산에 ‘거지밥상’ 만 불티... 식당 폐업 232% ↑

중국 상하이에서 회계사로 일하는 매기 쉬(29)는 매일 점심을 인근 국영 식당에서 해결한다. 10~15위안(약 1800~2800원)만 주면 큰 점시에 요기 할 만한 음식이 한가득 담겨 나온다. 국가 지원을 받는 국영 식당 주이용객은 주로 노인들이지만, 최근엔 쉬와 같은 젊은 고소득 직장인들이 장사진을 이룬다. 그는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라도 돈을 더 아껴야만 안전하다 느낀다”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토로했다.  
부동산 위기와 높은 청년 실업률 등으로 중국 경제가 심각한 부진을 겪으면서 젊은 층 사이에서 의식주 전반에 걸쳐 ‘초저가 소비’가 이어져 디스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을 압박하

는 상수가 되고 있다.  
NYT와 니혼케이자이신문(닛케이) 등 외신은 특히 중국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중국의 Z세대(1995~2009년 출생)가 ‘초저가 소비’를 주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례로 가장 적은 돈으로 먹을 수 있는 프랜차이즈 메뉴를 뜻하는 ‘중구이(窮鬼·거지) 세트’가 경쟁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맥도날드나 KFC 등에서 진행되는 무료 시식 행사나 반값 할인 행사들을 요일별로 목록을 만들어 SNS상에 공유하거나 직접 최저가 식재료를 공수해 밥·국·반찬 등으로 단출한 식단을 만드는 식이다.  
올 1분기 폐업한 음식점은 45만 9000 곳,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2% 급증



중국의 젊은이들이 저렴한 노점 식당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다(왼쪽). 하나에 2위안(약 380원)짜리 빵을 사기 위해 장사진을 이룬 중국 젊은이들(오른쪽). (AFP=연합뉴스, 사오홍수 캡처)

했다. 반면에 ‘2위안(380원) 빵집’과 같은 프랜차이즈들은 빠르게 매장 수를 늘리고 있다. 사찰의 템플스테이도 때 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다. 명상 등 잘 짜인 프로그램을 따르며 세계 식사를 다 주는데도 80위안(1만 5000원)밖에 하지 않아 ‘짬테크’를 하는 젊은 층에 호텔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의 명품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약 20% 감소했다. 중국 명품 시장 전문

매체 징데일리의 줄리애나 러 편집장은 닷케이에 “쓰름이 민감해진 중국 젊은 층에 맞춰 ‘가성비’ 제품을 내놓는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 내다봤다.  
바오상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 중국학 연구위원은 닷케이 인터뷰에서 이런 초저가 소비를 “단순히 반(反) 소비 흐름으로 해석하면 안된다”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환멸이 그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문제는 젊은 층의 초저가 소비 만능화가 중국의 경기 부양에 장기 걸림돌이 될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천저우 홍콩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는 “저가형 소비로의 전환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라며 “많은 기업이 파산하고 실업률이 증가하며, 이 때문에 ‘초저가 소비’가 더 확산하는 악순환의 굴레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민정 기자

# 한미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두 가지 여건은 경력과 학력입니다. 한미법률사무소의 임종범 변호사는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변호사입니다. 임종범 변호사는 미국의 명문 조지타운 법대를 2003년에 졸업했으며, 그 후로 20여 년간 변호사 활동을 했습니다. 아울러 임종범 변호사는 2005년, 2007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대통령의 통역을 맡은 바 있으며, 2010년, 2012년, 2014년에는 싱가포르 상그릴라 장관회의에서 미국 국방장관의 통역을 담당했습니다.

임종범 변호사는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법원,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연방지법,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파산법원 등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미 법률사무소는 한국어와 영어로 속 시원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파산** : 한미는 연방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입니다.

**이혼** : 합의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일방 이혼, 배우자 실종 이혼

**상속** : 유언장, 트러스트, 가디언, 상속 분쟁

**소송** : 오버타임, 항소, 계약위반, 부도수표

**리치몬드 페넌실라 상담원영**

**이름변경 · 교통사고 · 위임장**

**아포스티유 · 가족이민 · 추방재판**

걱정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으실텐데, 저희 한미가 친절하게 도와 드리겠습니다.

먹구름 뒤에 태양이 있고,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듯이 포기하지 마시고 힘을 내세요.

Hanmicenter.com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파산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임종범변호사”를 치시면 이혼, 파산, 생활법률에 관한 동영상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구글검색이나 중앙일보 웹사이트에서 “임종범변호사”를 치시면 한미법률사무소에서 기고한 300여개의 칼럼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Hanmi Center for Justice, PLLC (한미 법률사무소)**

**Tel. 703-333-2005 / 301-230-3122**

4216 Evergreen Lane, #131, Annandale VA 22003





# 버지니아 열린 홈 헬스케어

“**밝고 밝고 건강하게 열린  
헬스케어가 함께 합니다.**”



메디케이드  
신청 상담



롱 텀 케어  
서비스



어시스트 리빙  
[양로 호텔]

2024년 하반기 오픈 예정

양로원에 들어가실 분들과 나오실 분들께  
그룹 홈이나 양로 호텔로 안내해 드립니다.

**시니어 부부는 그룹 홈으로 모십니다!**



VIRGINIA OPEN  
HEALTH CARE

버지니아 열린 홈 헬스케어 대표 김종훈

문의 및  
안내

Doug Ko, PMP, Director of Healthcare Administration and Operations

Mobile: (703) 268-0107

Office: (703) 280-0910



General Inquiries: [info@vaohc.com](mailto:info@vaohc.com)

“어른들이 자꾸 물어봐, 커서 뭐가 되고 싶은지를 물어봐. 뭐가 됐든 행복하면 됐지. 뭐가 됐든 함께라면 됐지.”

지난 2일 서울의 한 스튜디오. 카메라 앞에 선 차노을(7)군은 아무진 표정으로 비트에 맞춰 랩을 뱉었다. 그는 조회 수가 1300만 회를 넘어선 ‘HAPPY(행복)’ 랩 영상의 주인공이다. 이날은 6일 정식 음원 발매를 앞두고 뮤직비디오를 찍는 날이었다.

촬영을 맡은 임다혜 감독은 “메시지가 좋아 먼저 작업하자고 제안했다. 노을이의 에너지와 끼가 기대 이상”이라고 말했다. 아들과 함께 뮤직비디오에 출연한 아버지 차성진(35)씨는 “정말 신기하고 감사한 일”이라고 했다.

노을이는 소셜미디어에서 초등래퍼로 유명하다. 그의 랩 영상은 수많은 네티즌의 마음을 울렸다. “나는 2학년 차노을”이란 외침으로 시작하는 곡에서 그는 “먹고 싶은 게 많아서 꿈도 너무 많다”고 했다. 래퍼와 경찰, 소방관과 태권도장 관장도 되고 싶지만 “사실 내가 진짜 되고 싶은 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6500개가 넘는 댓글에는 ‘눈물이 난다’는 표현이 많다. 취업준비생·임산부 등이 저마다의 고충과 다짐을 노래한 패러디 영상도 쏟아지고 있다.

이 영상은 아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도우려는 아빠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됐다. 차씨는 지난해 노을이의 담임 선생님께서 ‘(노을이가) 수업에 지장을 준다’는 연락을 받았다. 교실 뒤에 놓거나, 갑자기 운동장으로 뛰어

나간다는 얘기였다. 병원에 가보니 ADHD(주의력 결핍·과잉행동 장애) 진단이 나왔다.

그리고 새 학기. 노을이의 자기소개 숙제를 하며 차씨 부자는 함께 랩 영상을 만들었다. 실용음악을 전공한 아버지가 15분 만에 가사를 쓰고, 녹음·편

초1 때 교실서 드러누웠지  
학교 적응 못할까 걱정했지  
아빠와 함께 랩 만들었지  
뭐가 됐든 행복하면 됐지

집까지 직접 했다. 차씨는 “노을이가 친구들과 친해지는 데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았다”고 했다.

결과는 대성공. 노을이는 “랩을 보고 친구들이 많아졌다”고 했다. 최근 학교 장기자랑에서도 당찬 랩을 선보였다고 한다. 노을이는 “나 인기 많아

지게 해줘서 고마워”라며 작은 손으로 아빠의 어깨를 토닥였다.

노을이 등 삼남매의 아빠인 차씨의 직업은 목사다. 그의 양육철학은 자녀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다. 노을이가 ADHD 진단을 받았을 때도 ‘오히려 시원했다’고 했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대책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에서다. 차씨는 “제 장단점을 생각해 봤을 때 아들과 상당히 비슷하더라. 노을이가 진단을 받았을 때 ‘어쩐지! 그럴 것 같았어!’ 싶었다”며 웃었다. 자신과 닮은 아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는 고백이다. 그는 “ADHD는 단점이 아니라 하나의 조건”이라고 했다.

이날 뮤직비디오 촬영을 무사히 마친 노을이에게 ‘행복이 무엇이야’고 물었다. 한참을 고민하던 노을이는 “즐거움, 신남, 뿌듯함”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랩을 하고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는 요즘이 행복하다”고 했다.

차씨 역시 “노을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선에서 랩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했다. 부자는 현재 후속곡 ‘안녕’을 작업 중이다. 노을이는 후렴구를 불러주며 노래를 ‘선공개’했다.

“내가 ‘안녕’ 하면 너도 ‘안녕’이라고 말하면 좋겠어. 어색한 내 인사를 받아줘.” 서지원 기자

‘HAPPY’라는 랩 영상을 만들어 SNS에서 화제가 된 초등 2학년 차노을군과 아버지 차성진씨. 이 영상은 조회 수 1300만 회를 넘어섰다. 부자는 현재 후속곡을 준비 중이다. 전민규 기자

## 1300만 올린 초등래퍼 노을이

‘눈물 난다’ 등 댓글 6500개 넘어... “친구들 많아져 행복해요”



“나중에 기부도 하고 좋은 일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윤산(10)군은 지난 4일 엄마 임조화(42)씨에게 이렇게 말했다. 폐렴으로 입원해 있던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을 방문한, 유튜브 ‘허팝’(구독자 약 420만 명)을 만나고 난 뒤였다.

산이는 태어날 때부터 ‘가성 장폐쇄’란 병을 앓았다. 선천적으로 장의 운동 신경이 덜 발달해 음식물을 소화·흡수·배출하기가 어려운 희귀병이다. 그 탓에 포레가 좋아하는 치킨·고기 같은 것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다. 가슴에 꽂은 중심정맥관을 통해, 매일 수액으로 필요한 영양을 공급받는다.

이런 산이의 얘기는 <중앙일보 5월 3일자 1면> 보도 “다음은 전교회장 밥 못먹는 산이 꿈을 먹고 산다”를 통해 알려졌다.

어린이날 선물로 허팝과의 만남과 태블릿PC를 희망했던 산이는 어린이날 전날인 4일 극적으로 소원을 이뤘다. 산이가 퇴원하는 이날, 허씨가 병원을 깜짝 방문하면서다.



지난 4일 폐렴으로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에 입원한 윤산군을 찾은 유튜브 ‘허팝’(오른쪽). 작은 사진은 허씨가 윤군에게 선물한 태블릿PC와 티셔츠, 자필 서명이다. [사진 윤산가족]

## 허팝 형이 문병 왔어요... 소원 이룬 산이

컴퓨터 공학자가 꿈인 산이는 최근 전남창의융합교육원에 합격했다. ‘영재원에 합격하면 허씨를 만나게 해주겠다’고 공언했던 엄마 임씨는 막상 합격 소식에 고민이 커졌다. 결국 임씨는 산이의 사연이 보도된 지난 3일 허씨의 팬카페에 “산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용기를 냈다”며 기사 링크와 함께

밥 못먹는 희귀병 아이, 폐렴 입원 기사 나간 다음날, 선물 들고 찾아와 산이 “좋은 일 하는 사람 될래요”

글을 남겼다. 바로 카페 매니저에게 “연락처를 남겨 달라”는 댓글이 달렸고, 허씨와 연락이 닿았다.

임씨는 “허팝씨가 기사를 먼저 보고 산이에게 선물을 전하고 싶어 태블릿 PC 등을 이미 사둔 상태였더라”며 “허팝씨에게 전화가 왔을 때 눈물부터 났다”고 말했다. 허씨는 이날 산이를 찾아

사인과 함께 기념 티셔츠, 태블릿PC 등을 선물로 건넸다. 임씨는 “산이가 말도 못하고 어떻게 할 줄 몰라 하더라. 꿈만 같던 현실에 정말 좋아했다”고 전했다.

두 사람은 약 40분 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허씨는 산이의 건강 상태에 대해 물었고, 산이는 평소 허씨 영상을 보며 궁금했던 것들을 마음껏 질문했다고 한다. 임씨는 “산이에게 ‘간절히 원하고 노력하면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다’고 했다”며 “산이에게 허씨를 만난 뒤 느낀 점을 물어보니 ‘나중에 허팝님처럼 기부하고 좋은 일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더라. 받은 기쁨을 나누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했다.

임씨는 “큰 힘을 얻었고 앞으로 힘들 때마다 이 순간이 생각날 것 같다”며 “산이를 열심히 키우겠다”고 말했다. 황수연 기자

# 메디케어 보험

여기 메디케어 진짜 잘하는 헬스플랜 전문가와 함께 모든 베네핏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찾으세요!

- / 65세 되시는 1959년생 신규 가입신청과 가입
- / Part C (HMO/PPO) 가입자들을 위한 추가 혜택
- / 심장질환, 당뇨, 말기 신부전증을 위한 스페셜 플랜

- /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DSNP 특별 보험
- / 메디케어 Part D (처방약 보험)에 대해
- / 타주 전입, 직장 퇴직 후 메디케어 신청

유니티 보험

Uniti Global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Tel: 703-598-3316



정문기

메디케어 헬스플랜 전문 에이전트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탐 프로듀서  
질로우 프리미어 에이전트  
Top 15% National Agent by Homesnap

| 리스버그 싱글홈                          | 레스턴 콘도                                | 로턴타운홈                                                   | 클립턴 싱글홈                             |
|-----------------------------------|---------------------------------------|---------------------------------------------------------|-------------------------------------|
|                                   |                                       |                                                         |                                     |
| <b>\$1,110,000</b>                | <b>\$426,000</b>                      | <b>\$580,000</b>                                        | <b>\$840,000</b>                    |
| 방5, 화5, 차고2<br>5289 Sf<br>잘 관리한 집 | 방2, 화2, 1076 Sf<br>굿 로케이션<br>넉넉한 주차공간 | 방3, 화3.5, 차고1, End Unit<br>Walk Out, 1층 전체 마루<br>굿 로케이션 | 방4, 화2.5, 차고2<br>새지붕 등<br>업그레이드 많이함 |

“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드리겠습니다. ”

김경아

# 엘리콧시티 · 락빌

환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2 로케이션에서 진료합니다.

# 편한나라 척추신경 전문병원

**편한 위치! 편한 치료! 편한 척추!**

편한나라는 지난 20여년간 척추와 척추신경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통증을 치료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전문 의료인들의 협진으로 빠르고 정확한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 교통사고

-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와 함께 척추 및 자세교정
- 통증 침 치료(Dry Needling)
- 마사지 치료(LMT 라이센스 소지자)
- 디지털 X-Ray, 디스크 감압치료
- 물리치료기구, 재활 프로그램 완비

■ **Dry Needling 이란?** 침을 근육이나 근막조직의 통증점에 자침하는 치료법으로 근육통의 완화, 근육 및 인대의 긴장 감소에 효과가 있습니다.

### 진료 과목

- ✓ 자동차 사고 후유증
- ✓ 손, 발 통증 및 저림
- ✓ 척추 디스크 통증
- ✓ 어깨 결림 및 통증
- ✓ 두통, 목, 허리 통증
- ✓ 만성근육통

### 취급 보험

- Blue Cross Blue Shield
- Anthem
- United Healthcare/GEHA
- Innovation Health
- Blue Choice
- Aetna
- CareFirst



Dr. 민혁기

원장 Dr. 송영성

Dr. 석호선

#### Dr. 민혁기

- 전 경기대 대체의학 대학원 외래교수
- Body Balance Center Director(압구정)
- MD & VA Board Licensed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Magna CumLaude(우등졸업)
- Life Univ. Doctor of Chiropractic 과정전액 장학생
- 단대부고 졸업

#### 원장 Dr. 송영성

- 동아고, 경희대학교 졸업
- R.O.T.C 28기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Graduated Magna CumLaude from Life Univ.
- Practiced in Choi Chiropractic
- Certified in Cox Technique-Low Back Pain
- Certified Dry Needling

#### Dr. 석호선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졸업
- 대구 대건고, 경북대학교 졸업
- MD and VA Chiropractic Board Licensed
- Licensed Massage Therapist (LMT) of MD & VA
- Completion of Asian Bodywork Therapy Program
- Member of Associated Bodywork and Massage Professionals

엘리콧시티 (410) 480-2331  
3201 Rogers Ave. #102, Ellicott City, MD 21043

락빌 (301) 279-6960  
2000A Veirs Mill Rd., #A, Rockville, MD 20851

# 윤대통령 9일 회견... 여권 "설명보다 공감하는 대통령 돼야"

### 논리 중심의 화법에 우려 목소리 "제2의 의료개혁 담화 되면 안 돼"

"모든 사안마다 여러 얘기를 섞어 주변부 결정까지 얘기까지 하는 중형무진 화법이었다."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회담에 배석했던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한 말이다. "윤 대통령의 답변이 길었다. (발언 시간이 윤 대통령) 85%, (이 대표) 15%"였다는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의 회담 직후 평가와 같은 맥락이다.

야당의 정략적인 의도가 담겨 있다지만, 이르면 9일 있을 윤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준비 중인 용산 참모들도 윤 대통령의 화법을 고민 중이다. 다변가로 논리를 앞세우는 윤 대통령 특유의 화법이 대국민 설득에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찬성 여론이 다수인 채상병 특검법과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의대 정원 확대, 공약과 기 논란이 제기될 민정수석실 신설, 김건희 여사를 담당할 제2부속실 설치 등 까다로운 이슈에 입장을 밝혀야 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5일 통화에서 "기자회견 뒤 지지율이 올라야 하지 않겠느냐"며 "윤 대통령에게 여러 건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일 1만4000자 분량의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 때 각종 통계를 들어 "의대 정원은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다"며 의사 정원 2000명 확대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일방 설명에 외려 역풍이 불었다. 이 때문에 용산 참모들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설명하는 대통령이 아닌 공감하는 대통령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기자회견 답변뿐 아니라 모두발언부터 스타

일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수도권에 출마했다 낙선한 여당 당협위원장은 "제2의 의료개혁 담화가 돼선 안 된다"며 "채상병 특검도 법리적 문제점을 지적하기에 앞서, 21세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유감 표명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인 점 등을 들어 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싣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 때처럼 윤 대통령이 매몰차고 모진 모습으로 보여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폐지했던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키기로 한 이 유도 설명해야 한다. 대통령실은 이르면 7일 민정수석실 신설을 공식화하고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민정수석에 임명할 계획이다. 그 산하에 민정비서관(신설)과 함께 기존 공직기강·벌벌비서관을 한데 묶어 두는 방안이 거론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사정기관 장악은 꿈도 꾸지 않는다"며 "다만 민심 수렴과 함께 감찰 기능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올해 1월 윤 대통령이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거부권을 행사할 당시 대통령실이 발표한 제2부속실 설치도 남은 숙제다. 당시 대통령실은 "국민 대다수가 좋겠다고 생각하시면 (제2부속실 설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5일 제102회 어린이날을 맞아 전국 어린이와 가족 3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했다. 행사에는 전 물·순직 군경 자녀 등을 비롯해 양육시설과 가정 아동 등을 비롯해 양육시설과 가정 아동 등이 참석했다. 경남 의령군의 박성용·이계정(48)씨 부부 10남매도 윤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행사에 함께 했다. 박태인 기자



윤 대통령 "어린이 만나는 일 항상 설레"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제102회 어린이날을 맞아 청와대 연무관에서 어린이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전국 어린이와 가족 360여 명을 초청해 '공기정화식물 액자 만들기' 체험과 '버블 매직쇼' 공연을 관람했다. 대통령은 "어린이 여러분을 만나는 일은 항상 설레다"며 "어린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애써주시는 부모님,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사진 대통령실]

## 여 원내대표 추경호·이종배·송석준 도전... 이철규 불출마

후보 구인난으로 선거일까지 연기했던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전에 현 정부 경제부총리를 지낸 추경호(대구 달성, 3선) 의원이 5일 가세했다. 경선은 추 의원을 포함해 이종배(충북 충주, 4선)·송석준(경기 이천, 3선) 의원의 삼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추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이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국민의힘이 유능한 민생정당·정책정당·국민 공감 정당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이른바 '짚꾼'으로 불리는 이철규 의원 대세론과 추경호 이종배 송석준

당내 눈치보기 속에 출마자가 없어 선거일을 3일에서 9일로 연기했던 국민의힘은 3자 구도가 확보되면서 한시름 놓게 됐다.

세 후보 모두 행정고시 출신으로 이 의원은 행정안전부 차관을, 추 의원은 국무조정실장과 기획재정부 1차관을, 송 의원은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등 고위 공무원을 각각 거쳐 국회에 입성했다. 모두 진윤(윤석열)으로 분류되지만, 상대적으로 계파색이 없고 정책 통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지역적으로는 충청(이종배) vs 영남(추경호)

vs 수도권(송석준)의 대결 구도다. 추대론과 비토론이 맞섰던 이철규(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3선) 의원은 결국 불출마했다. 한때 도전 가능성을 시사했던 이 의원은 총선 참패 책임론이 거세게 일자 "누구든지 좋은 후보가 있다면 그분을 도울 것"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으로 선회했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 입장문을 통해 "당초 출마의사가 전혀 없었다."

앞으로도 당의 발전을 위한 일에 매진하겠다"면서 갑론을박이 종식될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오는 8일 당선인 총회에서 정권 발표와 후보자 토론을 진행한 뒤 9일 22대 국회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이창훈 기자

## '정부24' 서류 오발급, 개인정보 1200건 유출... 행안부는 쉬쉬

정부가 행정망 마비 사태를 방지하겠다고 대책을 내놓은 지 두 달여 만에 또 다시 비슷한 일이 수차례 재발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14개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내놓은 정부 대책의 신뢰성에 흠집이 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5일 행정안전부(행안부)에 따르면 대한민국 전자정부 서비스인 '정부24'가 최근 일시적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았다. 지난 4월 초 정부24에서 발급한 일부 민원 증명서에 타인의 이름 및 주민등록 번호, 주소와 납세 내역 등 민감한 개인 정보가 담긴 오류가 나타

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행정망 오류는 지난 2월에도 발생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A씨에 따르면 2월 28일 일부 개인용컴퓨터(PC)·스마트폰에서 일시적으로 정부24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접속 장애는 오후 2시쯤 해소됐다가 이후 또다시 1~2시간가량 오류가 났고, 잠시 후 다시 정상화했다. 이에 A씨는 국가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연락해 오류 영상을 제보했다. 하지만 "전원을 껐다 켜봐라"라는 답변만 들었다고 한다. 결국 그는 당일 발급·제출이 필요한 서류를

제때 발급하지 못했다. 지난 2월 개통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도 개통 후 한 달 이상 크고 작은 오류가 반복됐다. 이 시스템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납부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지자체 공무원들은 전국공무원노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지방세 업무를 전혀 알지 못하는 엔지니어들이 설계하고 시스템을 만들었고, 행안부는 손 놓고 있었다"며 "행안부의 불통, 무능함에 분노한다"는 글을 게시했다. 정부는 지난 1월 31일 디지털 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겠다고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협회장은 "행정망 마비 사태를 방지한다며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 허점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들게 한다"며 "최근 북한이 암호화폐를 해킹해 핵무기 개발비로 쓴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을 고려하면, 취약한 정부 행정망은 향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행정망 마비와 관련한 정부의 불통도 논란이다. 행안부는 중앙일보가 취재에 나서기 전까지 크고 작은 행정망

오류 사태의 규모와 원인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성적증명서·납세증명서 발급 오류 규모에 대해 박민식 행안부 정부포털기획팀 과장은 "피해 건수는 말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이번 사태 원인이 지난해 11월 행정망 마비 사태와 성격이 동일한 것인지 묻자 박 과장은 "예전 상황은 모르겠다"고 답했다.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재가 계속되자 정부는 5일 오후 오류 건수(1233건)와 원인(개발자 실수)을 밝혔다. 지난 2월에도 마찬가지였다. A씨가 묻자 당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오류가 발생하면 언론사 말고) 저희에게 가장 먼저 연락 달라"고 입단속부터 했다. 문희철 기자

www.GIANTREALTY.com

# 자이언트 부동산

부동산 전문지식  
협상능력  
리스팅 전문 서비스

결과가 다릅니다!

자이언트 부동산 사장 **수잔 오**  
Licensed in VA·MD·DC  
**703.975.4989**  
susanoh@giantrealty.com  
office. 703.641.4989

VA FAIRFAX HQ Office 703.641.4989 Fax 703.641.0033  
2751 Prosperity Ave., #580, Fairfax, VA 22031

MD ELLICOTT CITY Office 410.750.8040 Fax 410.750.3992  
3277 Pine Orchard Ln., Suite 2, Ellicott City, MD 21042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 전안과

23년 over 9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000 레이저 치료경력

진료과목

-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 녹내장 레이저 치료 & 수술 (Glaucoma Laser and Surgery)
-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구인 리셉션리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종연어 이력서: dceyeclinic@yahoo.com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nt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nt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dc-eyeclinic.com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 side T: 412 681 8505 144 South 20th Street Pittsburgh, PA 15232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독점**

완전 업그레이드하고 리노베이션한 단독 주택

**Annandale \$884,900**

방4, 화장실 4, 편리한 렘블러 스타일



**독점**

**Alexandria 킹타운 콘도**

방2, 화장실1

**\$329,900**



**독점**

**Springfield 콘도**

방2, 화장실 2,

계단없는 1층, 나무마루, 업데이트

**\$317,000**



**독점**

리모델한 예쁜 타운하우스

**Fairfax \$735,000**

Costco 동네



**독점**

새로 리모델한 타운하우스

**Woodbrige \$2,400**

엔드 유닛 타운 홈, 차고1



**Woodbrige \$2,650**

2층 타운 홈, 엔드 유닛, 2,362 SF, 차고1, 고급 나무 마루



대표 정희수  
703.477.3114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한 편안한 집을 소개합니다!  
내집 마련의 꿈!  
현대 부동산이 함께합니다!

상담환영 (집 파실 분·사실 분·경매)



Principle Broker 세리 리  
703.244.6526

# 버핏 “AI는 엄청난 진보지만 그 힘이 두렵다”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이 인공지능(AI)을 핵무기에 비유했다. 본래 목적과 다른 AI 기술의 활용이 가져올 수 있는 파괴력에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버핏은 4일(현지시간)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열린 버크셔해서웨이 연례 주주총회에서 AI 관련 질문을 받고 “핵무기를 개발할 때 ‘팸프’에서 지니(Genie)를 꺼냈다고 말하는데, 그 지니가 요즘 끔찍한 짓을 하고 있고 나는 그 지니의 힘이 두렵다”고 말했다. 이어 “지니를 다시 램프 속에 넣는 방법을 모르는데, AI도 지니와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덧붙였다.

“지니”는 이슬람 설화 ‘천일야화’ 중 ‘알라딘’에 등장하는 거인 요정으로, 주인의 소원을 이뤄주는 막강한 힘을 지녔지만 램프 속에 갇혀 있다. 버핏은 핵무기를 지니에 비유하면서, AI도 핵무기와 같은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고 본 것이다.

특히 버핏은 AI를 활용해 본인 뿐 아니라 유명인의 이미지와 목소리를 복제하는 ‘딥페이크(Deep learning+fake)’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그는 “AI를 활용해 만든 이미지와 영상이 매우 설득력이 있어서 진짜인지 아닌지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AI가 만든 자신의 이미지에 대해 “우리 가족도 가짜라고 알아내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나조차도 어느 이상한 나라에 있는 (가짜인) 나 자신에게 돈을 송금할 것”이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버핏은 AI를 활용한 사기(scams)에 대해 ‘역대급 성장산업’이 될 수 있다며 “물론 AI가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지만, 해를 끼칠 수 있는 잠재력도 엄청나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해 연례 주주총회에서도 “AI 기술의 잠재적 위험은 원자폭탄 개발과 매우 유사하다”며 “엄청난 기술적 진보였지만, 피해 역시 엄청났다”고 했다.

“AI, 핵무기처럼 램프서 꺼낸 요정 다시 램프 속에 넣을 방법 몰라

딥페이크, 진짜와 거의 구별 못해 AI사기, 역대급 성장산업 될 우려”

이를 두고 애플이 AI 기술 개발에 뒤처지고 중국에서 아이폰 판매가 부진한 것 때문이 아니냐는 견해가 나왔다.

이에 대해 버핏은 “세금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애플은 버크셔해서웨이가 오랫동안 투자해 온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나 코카콜라보다 훨씬 나은 기업”이라며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한 애플은 버크셔해서웨이의 최대 투자처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버핏의 오랜 사업 파트너이자 단적인 찰리 멧거 버크셔 부회장이 열린 첫 주총이었다. 멧거는 지난해 11월 99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버핏은 이날 자신이 2021년 후계자로 지명한 그레그 아벨 버크셔 비보험부 부회장과 나란히 앉았는데, 그레그를 실수로 “찰리”라고 부르기도 했다. 올해 93세인 버핏은 “아벨이 버크셔의 주식 포트폴리오 운영 등 향후 투자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벨이 버크셔의 차기 최고경영자(CEO)임은 물론, 투자 종목까지 선정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올해 버크셔해서웨이 주총에도 ‘오마하의 현인’으로 불리는 버핏의 투자 철학을 직접 들으려고 팀 쿡 애플 CEO를 비롯해 국내외 투자 관계자가 대거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이 지난 4일 네브래스카 오마하에서 열린 그의 투자회사 버크셔해서웨이 주주총회에 들어오고 있다. 올해 93세인 그는 여전히 건강했다. [연합뉴스]



## “20개국 찾는 캠핑대회, 정부 지원을”

장경우 한국캠핑캐라베닝연맹 총재

전 세계 20개국의 캠핑 마니아가 참가하는 세계캠핑대회(2024 FICC & Asia-Pacific Rally)가 오는 31일 강원도 고성에서 개막한다. 대회 개막 준비에 여념 없는 새한국캠핑캐라베닝연맹(KCCF)의 장경우(82) 총재를 만나 대회 의의와 준비 과정을 들었다.

-세계캠핑대회는 어떤 행사인가.  
“세계캠핑캐라베닝연맹(FICC)이 1933년부터 매년 전 세계 회원국을 돌며 치르는 국제 캠핑 행사다. FICC는 38개국 600만 명의 회원을 둔 국제단체

로, 캠핑에 관한 한 세계에서 제일 크다. 한국을 대표해 FICC에 가입한 단체가 1994년 설립한 KCCF다. 3년 전 KCCF가 2024년 대회를 유치했고, 대회는 5월 31일부터 6월 9일까지 강원도 고성 세계캠버리수련장에서 열린다.”

-대회 규모는 어떻게 되나.  
“해의 참가자는 약 20개국에서 500명 정도며, 국내 참가자는 약 2000명이다. 캠핑 시설의 한계 때문에 더 못 받는다. 국내 캠핑동호회를 통해 대규모 참가 문의가 들어오는데, 참가자를 적절히 조절하고 있다. 대회가 열리는 고성 세계캠버리수련장은 여러 캠핑 행사를

치렀던 곳으로, 캠핑 대회에 최적의 장소다. 텐트는 약 500동(4인 기준), 캐러밴은 고정 20대에 추가 30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캠핑 대회에서는 무엇을 하나.  
“말 그대로 전세계 캠핑가 모여 캠핑을 즐긴다. 참가자 대부분이 장비는 물론이고 음식도 가져와 저마다 캠핑을 즐긴다. 물론 여러 종류의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대회 기간에 공연, 파티, 지역 투어, 전통음식 경연대회, 게임 등 30개가 넘는 프로그램이 돌아간다. 하이라이트 행사는 개막식이다. 특히 개막식 직전 참가자 전원이 전통복장을 갖춘 채 국기를 들고 퍼레이드 하는 전통이 있다. 올해는 대회장 약 1km 앞에서 퍼



세계캠핑대회를 주최하는 한국캠핑캐라베닝연맹(KCCF)의 장경우 총재. 전민구 기자

문가가 모이는 행사고, 대회를 주최하는 KCCF도 캠핑 전문 단체다. 대회장도 문제없다. 설악산 초입이어서 나무도 많고 교통도 불편하지 않다. 지난해 12월 연습삼아 두 차례 캠핑 행사를 치렀는데 전혀 문제없었다. 기존 편의시설도 있고, 이동 화장실 같은 시설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2022년 전라북도에서 대회를 유치하고 싶다고 해서 새만금을 방문한 적이 있다. 지난해 세계 캠버리 대회를 치렀던 바로 그곳이다. 그늘도 없고 물이 올라오는 땅에서는 캠핑이 불가능하다고 분명하게 말해줬다. 그런 문제점이 고쳐지지 않은 채 대회가 열렸다니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그렇게 행사하지 않는다.”

###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좌골 신경통
- 어깨, 무릎 통증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고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 구강교육치과

#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동호 Don Kang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 유엔(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 뉴욕대(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 시애틀 인스티튜트 수료 (Seattle Institute)
- ◇ 한국, 미국에서의 22년 임상경력
- ◇ 100여명의 치료 의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필라 A-1 Family Dental Care에서 최고 기여 치과의사상 수상

##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건강한 치아

임플란트 Implant

응급환자 Emergency

잇몸치료 Periodontal Surgery

치아성형 Veneer Lumineers

치아교정 Orthodontics Invisalign

신경치료 Root Canal Treatment

invisalign 인비절라인 지정치과

▶ 더더 많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www.naturadent.net

natura dent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 세계 AI 전쟁... 한국은 '헌법'도 없다



## 표류하는 AI 기본법

### AI를 필요로 하는 법안 폐기 위기 기업 "AI에 데이터 학습도 포기"

#1 국내 한 거대언어모델(LLM) 개발사는 사내에 쌓이고 있는 타깃 광고(고객 맞춤형 광고) 데이터나 사용자 로그(활동 기록) 데이터를 AI 모델에 학습시키려다 포기했다. 어느 수준까지 데이터 활용이 가능한지 규정한 법이 없어서다. 글로벌 빅테크들이 인공지능(AI) 성능 개선을 위해 사활을 걸고 외부 데이터 확보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자기 곳간에 쌓이고 있는 데이터마저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회사 관계자는 "향후 법이 생긴 뒤 문제가 되는 데이터를 AI 모델에서 골라내려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차라리 지금은 손 놓고 있는 게 낫다"고 말했다.

#2 국내 한 생성 AI 스타트업은 올해 예상치 못한 비용 증가에 난감한 상황이다. 정부 지원 그래픽처리장치(GPU) 서버 용량이 절반으로 줄어서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이 2022년 325억원에서 올해 130억원으로 크게 줄어든 여파다. 이 회사 대표는 "예상치 못한 서버 비용만 월 1000만원씩 더 들어가게 됐다"며 "AI 인프라 관련 정부 정책 지원 사업 규모가 커지고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면 AI 관련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AI 기업들이 AI 규제 '시계 제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최소한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를 담은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글로벌 빅테크를 따라잡기 위한 혁신적 시도를 할 수 있는데 국회가 AI 산업 '헌법' 역할을 할 법안 처리에 손을 놓고 있어서다.

이른바 'AI 기본법'으로 불리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현재 여야 갈등 여파로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2021년 7월 이후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7건의 AI 관련 법안이 병합된 이 법안은 지난해 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그 뒤로 1년 넘게 감감 무소식이다. 여야 의원 모두 입법에 공감하는 비쟁점 법안이지만, 방송법 등을 둘러싼 여야 갈등에 뒷걸음질로 밀렸다. 규제 자체가 없는 '불확실성'이 산업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와 AI 업계는 이번 국회 통과를 바라고 있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지난 달 22대 총선에서 여당 소속 과방위원 7명 모두가 불출마 또는 낙선하면서 과방위 전체회의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 이어져서다. 회기 안에 처리하지 못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관련 사정에 정통한 법조계 한 관계자는 "여야는 물론 과기정통부 등 정부 부처 의견이 모두 취합된 수정안까지 만들어져 있다"며 "양당 간사만 합의하면 21대 회기 안에도 곧바로 통과될 수 있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AI 기본법

### AI 주도권 잡기 위해 나선 국가들

|  |           |                                                             |
|--|-----------|-------------------------------------------------------------|
|  | 미국        | 2020년 '국가 AI 니셔티브' 법 제정<br>2023년 AI 안전성과 신뢰도 높이기 위한 행정명령 발동 |
|  | 유럽연합 (EU) | 지난 3월 빅테크 LLM 규제하는 'AI 법' 통과                                |
|  | 일본        | 5월 중 'AI 전략회의'에서 법적 규제를 제안할 계획                              |
|  | 한국        | AI 기본법, 1년 넘게 국회 계류 중                                       |

안은 산업 진흥 및 육성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AI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사용해야 한다는 조항도 들어 있다. 하지만 이를 어겼을 때 처벌하는 조항은 없어 자율규제적 성격이 강하다. 김경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지능화법제도센터장은 "향후 중소기업 등이 AI를 도입하려고 할 때 과기정통부가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안이 장기 표류하면서 AI 기업들은 국회만 바라보고 있다. 한 AI 스타트업 대표는 "법이 나온 뒤 지금까지 하던 걸 새로 알아야 할 상황을 우려해 모두 소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잘못하다간 소송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고객사에 AI 도입을 제안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배경훈 초거대 AI추진협의회장(LG AI연구원장)은 "AI 기본법을 빠르게 수립한 뒤 보완하고 발전해 나가는 것이 향후 국가 경쟁력에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것"이

라고 말했다.

산업 진흥에 무게를 뒀던 법안 성격이 수정안에서 후퇴한 점도 문제다. 중앙일보가 입수한 수정안에는 원안에 있던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조항이 삭제됐다. '국민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되는 고위험 영역 AI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자유롭게 AI와 관련한 연구나 서비스 출시를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이였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AI가 불려올 위험을 통제할 수단이 없다며 반발하자 과기정통부도 조속한 입법을 위해 입장을 바꿨다.

수정안에는 또 원안에 없던 생성 AI 표시 의무가 추가됐다. 이는 생성 AI를 이용해 제작된 제품과 서비스에 워터마크 등으로 해당 사실을 표기해야 하는 의무다. 원안에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고위험 AI에 대한 신뢰성 확보 조치를 구체화하고 이를 AI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도록 했는데 이 부분도 삭제됐다. **강광우·권유진·김남영 기자**

△ -대회 개막이 한 달도 안 남았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정부 지원이 아쉽다. 이번 대회는 한국에서 네 번째 열리는 행사다. 2002년, 2008년, 2015년 대회 모두 정부의 예산 지원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대회는 일절 없다. 관공 당국에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정부 지원이 없어도 대회는 가능하다. 참가비와 기업 후원금으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이 빈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번 대회를 통해 한국의 캠퍼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고 싶었는데 한계를 느낀다. 캠퍼만 한 가족 여가 문화가 없다. 정부는 물론이고 기업의 관심을 바란다."

손민호 기자

## 한국 미적대는 사이... 세계는 이미 'AI 헌법 만들기' 경쟁

미국은 법 만들어 AI 산업 지원

국내에서 '인공지능(AI)기본법' 통과가 미뤄지는 사이 세계 각국은 규제 주도권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국가별 규제가 AI의 부분별한 활용을 막기도 하지만, 자국에 유리한 경쟁 환경을 만드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에서다.

지난 3월 유럽의회는 'EU AI 법(AI Act)'을 통과시켰다. 미·중이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AI 산업에서 빅테크를 견제하고 역내 기업을 보호하려는 의지



가 깔려 있다.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MS)·구글, 중국 알리바바 같은 빅테크 AI 기업이 유럽에는 없다. 이 법 113개 조항 중 7개는 혁신기업 지원 조치에 관한 내용이고 나머지는 규제 및 감시와 관련돼 있다.

EU AI법의 가장 큰 특징은 유럽 내 쓰이는 AI 시스템 위험도를 4단계(허용

불가능한 위험, 고위험, 제한적 위험, 최소 위험)로 분류하고, 이에 따른 의무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소 위험으로 분류되면 별도 규제가 없다. 반면에 빅테크들이 만든 거대언어 모델(LLM) 같은 '범용 AI 모델'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고 있다. EU AI법 53조는 범용 AI 모델 제공자에게

AI 모델 학습에 사용한 데이터에 대한 상세 내용을 공개하도록 했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국내에서도 위험성에 따라 AI 기술에 차등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2020년 일찌감치 '국가 AI 이니셔티브' 법을 제정하고 AI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2022년에만 AI 분야에 17억 달러를 투입하고 생성 AI 열풍 이후 재빨리 규제 안도 만들었다. 일본도 이달 열리는 'AI 전략회의'에서 법적 규제를 제안할 계획이다. **권유진·강광우·김남영 기자**

**미국 이민법 전문**  
성공률 최고  
만족도 최고  
실력 최고

# 김웅용 변호사

**미국 이민** 이제 이민법 전문 김웅용 변호사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시민권 / 영주권**

- 가족초청이민 - 종교이민 - 간호사(RN)
- 취업이민 - 투자이민 (EB-5) - NIW

**비 이민비자**

- 학생비자 (F-1) - 단기취업비자 (H-1B) - 종교비자 (R)
- 투자비자 (E-2) - 기타 조기 유학상담 및 신분 변경

고객에게 기쁨을 주는 - [www.joylawgroup.com](http://www.joylawgroup.com)

**Joy Law Group, PLLC.**

(Eng/Kor) (구원행) (한국어 상담)

**703-246-9100 |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 3863 Plaza Drive, Fairfax, VA 22030

뉴욕 오피스

**646-256-9156 (Kor) | 212-739-0843 (Eng)**

17 State St., Suite 4000 New York, NY 10004

**정승욱**  
연방세무사

# GTAX Consulting Group

**703-844-0355 / www.gtax1.com**  
4000 Legato Rd. Ste. 1100, Fairfax, VA 22033

**IRS 감사**  
세무랑감  
전문

“ 세금 보고, 절세 전략, 세금 문제 해결, 각종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성공을 돕습니다. 저희는 빠르고 저렴하며 고객이 만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개인 세금 보고**

- 50개 주 개인 세금 보고 / 세무 상담
- 해외 자산 및 수입 보고
- 자녀 학자금 신청 및 상담
- 세무 감사 대행 / 세금 탕감 신청

**사업체 세금 보고**

- 법인체, 사업체 설립
- 비영리 단체 설립
- 사업체 세금 보고 및 세무 업무
- 장부 정리 및 직원 PAYROLL

**재정 설계 및 노후 계획**

- 은퇴 설계 / 개인 연금 Annuity, IRA
- 생명 보험 / 장기 요양 보험
- 직원 복지 / SEP, 401K
-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김영선**  
연방세무사

우리말 바꾸기

‘물렀거라’ ‘물러가라’?

다음 중 올바른 표기로 이루어진 것은?  
 ㉠ 물렀거라-게 섰거라  
 ㉡ 물러가라-게 섰거라  
 ㉢ 물렀거라-게 섰거라  
 ㉣ 물러가라-게 섰거라  
 사극을 보다 보면 벼슬아치가 행차할 때 맨 앞에서 길을 내는 길잡이가 행차를 알리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간혹 볼 수 있다. 그가 “물렀거라(물러가라)” “게 섰거라(게 섰거라)”라고 외치면 백성들은 옆으로 비키면서 머리를 조아린다.  
 이때의 “물렀거라(물러가라)” “게 섰거라(게 섰거라)”를 어떻게 적어야 할까? 소리만으로는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정답은 ‘㉢ 물렀거라-게 섰거라’이다. 무엇이 줄어든 말인지 생각해 보면 된다. “물렀거라”는 “물러 있거라”, “게 섰거라”는 “게 서 있거라”의 준말이다.  
 받침을 ‘ㅅ’으로 적지 않고 ‘ㅆ’으로 적는 것은 ‘물러 있거라’에서 준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본딴말의 ‘있’에 쓰인 받침 표기가 줄어든 말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다.  
 요즘은 “추위야 물렀거라” “치매 물렀거라”, “물가 게 섰거라” “챗GPT, 게 섰거라” 등처럼 비유적이고 재미있는 표현으로 이 말이 쓰이기도 한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는 긴 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박세용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채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유홍주 칼럼

바이든 독트린이 전쟁을 불러온다



유홍주  
한미자유연맹 상임고문

라에는 처벌을 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는 시진핑과 저녁 식사를 함께 하던 중, 화학무기를 사용한 시리아 정권의 표적들을 박살 내라는 폭격 명령을 내렸고, 그 사실을 시진핑에게 천연스럽게 알려 주었다. 트럼프는 적을 때려눌 수 있는 주먹(Punch)을 준비해야 하며, 그 주먹을 적에게 노골적으로 보여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자병법과 마키아벨리를 적절하게 섞어 놓은 것이 트럼프 독트린 이었고, 어쨌든 트럼프 4년은 상대적으로 평가가 유지되었던 세월이었다.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 후 많은 전문가들은 전쟁이 빈발하는 시대가 도래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바이든을 후호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를 ‘착한 조아저씨’(Nice Uncle Joe)라고 보았고, 비판적인 사람들은 ‘허약한’ ‘늙고 몽롱한’ 등의 형용사로 바이든을 우려했다.  
 국제정치 세계에서는 착해서 사랑 받고, 허약해서 동정 받는 지도자보다 적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지도자가 평화를 유지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바이든의 미국이 트럼프의 미국보다 군사력, 경제력 등 종합 국력 측면에서 전혀 약하지 않다. 스테픈 월트(Stephen Walt) 교수의 말대로 지금 미국이 당면한 문제는 ‘결단력, 의지력의 결핍(resolve

gap)’이다. 바이든은 트럼프와 달리 동맹을 존중하며 적들에게 당당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했지만, 미국의 적들은 물론 동맹국들도 바이든을 믿지 않는다. 믿지 않으니 말도 듣지 않는다. 2022년 2월 하순 푸틴의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공격 태세를 갖추고 있을 때 바이든은 “미군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푸틴은 미국의 개입을 염려하지 않고 침략전쟁을 개시할 수 있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영공을 장악한 러시아 전투기들이 비행할 수 없도록 ‘비행금지 구역’(No Fly Zone)을 설정해 달라는 부탁을 들은 바이든의 백악관 대변인 젠사키는 “우크라이나의 부탁은 애절하지만 미국은 3차대전에는 관심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바이든은 아랍의 눈치도 보고 미국 내 팔레스타인 지지 세력의 눈치를 보느라 이스라엘을 단호하게 지지할 수 없었다. 그 결과 중동의 적대국들은 마음 놓고 이스라엘을 건드리기 시작했다. 작년 10월 하마스, 지난 4월 13일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 공격은 바이든이 초래한 국제정치의 격변이다.  
 이스라엘은 이란 본토를 때릴 수 있게 되었다. 바이든 독트린은 ‘하지 마세요 독트린’(Don't doctrine)이다. 푸틴에게, 하마스에, 이란에 공격하지 말라고 했고 이스라엘에도 너무 강하게 반격하지 말라고 했다. 아무도 바이든의 말을 듣지 않았다. 김정은과 시진핑은 바이든의 ‘하지 마세요 독트린’을 어떻게 볼까? 심각한 경고로 받아들일까? 전쟁은 승리하는 것보다 사전에 억제(Deter)하는 편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J네트웍

괄목상대 중국 전기차



이도성  
베이징 특파원

쟁’을 벌였다. ‘BBA(벤츠·BMW·아우디)’ 3대 업체는 물론 최고급 브랜드인 롤스로이스, 람보르기니까지 베이징을 찾았다. 이들에게 중국은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다. 지난해 전기차 841만 대가 팔린 중국은 전세계 시장의 약 60%를 차지한다. 공급과 수요를 양손에 쥔 중국 전기차는 정부 지원까지 등에 업었다. 리창 국무원 총리는 모터쇼를 찾아 “중국 시장 진입 장벽을 계속해서 완화하고 국내외 기업에 차별 없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현대차그룹도 전시관을 마련했다.

중국 시장을 겨냥한 고성능 전기차와 프리미엄 모델을 내놨다. 상황은 녹록지 않다. 현대차그룹은 한때 중국 내 점유율이 10%가 넘었지만, 현재 1%대로 추락했다. 매출액도 7년 만에 70% 넘게 줄었다. 자동차 업체를 취재하는 한 중국 매체 기자는 “디자인과 내구성 등 어느 방면에서도 우위를 점하지 못한다”면서 “품질이 뛰어나다는 이미지는 있지만,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자극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모터쇼에 직원 1200명을 보냈다고 한다. 연구개발 인력뿐 아니라 마케팅과 영업 담당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의 ‘전기차 굴기’를 목도하고 절치부심한다면 ‘아픈 손가락’인 중국 시장에서 다시 한번 고개를 들 수 있을까.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중국은 여전히 매력적인 시장”이라며 “차별화된 제품으로 시장을 공략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민지 변호사

**가정법 (Family Law)**

- 합의이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소송
- 가정폭력/접근금지 명령
- 입양, 가디언십
- 유언장, 상속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이민자 아내를 대변하여 승소한 케이스에 관한 기사가 2021년 12월 13일자 Virginia Lawyer's Weekly에 게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rosperlawpllc.com/)

**민사 소송 (Civil Litigation)**

- 리스 계약 분쟁, 집주인-세입자간의 분쟁
- 헌법/인권 침해 변호

**항소 (Appeal)**

-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양육권/방문권, 이혼 관련 항소 케이스 다수 진행중

**이민 (Immigration Law)**

- 영주권/시민권
- 결혼 이민
- 가족 초청 이민
- 각종 비자
- 추방 방어
- 망명 신청
- 범죄 피해자를 위한 비자

Prosper Law PLLC 대표  
 VA·MD·DC 면허  
 이력  
 - 대학외교 불어과 졸업  
 - 한국외대 영어/불어 전공  
 - 몬트리올 Concordia University에서 심리학 전공  
 - 캐나다 국방부에서 부 참모총장 및 국방장관 분석관으로 다년간 근무  
 - J. Reuben Clark Law School J.D.  
 - 미국 연방 지방법원, 유타 대법원 근무  
 - D.C., 버지니아 주 로펌 다수 근무

VA 전화 TEXT: 703.593.9246  
 4115 Annandale Rd., Ste 301, Annandale, VA 22003  
 MD 전화 TEXT: 443.901.8693  
 3545 Ellicott Mills Dr., Ste 203, Ellicott City, MD 21043  
 mkim@prosperlawpllc.com

##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 척추사랑

“여러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척추를 사랑하십니까?”

Dr. 이형훈  
 (Mark H. Lee DC, CCEP, FIAMA)  
 -고려대학교 Biotechnology 졸업  
 -고려대학교 생명공학 대학원  
 -Internship for ProteinOne's Lab at UMCP and MedLink Hospital in Washington D.C.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Certified in Gonstead System  
 -Certified in Gonstead Extremity Adjusting  
 -Certified Chiropractic Extremity Practitioner (C.C.E.P.)  
 -Fellow of International Academy of Medical Acupuncture (F.I.A.M.A.)  
 -Worked for Gwinnett Medical Back & Neck Pain Clinic in GA  
 -Licensed in Maryland with Physical Therapy Privileges  
 -Licensed in Virginia Board of Medicine

**교통사고 통증 치료전문 / 자세교정**  
**진/료/과/목**

- ◆ 교통사고후유증 (Auto Injury)
- ◆ 두통/목/턱관절 (TMJ) 통증
- ◆ 허리/척추디스크/좌골신경통
- ◆ 손목/팔꿈치/어깨 통증
- ◆ 운동상해/직장상해
- ◆ 발/무릎 통증/자주빠는 발목
- ◆ 만성피로/근육통/관절염
- ◆ 재활/물리/운동 치료
- ◆ 자세교정 및 건강유지
- ◆ 청소년 성장클리닉
- ◆ 임신부/산후 및 여성클리닉

**교통사고** 필요하신 모든 절차를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도와드리며, 치료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각종 보험 및 자동차보험, 여행자, 유학생보험 / 각종 건강상담 환영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LoveSpine**  
 Chiropractic Clinic 척추사랑

라벨 클리닉  
 T 301.231.7588 / F 301.231.7587  
 11820 Parklawn Dr, Suite 202  
 Rockville, MD 20852  
 Email : lovespineclinic@yahoo.com  
 라벨에서 3코, 심비스로 최대 10분, 10분에서 10분 거리

센터빌 / 챔플리 클리닉  
 T 703.429.4622 / F 703.429.4623  
 14161 Robert Paris Ct, Suite B  
 Chantilly, VA 20151  
 Email : lovespineclinic@gmail.com  
 센터빌 롯데/안양하이-마트와 챔플리 롯데에서 각각 5분거리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한국과 미국에서 풍부한 임상경험과 실력을 갖춘

## 통증 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해 드립니다!

### 메디케어

### 교통사고

■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캐쉬플랜



### 진료내용

####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봐스치료

#### 통증치료

근육 통증침치료  
관절 / 근막이완치료  
전기치료

### 진료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수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 김민정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건강관리학전공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 원장 김우기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 예약환자 에 한해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 ASK미국 온·오프 정보센터

ASK미국 정보센터는 각 분야 100여명의 전문가와 함께 온·오프라인 상담을 동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민, 법률, 세금, 복지, 교육, 부동산, 보험 등 전문지식부터 자동차, 집수리, 컴퓨터, 여행 등의 미국생활까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온라인 상담 <http://ask.koreadaily.com>



**박유진**  
변호사

## Q LLC를 리빙 트러스트로 연결할 때 주의점

▶문= LLC를 리빙 트러스트로 연결할 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

▶답= 고객 상담 시에 unit이 많은 다 가구 주택이나 상가를 가지고 있는 고객에게는 부동산을 LLC (Limited Liability Company) 형태로 전환하도록 추천한다.

LLC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회사 멤버들의 책임이 제한된 회사이므로 누군가 그 부동산에서 다쳤거나 문제가 생겼을 시에 LLC의 책임은 일정 부분까지로 제한된다. 예컨대, 그 부동산에서 다친 원고 측이 피고 (부동산 주인)를 상대로 소송 시에 피고의 개인 재산까

지 소송할 수 없으며 LLC의 책임 범위 안에서만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럼 LLC 이름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은 리빙 트러스트로 어떻게 연결하면 될까. 일반적으로 개인 이름으로 소유한 부동산은 리빙 트러스트 명의로 전환한다. 반면 LLC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LLC의 지분을 트러스트와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두고 영어로는 Assignment of interests이라 부른다. LLC의 operating agreement에 따라 양도 조건이 달라진다.

쉽게 말해서 리빙 트러스트에 명시된 상속자에게 사망한 멤버의 지분이

잘 상속되도록 도와주는 작업이 멤버십 양도다.

리빙 트러스트로 멤버십이 제대로 양도되지 않고 멤버가 사망한다면 결국 operating agreement에 언급되어 있는 대로 멤버의 사망 시에 대한 조항을 따라서 "상속"이 이뤄진다. 사망에 대한 특별한 조항이 없는 operating agreement이고 게다가 멤버십 양도가 리빙 트러스트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결국 상속 법원을 거쳐야 해당 사망한 멤버의 멤버십을 가족들이 상속받을 수 있다.

공동 소유주 멤버가 많은 LLC일수록 한 멤버의 사망 시 그 해당 멤버의

지분이 어떻게 처리돼야 하는가 자제히 나와있어야 멤버의 사망으로 인한 LLC 공동 멤버들 간의 문제가 없다. 타 멤버는 구매를 원하고 사망 멤버의 가족들은 판매치 않고 상속받길 원한다면 결국 법원 공방으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멤버십 양도가 리빙 트러스트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 또한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operating agreement에는 양도를 위해 모든 멤버의 서문 동의가 요구되었는데, 다른 멤버들의 서명 없이 트러스트로 양도된 멤버십은 "양도"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지나 김**  
교육/대학입시 전문

## Q 갈수록 힘 받는 SAT와 ACT

▶문= 하버드대와 칼텍도 지원자를 대상으로 표준시험 점수를 다시 의무화하는 조치를 취했는데-

▶답= 공교롭게도 두 대학은 같은 날 (지난 4월 11일) SAT, ACT 등 표준시험 점수 제출을 2025년 가을학기 입시부터 다시 의무화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런데 하버드대의 표준시험 정책은 조금 복잡하다.

대부분 한인 학생들에게는 해당되지 않겠지만 대학 측은 만약 개인적인 사정으로 SAT 또는 ACT 시험을 보기가 불가능한 경우 SAT\*ACT 대신 AP, IB Actual or Predicted Scores, GCSE/

A-Level Actual or Predicted Scores, National Leaving Exams Results of Predictions 등의 시험으로 대체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하버드대와 칼텍 역시 앞서 표준시험 의무화 정책을 재도입한 다른 명문대들과 같은 입장을 보였다. 수년에 걸친 연구조사 결과 SAT, ACT가 학생이 대학에서 학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지 여부를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하는 도구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또한 테스트 옵셔널 정책을 계속 유지할 경우 시험 점수를 제출하면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지원자 중 상당수가 최고 수준의 스코어를 얻지 못했다는 이

유로 점수를 제출하지 않아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하버드대와 칼텍이 합류하면서 지난 몇 년 간 표준시험 점수 제출을 다시 의무화한 명문 사립대는 모두 7개로 늘었다. 하버드대, 칼텍, MIT, 예일대, 브라운대, 다트머스대, 조지타운대 등이 표준시험 의무화 동맹을 맺었다.

이중 예일대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SAT, ACT, AP, IB 시험 중 하나를 골라서 낼 수 있는 옵션을 준다.

대학은 이를 '테스트 플렉서블'(test-flexible)이라고 부른다. 원칙적으로 AP나 IB를 택할 경우 한 과목 시험만

보고 점수를 제출하면 조건을 충족시키는 셈이다.

주요 명문대들이 잇따라 표준시험 점수 제출 의무화 정책을 재도입하는 것과 관련, 한인 학생 및 학부모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인 학생들이 타 인종보다 강한 분야가 바로 학교 성적과 시험 점수이기 때문이다.

잘 알다시피 학교마다 제공하는 클래스가 다르고 교사들이 가르치는 수준도 제각각이다. 또한 종종 지적받는 것처럼 일부 학교를 중심으로 성적 인플레이션이 만연해 있어 '올 A'가 다 똑같은 올 A라고 보기도 어렵다.



**사무엘리**  
연방 세무사  
주택 융자 (MLO)

## Q FBAR 보고와 FATCA보고는 어떤 조건에서 보고해야 하나

▶문= FBAR 보고와 FATCA보고는 어떤 조건에서 보고해야 하나요?

▶답= 미국 세금법에 따라 해외 금융 계좌를 보유한 미국 시민이나 거주자는 특정 조건 하에 FBAR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Report, 외국 은행 및 금융 계좌 보고)와 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해외 계좌 세금 준수 법)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 두 보고 요구 사항은 서로 다르며, 각각의 기준과 목적이 있

습니다.

FBAR 보고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FBAR 보고의 대상은 미국 시민, 거주자, 법인, 파트너십, 그리고 조합 등이 해외에 보유한 금융 계좌가 있을 경우입니다.

보고 기준은 해외에 있는 모든 금융 계좌의 합계 금액이 어느 시점에서든 \$10,000 USD를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그 해에 FBAR를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 방법은 FinCEN Form 114를 온

라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FATCA 보고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FATCA의 보고 대상은 미국 시민, 거주자 등이 해외 금융 기관에 보유한 계좌를 소유할때입니다.

보고 기준은 FATCA는 FBAR보다 높은 보고 기준을 가지며, 개인의 상태 (미혼, 결혼, 해외거주 등)에 따라 보고 기준 금액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해외 거주자의 경우 연말 계좌 잔액이 \$50,000 USD를 초과하거

나, 연중 어느 시점에 \$50,000 USD를 초과할 경우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 방법은 IRS Form 8938을 사용하여 세금 보고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FBAR와 FATCA 보고는 서로 독립적이며, 특정 조건에 따라 둘 다 보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좌 잔액이 \$10,000 USD를 초과하는 경우 FBAR 보고는 필요하지만, FATCA 보고 요구사항은 계좌의 금액과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맞춤 융자의 달인

#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융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융자
상업융자
재정상담

## 410-370-4229 · 301-275-1494

EMET, Inc  
NMLS #201332



# 김철민

## 합동법률사무소

### Potomac Law Group, PLLC

“변호사가 성실하게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을 갖춘 전문가들이 완벽한 Team-Work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최선을 다해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약력

- 조지타운 법과대학원
- 미국 연방의회 연수 (House of Representative)
- United Nations, Research Fellow (UNU Headquarters, Tokyo, Japan)
- Kotra 해외진출기업 자문변호사
- ICSC (Int'l Council of Shopping Centers) Member
- Redcliff Partners 고문변호사
- 이민, 투자, 상법 전문변호사

Immigration

- 영주권/시민권
- 취업/가족초청이민
- 종교비자/이민
- E2 비자/투자이민
- 비자변경 및 연장
- 강제추방문제

Business / Real Estate

- 회사설립/합병
- 국제합작투자
- 대정부계약/입찰구매
- 사업체 매매
- 부동산 매매/임대차
- 부동산 투자 개발

대표 703-973-8700 |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303, Annandale, VA 22003

예촌 앞 빌딩 3층



먼길, 험한길, 언제나 한결같이 묵묵히 손잡아 주는 **사랑손**이 있습니다.

# 모두가 행복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가족, 간병사 그리고 직원들, 모두가 만족한 회사  
**러브핸드 홈헬스 & 데이케어**에 가족의 돌봄을 맡겨주세요.

은혜안에 한행복, 한소망을 나누는 곳!! 섬김이 무엇인지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메디케이드 (Medicaid) 신청이 필요하세요?  
롱텀케어(Long-Term Care) 신청이 힘드세요?**

러브핸드 홈헬스의 전문 상담사가  
신청부터 성실히 도와드립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간병인이 필요하세요?**

은혜와 사랑으로 섬기는 러브핸드 홈헬스의  
간병사분들이 여러분을 섬깁니다.

**편법이 없는 간병회사를 찾고 있으세요?**

원칙의 신념 러브핸드 홈헬스에 전화하세요.  
저희는 원칙과 법을 준수합니다.

**사랑의 섬김이 넘치는  
러브핸드 시니어데이케어**

- 버지니아 주정부 및 메디케이드로부터 인가 된 시니어 데이케어
-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프로그램 구성
- 그리운 맛과 건강을 생각한 집밥으로 아침 및 점심 식사, 그리고 영양 간식 제공
- 의사 방문시 교통편 제공
- 메디케이드 혜택
- 친절한 간호사와 함께하는 수시 건강 체크 및 상담
- 취향에 맞춘 즐거움과 편리함을 주는 각종 시설 완비
- 일반 회원은 소정의 회원비로 센터이용 가능
- 서류 번역 및 작성 등 제반 소셜 서비스 제공

**사랑의 돌봄이있는  
러브핸드 홈헬스**

- 버지니아 주정부 및 메디케이드로부터 인가 된 전문 간병 서비스
- 노인성 치매, 장애우 전문 간병
- 메디케이드 혜택
- 개인 부담 환자 최저 부담 상담
- Skilled Nurse 서비스
- 방문 물리치료 서비스

**직원 모집**

\* 회사 성장으로 인해 일할 더 많은 인재를 모집합니다.  
\* 문의: admin1@lovehandhomehealth.com

간병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닙니다. 간병은 사랑입니다.

**문의 및 상담 703-657-0944**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데이케어 / 찬들리  
Love Hand Home Health & Senior Daycare/Chantilly  
14101 Parke Long Ct., Suite H  
Chantilly, VA 20151  
703) 657-0944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데이케어 / 뉴포트뉴스  
Love Hand Home Health & Senior Daycare/ Newport News  
716 Denbigh Blvd., Suite E-1  
Newport News, VA 23608  
757) 527-4140

# Sung Hwang & Kim

## 합동 법률 사무소 MD, DC, VA



**VIRGINIA OFFICE**

7353 McWhorter Place, Suite 202  
Annandale, VA 22003



**MARYLAND OFFICE**

9256 Bendix Rd, Suite 109  
Columbia, MD 21045



한인들의 모든 법률문제를 해결해 드리는 것이 저희 로펌의 목표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후회없는 선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0/month**  
고문 변호사  
membership program

- **완벽한 영어** 와 **풍부한 재판 경험** 으로 법정에서 자신있게 여러분을 변호합니다.
- **보상금을 받아내지 못할 경우 변호사 비용 무료**
- **첫상담 무료** (특정분야 제외)

**주요 업무 분야**

- 교통사고 보험청구/의료비/수리비/휴직 보상
- 민사소송
- 비즈니스 설립/매매/분쟁
- 사업체 고문변호사 제도
- 보험
- 손해배상
- 의료사고
- 부동산 매매/Lease/분쟁
- Liquor License

한국 비즈니스  
오너들을  
대표해서  
**FOX NEWS,**  
**CNN** 인터뷰



**찰리 성 변호사**  
CHARLEY C. SUNG, ESQ.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 JD

**약력**  
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 LLP  
DLA Piper, LLP (세계 2위 로펌)  
Gilbert & Randolph, LLP  
전, 하워드 한인회 회장  
Maryland Court of Appeals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Maryland  
District of Columbia Court of Appeals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피터 황 변호사**  
PETER K. HWANG, ESQ.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College of Law, JD

**약력**  
Dickstein Shapiro, LLP  
Baker Botts, LLP  
New York Court of Appeals  
Maryland Court of Appeals



**폴 김 변호사**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University of Maryland School of Law, JD  
- Johns Hopkins University School of Public Health, MPH

**약력**  
Cole Schotz, P.C.  
Ober Kaler, PC  
Blank Rome LLP  
Gardner Carton & Douglas LLC  
MD, DC

**Sung Hwang & Kim** | LLP  
www.shkfirm.com



**Columbia, MD**

T. 410.772.2324

Toll Free: 888.772.3001  
9256 Bendix Rd., Suite 109  
Columbia, MD 21045

**Annandale, VA**

T. 703.436.1444

Toll Free: 888.772.3001  
7353 Mcwhorter Pl., Unit 202  
Annandale, VA 22003

**Wheaton, MD**

T. 410.772.2324

Toll Free: 888.772.3001  
11262 Georgia Ave., 2nd Fl.  
Wheaton, MD 20902

**곽태우 변호사**  
K Law Firm, PLLC  
이민 / 부동산 매매 (1031 Exchange)  
비즈니스 매매 / 리스  
리빙트러스트 / 이혼 / 유언장  
**T. 571.405.6540**

# 경제 & 연예/문화 Sports

**빙·난방** 제대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JoongAng Ilbo

Monday, May 6, 2024 C

연방파산법이 지칭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소**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 미 제재 비웃듯 화웨이 순이익 564% 늘었다

미국의 제재에도 중국의 첨단기술 기업 수익이 치솟고 있습니다. 1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화웨이는 전일 중국 금융당국에 지난 1분기 순이익이 196억5000만 위안(약 3조3795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년 동기보다 564% 급증한 규모입니다. 2019년 미국 제재가 본격화한 이후 가장 큰 폭의 성장입니다. 매출은 1785억 위안(약 34조원)으로, 37% 뛰었습니다. 중국 반도체 자립도를 보여주는 반도체 장비업체도 쑥쑥 성장 중입니다. 최대 장비업체인 나우라(북방화창)는 1분기 순이익이 11억2700만 위안(약 215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0.4% 급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 수상한 인건비·집값... 금리인하 9→12월 또 밀리나

**물가 반등 우려 커지는 미국**

1분기 고용비용 1년반 만에 최고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에 영향이 큰 인건비와 집값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물가 재반등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예상 시점도 기존 9월에서 연말로 또다시 밀리는 분위기다.

지난달 30일 미 노동통계국이 발표한 올해 1분기 미국 고용비용지수(ESI)는 전 분기와 비교해 1.2% 상승(전년 같은 분기 대비 4.2%)했다. 이는 시장 예상치(1%)를 소폭 넘어 섰을 뿐 아니라, 2022년 3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해 4분기 ECI는 전분기 대비 0.9% 상승했는데, 이번에는 상승 폭이 더 커졌다.

ECI는 기업이나 정부 및 공공기관 등에서 실제 사람을 고용할 때 지출하는 비용을 합산한 지표다. 임금뿐 아니라 수당과 보험 같은 복리 후생비도 함께 집계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인건비에 해당한다.

전 분기 대비 1분기 ECI 상승률은 특히 민간(1.1%)보다 정부(1.3%) 부문에



서 더 높게 나타났다. 항목으로 나누면 임금·급여보다는 수당(benefits)이 ECI 상승을 이끌었다. 실제 전 분기 대비 임금·급여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모두 1.1% 늘어나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수당은 0.7→1.1%로 상승 폭이 커졌다.

인건비는 물가 중에서도 서비스 물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로버트 캐들 티그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블룸버그 TV와 인터뷰에서 "ECI 상승률 1.2%라는 숫자는 물가 상승률과 임금 상승 데이터가 Fed의 목표와 다른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진단했다.

인건비뿐만이 아니라 미국 주택 가격도 예상 밖 오름세를 보였다. 지난 달 30일 미 연방주택금융청(FHFA)이

발표한 2월 주택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1.2% 오르면서 시장 예상치(0.2%)를 큰 폭으로 상회했다. 이 같은 상승률은 2022년 4월 이후 1년 10개월 만에 최대. 전년 동기 대비로는 7% 올랐는데 2022년 11월 이후 가장 높다. 안주 바자 FHFA 부국장은 "미국 주택 가격은 1월에 약간 하락한 후 2월에 상승하면서 반등했다"며 "조사 대상 9개 지역에서 모두 지난 12개월 동안 가격 상승이 나타났다. 뉴잉글랜드와 중부 대서양 연안 지역은 두 자릿수 상승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미국 CPI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34% 달할 정도로 높기 때문에 주택 가격 상승은 물가 안정에 부정적인 뉴스다.

물가가 다시 튀어오를 수 있다는 우

려가 커지고 있다. 그간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12월 물가 지표가 갑자기 크게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계절적 요인"이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미국 자산운용사 뱅가드는 "최근 물가 상승률 반등이 일시적 현상이라고 보기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짚었다.

물가 재반등을 뒷받침하는 지표가 발표된 후 금리 인하 전망도 크게 후퇴했다. 이날 지표 발표 직후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는 9월에도 Fed가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에서 동결할 가능성(53.9%)이 가장 높다고 예상했다. 지표 발표 전만 해도 9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44.2%)이 동결(42.5%)보다 소폭 높았지만, 뒤집힌 것이다. 페드워치는 12월이 돼야 Fed가 첫 번째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리 인하 전망이 후퇴하면서 금융 시장도 요동을 쳤다. 지난 달 30일(현지 시간) 미국의 3대 지수인 다우존스 30 산업평균(-1.49%)·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1.57%)·나스닥(-2.04%) 지수 모두 전 거래일 대비 큰 폭 하락했다.

김남준 기자

**김용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1,000**  
(치과 임플란트)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 하십니까?  
CSC Home Care (Hanmi Homehealth)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정량있는 정직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한미간호학교**  
Hanmi Nursing School  
한미 간호 학교는 미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이중언어로 CNA  
교육과정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t. (703)303-4556 / t. (703)303-0988  
www.Hanminursingschool.com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즈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예출 앞 빌딩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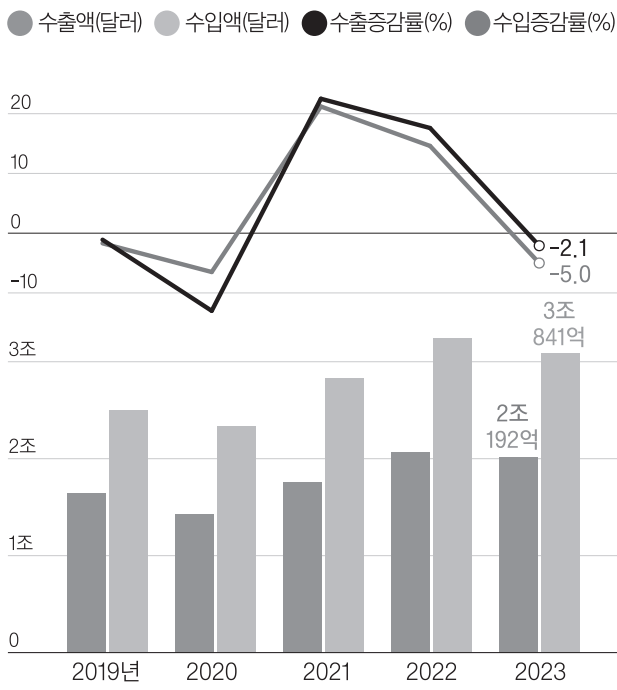
**JJL Contractor Inc.**  
**지붕 고민 / 돈 걱정**  
**이제 그만하세요**  
**Tel. 703.835.0945**

**대형 교통사고 전문**  
전직검사 한인2세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같은사고! 다른결과!  
**로우와이스틴 & 손로폼 & S**  
Attorneys and Counselors Law  
사고가났습니까? 즉시 연락주세요. 바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벼운 접촉사고 부터 사망사고 까지-  
**사고처리**  
v 교통사고 직후 현장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v 교통사고, 경찰에 신고 해야 하나요?  
v 접촉사고 후 가해자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나요?  
v 목격자는 필요하나요?  
**형사처벌**  
v 교통사고 후 구속되는 경우  
v 음주운전 (DUI, DWI)  
v 각종 교통 티켓  
v 면허정지 (Licenses Suspension)  
v 면허취소 (Licenses Revocation)  
v 감옥형벌 (Jail Penalty)  
패트릭 플로레스 Patrick Flores 교통사고 법정변호사 pflores@rowepllc.com  
노승훈 Robinson S. Rown 교통사고 법정변호사 rrowe@rowepllc.com  
Super Lawyers The Washington Post Magazine 선정 Top 100 법정변호사  
로버트 캐들 Robert Cadle 교통사고 법정변호사 rcadle@rowepllc.com  
[보상금을 받지 못할 경우 변호사비용 일체 무료]  
MD 301-770-4710 VA 703-887-1037 888-340-7583 www.rowepllc.com  
909 Rose Avenue, Suite 640 N. Bethesda, MD 20852 7010 Little River Turnpike Suite #300 Annandale, VA 22003 2200 Pennsylvania Avenue, N.W., 4th Floor Washington, D.C., 20037 FAX 301-770-4711 Mrs. Lee 사무장 703-887-1037 www.rowepllc.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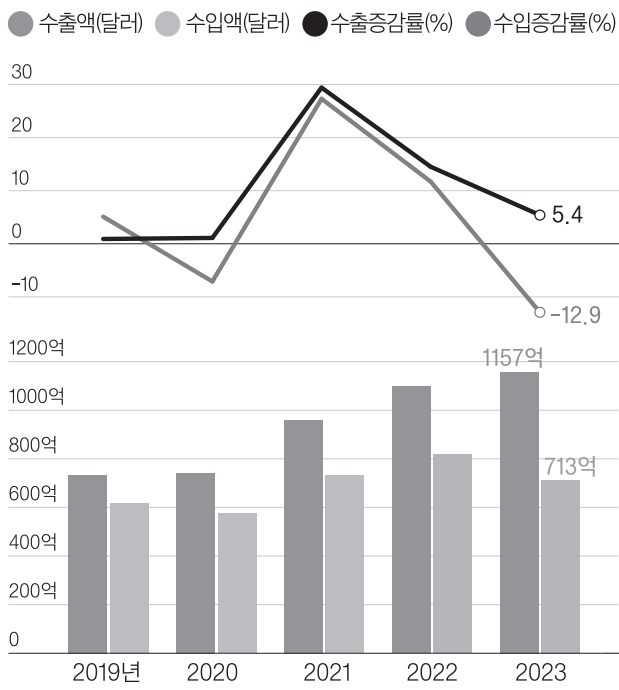
# 트럼프 불잡으며 FTA·CPTPP 등 무역 협력 굳게 해야

(포괄적·점진적한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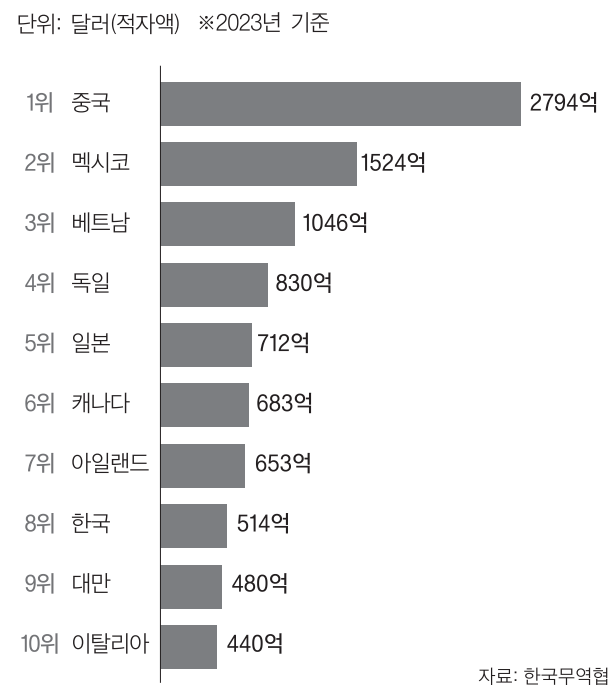
## 적자 폭 커지는 미국 무역수지



## 늘어나는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 미국의 10대 무역 적자국



자료: 한국무역협회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중국 의 속입수 때문에 미국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3배로 늘리겠다고 선언했다. 대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60% 이상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 것에 맞불을 놓은 것이다. 바이든은 최근 지지율에서 앞서가던 트럼프를 턱밑까지 추격하는데 성공했지만, 외교와 경제 문제에 대한 지지도는 트럼프에 한참 밀리고 있다. 바이든이 11월 대선까지 관세를 뒤집으려면 중국 관계 등 대외문제에서 트럼프만큼 강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상황이다.

그만큼 트럼프의 과격한 외교 및 경제 정책이 미국 유권자에게 먹히고 있다. 2016년 극단적인 언행과 폐쇄 고립적 정책을 쏟아내면서 백인 보수층의 열광적인 지지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됐던 트럼프가 재집권에 성공하는 ‘트럼프 2.0’은 세계 안보와 경제 질서에 더 큰 충격적 변화를 예고한다.

### 동맹을 부담으로 여기는 트럼프

트럼프의 재집권은 우방국의 안보 체제를 뒤흔들 수 있다. 트럼프는 동맹을 ‘자산’이 아니라 ‘부담’으로 여기고, 인권 같은 가치보다 경제적 실리를 중요시한다. 그는 특히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에 무임승차해 온 유럽에 냉담하다. 유럽은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서 발을 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 한반도의 상황은

유럽과 다르다. 하지만 트럼프는 주한 미군을 철수시키려 했다가 측근의 만류로 이를 보류하고 이 문제를 2기 행정부에서 다룰 우선 과제로 남겨 놓았다는 증거가 있다.

동맹국은 트럼프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거래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불리한 조건으로 조기 종전시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용인하지 않을까 걱정한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트럼프가 대만을 방어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한다. 다만 2주 전 트럼프는 “우크라이나는 미국보다 유럽에 더 중요하지만 미국에도 중요하다”며 미 하원의 610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법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이런 정도의 언행만으로 동맹국의 우려를 씻기는 어렵다. 경제와 안보를 분리하기 어려운 시대, 트럼프가 몰고 올 수 있는 안보 구도의 변화는 세계 경제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트럼프는 자신을 ‘관세 사나이(Tariff man)’라고 부를 정도로 관세를 대외 경제 문제를 푸는 주요 수단으로 생각하고, 미국의 막대한 무역 적자 해소를 최우선 목표로 삼는 경제 철학을 갖고 있다. 관세 인하와 시장 개방을 약속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은 미국의 이익에 반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시각에서 트럼프는 2017년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했고, 곧이어 한국과 캐나다·멕시코 등과의 FTA 재협상을 밀어붙였다.

### 트럼프 2기, 중국과 디커플링 추구

트럼프가 약속한 2기 대외 경제 정책은 1기에 비해 한층 더 과격하다. 특히 트럼프의 대중 정책은 양국 관계에 파괴적이기까지 하다. 트럼프는 첫 임기 때 중국의 불공정행위를 이유로 5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 수입품에 10% 내지 25% 관세를 부과하는 등 과감한 대 중국 압박 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트럼프의 4년 임기 동안 중국은 변하지 않았고, 미국의 무역 적자는 오히려 크게 증가했다.

사실상 1기 대중 정책의 실패를 맞본 트럼프는 2기에서 사실상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는 ‘디커플링(decoupling)’을 추구한다. 블룸버그는 트럼프가 공언한 대로 중국 수입품에 6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중 교역량은 거의 제로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연간 5750억 달러에 달하는 양국 간 교역이 사실상 사라진다는 것이다. 게다가 트럼프는 미국 기업의 중국 내 투자와 중국 기업의 미국 자산 취득까지 금지하겠다고 했다. 이런 극단적 공약이 실제로 실행된다면, 전 세계 공급망과 무역 구조가 뿌리부터 재편되는 엄청난 충격을 몰고 올 것이다.

트럼프의 또 다른 중요 공약은 모든 수입품에 10% 기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매년 1조 달러를 넘는 미국의 막대한 무역 적자를 해소하려는 극약 처방이다. 트럼프는 2018년 외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이 미국 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유럽 등 우방국

에서 수입하는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수입 관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트럼프의 이번 10% 관세는 품목과 수출국을 가리지 않고 모든 수입품에 부과되는 보편 관세다.

이런 식의 무차별적 관세는 1930년 대공황 당시 허버트 후버 미국 대통령이 스무트-홀리(Smoot-Hawley) 관세법에 따라 모든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을 20% 가까이 인상했던 것을 연상케 한다. 이는 당시 무역 상대국의 보복 관세를 불러와 세계 무역거래를 급격히 감소시켰고 대공황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됐다. 이번 트럼프의 10% 보편 관세도 무역 상대국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켜 1930년대와 같은 글로벌 무역 전쟁을 촉발할 공산이 크다. 더욱이 현재 미국은 한국을 비롯한 20여 개국과 FTA를 체결해 그 수입품에 대해 무관세 혹은 낮은 비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만약 FTA 국가에도 10% 보편 관세를 부과한다면 미국에 대한 신뢰가 깨지고 미국과 FTA 상대국 간에 심각한 통상 분쟁이 발생할 것이다.

### 진영 내 협력 체제 약화 전망

보다 근본적으로, 트럼프는 바이든 행정부 때 구축된 세계 경제 질서를 흔들 가능성이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동맹과의 연대를 강조한다. 이에 따라 ‘미국·유럽·일본 중심의 경제 블록’으로 ‘중국·러시아 중심의 경제 블록’에 맞서는 전략을 펼쳐왔다. 주요 7개국(G7)

회의와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 협의체),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미국-EU 간 무역기술회의(TTC),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다층적 협력 관계의 배경에는 모두 중국 견제라는 목적이 깔려 있다. 그러나 ‘미국 우선(America First)’을 외치는 트럼프는 동맹과의 협력체에 맡기기 보다 미국 단독의 대 중국 대응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그 결과 다자간 경제 체제의 퇴조 속에서 그나마 작동해 온 진영 내 협력 체제가 약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트럼프의 재집권은 세계 안보 및 무역 질서에 혼란을 초래하고 한국 경제에도 전반적인 불안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트럼프의 백악관 입성이 실현될 가능성은 반반이다. 트럼프의 재집권을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트럼프 혹은 그 캠프 내 인사와의 소통 채널 구축이 급선무다. 트럼프 2기에는 1기 때 트럼프의 총동적 행동과 일탈을 억제했던 견제 세력이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만큼 트럼프 혹은 캠프 내 인사들과의 직접 소통이 중요해졌다. 게다가 트럼프가 공약으로 제시한 관세 및 통상 정책은 아직 디테일이 확고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 트럼프 측과의 소통을 통해 우리의 이익을 지키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것이다. 일본이 트럼프 집권에 대비해, 트럼프 측과 친분이 있는 관료를 주미 대사로 임명하고, 아소 다로(麻生太郎) /

# 승경호 부동산

Realtor  
K. Soung

- ✓ 가치 극대화 및 성공적인 매각 목표
- ✓ 입주전 전체적 통합 서비스 제공
- ✓ 순조로운 임대차 계약 및 갱신 업무
- ✓ 최적의 입지와 컨설팅 제공
- ✓ 최신 부동산 시장 동향 파악 및 분석
- ✓ 맞춤형 주택 매입과 최고의 주택 매각

### 승경호 추천 매물

| 식당                                                                     | Beer & Wine                                                           | 창고                                                     |  |
|------------------------------------------------------------------------|-----------------------------------------------------------------------|--------------------------------------------------------|--|
| <b>유명 델리</b><br>DC 주인 없이 운영, 판매가 55만불<br>정부업무 건물 1층, 손수익 = 주인운영 월이 1만불 | 주2만불 수입, 렌트 \$7200+Cam, 2,300SF<br>몽고메리카운티 MD, 조건부임대계약 50만불           | <b>발티모아 부근</b> 창고 임대 구하시는 분 5000-8000                  |  |
| <b>버블티 가게</b><br>1년 70만불 매출, 렌트 6천불<br>순수익 한달 1만6천, AP 36만불            | 주1만8천불 수입, 렌트 \$7200, 2400 SF, 알링턴 VA<br>조건부 임대계약, 35만불               | <b>창고자리 임대</b> 전기시설 완벽, 9000 SF, VA 현근                 |  |
| <b>식당 자리</b> 6,408 SF, 엘버나 메릴랜드                                        | <b>도장</b>                                                             | <b>그로서리</b>                                            |  |
| <b>식당 자리</b> 4,675 SF, 임대, 메릴랜드 락빌                                     | <b>태권도장 자리</b> 2700 SF, 임대, 버지니아 폴스처치                                 | <b>스페니쉬 그로서리 자리</b> 5,484 SF, 폴스처치, 버지니아               |  |
| <b>식당 자리</b> 7,100 SF, 단층짜리 단독 건물 임대<br>와잇아쉬 메릴랜드                      | <b>태권도장 자리</b> 2900 SF, 임대, 버지니아 에쉬번                                  | <b>상가</b>                                              |  |
| <b>식당 자리</b> 5500 SF, 임대, VA 페어팩스카운티                                   | <b>사무실</b>                                                            | <b>단독 건물</b> 백클린, 단독건물, 4백5만불, 6,000 SF                |  |
| <b>식당 자리</b> 4500 SF, 임대, 차이나타운부근                                      | <b>에난데일 사무실</b> 1200 SF 사무실, 병원 적합, 35만불                              | <b>상가 매매</b> VA 비엔나, 연 순수익 52만불, 8백만불                  |  |
| <b>식당 자리</b> 7800 SF, 임대, 버지니아 에쉬번                                     | <b>사무실 자리 임대</b> 고급, 타이슨스코너 갤러리아 바로 옆<br>최고급 컨퍼런스룸, 경비원24시간, 8300 SF. | <b>발티모아 상업건물</b> 상업건물(임대수입), 1백1십만불<br>1층식당+2층+3층 아파트  |  |
| <b>식당자리, 제과점, 건물 매매</b><br>0.5 에이커, 3500 SF 매매가 5백만불, 버지니아 맥클린         | <b>사무실 자리 임대</b> 워싱턴 디씨, 교통좋은 곳<br>사무실 임대하실 회사 찾습니다                   | <b>주택</b>                                              |  |
|                                                                        |                                                                       | <b>콘도</b> 방2, 화장, 차고1, 메트로근처 웨그먼옆<br>관리해드립니다. 매매가 49만불 |  |

주 택      투자 컨설팅      주재원 렌딩 서비스

상가/사무실/아파트/공장/창고      사 업 체      공장 / 사무실 / 창고 설립

## 703.928.5990

k@dwellwashington.com

## 승경호

7925 Jones Branch Dr. #3100  
McLean, VA 22102  
703.928.5990

Realty One Group은  
미 전국에 15000명의 부동산 에이전트가 일하는  
미국 부동산 회사입니다

THE SCHNEIDER  
TEAM

www.dwellwashington.com

ONE REALTYONEGROUP  
CAPITAL

내 집  
장만

부동산 전문 소사씨

# 모든 투자 출발점 ... 본인 리스크 프로파일 확인

## 포트폴리오 구성 및 운용

투자자산 운용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오히려 많다. 많은 이들이 투자자산 운용을 '대박'을 낼 수 있는 종목이나 자산유형을 골라내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것도 아예 틀린 생각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정답'은 아니다. 이런 접근은 투자보다는 '투기'에 가깝기 때문이다.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과 운용이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 지에 대해 알아보자.



본인의 투자 위험 수용 성향 및 목표와 본인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고수익만 좇다간 낭패를 볼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개념이다. S&P500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것은 자산 유형의 관점에서 보면 주식형 자산에 집중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500개 종목에 나눠 투자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분산이기도 하다. 지난해 S&P500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지 않고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7'에 투자했다면 훨씬 더 성적이 좋았을 것이다. 둘 다 주식형 자산에 집중한 투자이지만 후자가 그중에서도 개별 종목 7개에 더 집중한 투자라고 할 것이다. 리스크 관리에 방점이 있다면 분산의 역할이 커질 수 있고, 수익 추구에 방점이 있다면 집중의 역할이 커질 수 있다.

### ▶무조건 수익률

2022년 10월 저점 형성 이후 시장 상승세가 지속하면서 일반 투자자들의 수익률에 대한 기대나 요구도 높아졌다. 투자자들은 때마다 가장 수익률이 높게 나온 종목이나 자산 유형을 기준 삼는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투자가 그것을 목표로 한 투자였는지에 대한 생각은 없다.

무조건 수익률로 승부를 거는 투자 방법이 있기는 하다. 일반적으로 '헤지 펀드'라고 불리는 투자방식이 '절대 수익'을 추구한다. 돈 되는 곳이면 어디든 투자하고 무엇이든 사거나 판다. 하지만 이런 방식이 일반 투자자들의 '무기'에는 없다.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이나 투자자금 규모가 되지 않으면 투자금을 받아주지도 않는다.

### ▶자기 리스크 확인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과 운용은 투자자의 리스크 프로파일을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결국 크게는 안전성 위주로 투자할지 수익성 위주로 투자할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다. 안전성 위주로 투자하기를 원하면 그것에 맞게 안전한 포트폴리오가 구성돼야 한다.

이는 어느 정도 수익성에서는 양보할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이다. 반대로 수익성 위주로 투자하기를 원하면 그것에 맞게 어느 정도 공격성을 갖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한다. 이는 곧 그에 상응하는 리스크를 수용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포트폴리오 성적의 비교나 검토는 무작정 가장 수익률이 잘 나온 어떤 것에 대해 하는 것이 아니다. 확인된 자기 리스크에 기반을 둔 비교나 검토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보수적 투자자가 나스닥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없다. 자신의 리스크에 기반을 둔 구성된 보수적 포트폴리오의 성적표를 나스닥의 성적표에 비교하는 것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양자는 전혀 다른 포트폴리오이고 비교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공격적 투자자도 마찬가지다. 공격적 성향을 반영해 구성된 포트폴리오의 손실 폭을 채권의 손실 폭과 비교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 도움도 되지 않는다

## 투자 위험 수용 성향에 따라 포트폴리오 구성해야 안전성 추구라면 수익 양보, 수익 우선시엔 고위험

### ▶벤치마크

각자의 포트폴리오는 그 구성 목적에 부합하는 벤치마크가 있게 마련이다. 중도성향 투자자의 포트폴리오 구성비는 일반적으로 주식형 자산 50%, 채권형 자산 50%다. 물론, 실제에선 일부 현금자산 배정도 가능할 것이다. 어쨌든 자기 리스크 성향이 중도성향으로 확인됐다면 포트폴리오 구성 역시 이를 반영해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다면 이후 성적 검토와 비교는 50/50 벤치마크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갑자기 러셀 2000이나 비트코인에 비교할 수 없다. 거기에 투자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요즘은 공격적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들이 많다. 역시 장세 영향이 크다. 그래서 리스크에 대한 자기확인이 없거나 이를 무시하는 경향성이 높다. 장세가 좋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장세가 나빠지면 문제가 될 소지가 높은 방식이다. 무작정 수익률을 좇는 대부분은 시장의 조정이나 하락장에

서 손실이 발생하면 사실 감당하지 못한다. 직접 경험할 때 후회하지만 이미 때는 늦을 수 있다.

### ▶로테이션, 집중과 분산

특정 투자자산이나 종목이 매번 일등을 하지는 않는다. 경기 순환이나 시장 순환기와 맞물려 분야, 종목이 늘 순위변동을 경험한다. 특정 펀드나 포트폴리오 전략도 마찬가지다. 장기적인 성적표는 일등이라도 특정 시기에는 시장 벤치마크나 주변 종목보다 뒤쳐질 수도 있다.

만약 집중이 아닌 분산 포트폴리오라면 더 시장 인덱스를 앞지르기 어렵다. 분산은 리스크를 줄여주지만, 수익률이 낮아지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리스크 분산이 반드시 수익률 분산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전략적 분산의 경우 장기적으로는 집중투자보다 성적이 뒤쳐질 공산이 높을 것이다. 집중투자는 개별종목이나 자산 유형에 집중하는 방식이지만 상대적인

### ▶전략과 전술

집중과 분산은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전술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 물론, 양자의 결합도 가능하다. 전략적 접근은 '바이 앤드 홀드(buy and hold)'로 이해할 수 있다. 전술적 접근은 시장환경에 따라 자산 유형들 사이 능동적인 자금이동과 배치를 강조한다. 각자 확인한 자기 리스크에 기반을 둔 집중과 분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듯 전략, 전술적 자산운용 역시 자기 리스크를 반영한다.

포트폴리오 구성과 운용의 출발점을 자기 확인된 리스크로 단순화시켰지만, 이는 투자목적, 기간, 자산 규모, 여유자금, 손실수용 능력 등 다양한 요인들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투자자의 은퇴자금 관리의 수익률에 욕심이 나도 집중투자 일변도로 가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필요 이상의 공격적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냥 '바이 앤드 홀드'로 가는 전략적 접근도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지금 각자의 포트폴리오가 자기 확인된 리스크에 부합하는 형태로 구성, 운용되고 있는 지부터 검토해보자.

권치아메리츠에셋대표

전 총리가 방미해 트럼프와의 면담을 추진하는 등 트럼프 측과의 관계 구축을 서두르고 있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한국, CPTPP 가입 서둘러야

한편 우리의 대미 무역 흑자를 관리하고 축소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한

국은 미국에 8대 무역 적자국(한국 입장에선 흑자)이다. 지난 5년간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꾸준히 증가해 2023년 기준 440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기록했다. 만약 트럼프가 중국에 60%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면 한국의 대미 수출과 대미 무역 흑자 폭은 더 확대될 수 있다. 그러나 과도한 대미 무역 흑

자는 트럼프가 한미 FTA 재개정을 요구할 명분을 제공할 수도 있고, 우리가 트럼프 정부와 다른 현안을 논의하는데 있어 우리의 협상력을 제한하는 족쇄로 작용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트럼프의 재집권으로 미국의 고립주의가 심화할수록 우리는 다른 국가와의 경제 협력을 강화

해 나갈 필요가 있다. 바이든 시대에 통했던 미국 편중 외교와 경제 협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 한국은 이미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85%에 달하는 국가들과 FTA를 맺고 있지만 이를 더욱 확대·심화해 나가야 한다. 정치적 어려움은 있겠지만 포괄적·점진적한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 가입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일본과의 경제 협력을 심화하고, 중국과의 교역 및 경제 협력도 지속해 나가야 한다. 우리가 여타 국가와 협력 관계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트럼프 집권에 따른 위험을 헤치하는 한 방법이 될 것이다.

김두식 테크멘트레이드 연구원 상임대표 변호사

# 마우리 왓츠 & 단 박

##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Watts & Park

“교통사고는 왓츠 & 박”

40여년의 법정 변호사 경력 / 3대째 변호사 집안

한국어 상담 안 윤희 (Yoon Hee Ahn)

히스패닉 상담 Consultas en Español 하이디 살게로 (Haidee)



변호사  
Maury B. Watts, III  
마우리 왓츠



변호사  
Dan D. Park  
단박



변호사  
Roopal Gupta  
루팔 고크다



사무장  
YoonHee Ahn  
안윤희

보상금을 받아내지 못 할 경우  
**변호사비용 일체 무료**

- ▷ 자동차 사고, 오토바이 사고, 트럭사고, 자전거 사고 등 모든 교통사고 처리
- ▷ 사고로 인한 의료비 및 임금청구와 고통에 대한 충분한 보상금 해결
- ▷ 차수리, 렌트카, 병원 등 모든 일체를 도와드립니다.

저녁 & 주말 전화상담 가능!

Cell: 703-994-6643

무료상담

703.256.8797 / 301.495.5619 / 410.783.1220

7010 Little River Tnpk., Suite 200, Annandale, VA 22003

## PART 7. 로컬업소, 구글을 내 편으로 만들기

### ▷로컬이 정글?

디지털 시대에 로컬 사업체 운영은 정글만큼 치열하다. 겉보기엔 몰라도, 모바일 검색, 고객 리뷰 활용, 구글 지역 광고, 소셜미디어 등에서 앞서가는 대표적 업체들이 엄청난 혜택을 쏟아낸다.

작은 업체들은 생존 사투에 매달리지만, 갈수록 기우는 상황이 바로 지금이 아닌가 싶어 안쓰럽다. 검색과 광고, 고객 리뷰로 탄탄하게 무장된 대표급 로컬 비즈니스를 영세한 사업주들이 예전 방식으로 맞붙기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 ▷아직은...?

마음이 무거워지기 전에 결론부터 말하겠다. 지금의 상황 전환은 오래 걸리지 않는다. 그리 어렵지도 않다. 하지만, 제대로 안 하면 똑같은 반복과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한다. “예전에도 온라인 마케팅에 봤는데 효과가 없었

어요.”라는 분이 많다. 미안하지만, 제대로 해주는 전문가를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잘 나가는 지역 경쟁사들이 알려주지 않는 비밀은 단순, 간단하다. 검색과 리뷰, 나만의 매력적인 오퍼를 온라인에서 타겟층에게 비용 효율적으로 충분히 보여주게 하면 끝이다.

### ▷‘무엇’이 결정 요소?

로컬 사업체를 급부상케 하는, 변함없이 수확을 챙겨주는 열쇠는 ‘무엇’인가? 최근 들어, 로컬 사업 성패를 결정하는 대표급 요소는 ‘로컬 검색’으로 판명됐다. 필자의 말이 아니다. 전문가 대부분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이다.

### ▷지금까지 vs 지금부터?

당신은 이 가장 중요한 영역을 잘 활용하고 있었는가? 그렇다면, 환하게 손뼉 쳐주고 싶다. 아니었다면, 지금부터 하면 된다. 상황이 나빠 보여도, 나이가 많은 돈보기 아날로그 세대라도, 의



윤필홍  
IntelSystems대표

지만 있다면 누구든 해낸다. 후회가 있더라도, ‘지금까지’보다 ‘지금부터’가 훨씬 중요하다.

### ▷구글이 나를 돕게 한다?

검색엔진은 누구의 편도 아니다. 하지만, 자신의 사업체를 위해 누구든 육중하게 활용할 수 있다. 구글 효과는 로컬 사업체엔 어마어마하다. 지역 비즈니스를 고속 성장으로 이끄는 도구가 있다면 그 첫째는 구글 로컬 상위 랭킹일 수밖에 없다.

### ▷노출과 고속 성장의 관계?

검색하는 고객 눈앞에 내 사업체가 매일 수백, 수천 회씩 나타나 준다면 달라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더구나, 구글 비즈니스 프로파일은 구글 지도에서 보여주는 핵심이다. 여기에 사업체 주소, 사업 설명, 고객 리뷰, 오픈 시간, 찾아오는 길, 전화 버튼까지 모두 연결돼 있다.

이 하나의 영역에서 노출 숫자, 빈도만 바뀌어도 사업 경쟁력은 초록의 계절을 만난다. 주위를 살펴보자. 구글 하나로 고속 성장을 만들어 가는 로컬 경쟁사의 예를 못 찾는 경우는 없다.

### ▷떠오르는 경쟁사들?

지난해 또는 얼마 전까지 별 볼 일 없던 업체가 구글 지도에서 최상으로 부각되거나, 고객 리뷰가 매일 예전보다 수배로 급격히 불어나는 경우도 이제는 드문 일이 아니다. 누구나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앞으로는 더 많이 나타날 것이다. 그중 하나를 당신의

업체로 만들자.

### ▷똑똑해야 할 이유?

단순해 보이는 고객 타겟 방법만 들여다봐도 최소한 몇 가지의 테스트를 통한 조정이 필요하다. 광고 플랫폼이 훨씬 예리해졌다. 자르고, 나누고, 합치고 조정해서 반응할 만한 고객 눈앞에 광고를 보여주는 테크놀로지를 사용해야 돈 낭비를 현저히 줄인다.

메시지와 오퍼, 고객 반응도 운 좋게 한 번에, 저절로 될 수 없다. 그건 말이 안 된다. 디지털 광고와 마케팅은 똑똑하게 테스트하고 정교하게 만들어가는 업체가 언제나 큰 혜택을 쓸어갈 수밖에 없다.

늦은 듯 보여도, 여전히 늦지 않았다. 이제 사업을 역전하라.

▷스몰비즈니스세일즈마케팅 문의.

무료 ebook 문의:703-337-0123,

www.intelisystems.com

## 세법 상식



윤주호  
CPA

## IRS 편지 대응법

### 내용 동의하지 않으면 기일 내 응답 IRS 서신 세무기록과 함께 4년 보관

지난 4월 15일 2023년도 개인 세금보고서 접수 마감됐습니다. 세금보고를 연장한 납세자들은 오는 10월 15일 전에 세금보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세금보고서를 제출한 후 납세자 중 일부는 IRS(연방국세청)로부터 편지를 받게 됩니다. 미납 세금에 대한 내용, 일부 소득의 누락 정보, 추가적인 서류 요청, 납세자 본인의 신분 확인, 신고한 세금보고서 내용을 변경했을 경우나 세금보고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한 경우 등 내용은 다양합니다.

최근에는 부양가족인 자녀들의 신분도 확인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들의 신분을 도용해 차일드 택스 크레딧과 근로 소득 택스 크레딧

(EITC)을 가로채는 경우도 적지 않은 듯합니다.

편지에는 어떤 이유로 발송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일단 납세자의 입장에서 받은 편지 내용에 동의한다면 그 사항에 대해 굳이 답변할 필요는 없습니다. 편지 내용에 대해 납세자의 답변이 없으면 IRS에서는 편지의 내용대로 진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확인한 결과 동의하지 않는 내용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답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최소한 30일 내지 45일간의 시간을 주며 그 시간 안에 응답해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납세자가 답이 없을 경우 생각지도 못한 택스가 부과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시간이 2, 3년쯤 흘러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간과 비용도 훨씬 많이 든다는 것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IRS로부터 편지를 받았다면, 자세히 읽어보고 본인이 접수한 세금 보고서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에 맞는 대응 방법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납세자들이 종종 받게 되는 IRS 통지서 중에 'Notice CP 2000'은 납세자가 보고한 택스 보고와 제삼자(third party)가 IRS에 보낸 납세자에 관한 정보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 세금 보고서 변경을 제안합니다.

이럴 때는 통지서에 명시된 정보를

본인의 원래 보고서 정보와 우선 비교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IRS 편지에 답변해야 하는 마감일이 기재되어 있다면 주의가 요구됩니다. 납세자가 답변 날짜를 준수해야 할 두 가지 주된 이유가 있는데 추가적인 이자나 페널티 부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과 납세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이의 신청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추가 세금납부와 관련해서 편지를 받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동의는 하지만 일시불로 납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분납 신청도 가능합니다. 분납 방법은 우선 본인이 납부할 수 있는 만큼 납부한 후 IRS에 분납 플랜을 신청하거나 세액 조정 제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IRS에서 받은 모든 통지서나 서신의 사본을 납세자의 세무 기록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들 문서가 필요할 수

도 있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4년은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IRS로부터 받은 편지내용에 대해 직접 전화로 문의나 답변을 해야 할 때는 그 내용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해당 고지서(CP)나 편지(LTR)에 있는 번호를 IRS 에이전트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편지의 번호는 보통 오른쪽 상단이나 하단 끝부분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CP503', 'LTR 5071C' 등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편지의 번호를 알려줘야 에이전트로부터 더 정확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IRS에서 발송된 것처럼 보이지만 수상한 점이 있거나 신분도용 범죄로 의심이 되면 IRS 웹사이트 피싱 신고 페이지를 방문하거나 IRS 전화(800-829-1040)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RS에서는 절대로 납세자에게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마케팅은 **인텔리시스템**에서

# 기억 못하는 광고에 얼마를 쓰시겠어요?

## YouTube

스몰 비즈니스, 유튜브 광고가 압도적인 5가지 이유

1. 건너뛰면 광고비 없다
2. 건너뛰어도 고객이 기억한다
3. 원하는 지역에서만 광고한다
4. 사업체를 눈부시게 차별화한다
5. 하루에 커피 한잔 값이면 한다

**지금 전화주세요!**  
내 사업체의 미래를 바꾸세요~  
**703-337-0123**

www.Intelisystems.com

아마존 스토어 마케팅

구글 스마트 쇼핑

구글광고 & SEO

온라인 리뷰관리

문자마케팅

유튜브광고

소셜미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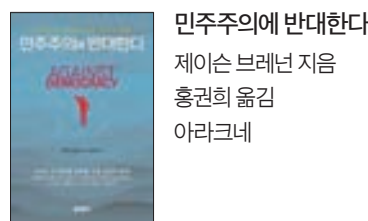
웹사이트 제작

온라인 쇼핑물

이메일 마케팅



# 호빗과 홀리건, 나쁜 정치 만드는 유권자



민주주의에 반대한다  
제임스 브래넌 지음  
홍관희 옮김  
아라크네



미국 네바다주 강연장 근처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미지가 걸려 있는 모습.

[AFP=연합뉴스]

이 책은 인류가 개발한 가장 위대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라는 민주주의에 대한 통쾌한 도발이다. 엄밀히 말하면,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지 못하는 무능하고 부패하며 탐욕적인 정치인과 욕망을 가리지 못하는 유권자에 대한 날카롭고 매서운 공격이다.

물론 민주주의 체제는 비민주주의적인 체제보다 자유를 더 잘 보호하며 경제적으로 더 부유한 경향이 있다. 수많은 학자들이 이를 예견해왔다. 하지만 지은이는 현실 정치가 우리를 갈라 놓고 모욕하며 타락시키고 시민의 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한다.

미국 조지타운대 석좌교수로 전략·경제·윤리·공공정책을 가르치는 지은이는 도널드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뽑은 미국 유권자나 국민투표에서 브렉시트를 결정한 영국 유권자를 민주주의의 결함 사례로 꼽는다. 초점은 유권자다. 연구 결과, 70년 전이나 지금이나 투표 전에 미리 알았다면 찬성하지 않았을 정책과 후보에 표를 던진 유권자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권자의 잘못된 투표는 '나쁜 정치'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와 정치적 실망과 절망, 그리고 냉소를 불렀다.

지은이는 유권자를 호빗·홀리건·벌컨의 세 유형으로 나눠 비교한다. 호빗은 정치에 대한 관심과 정보력, 그리고 참여도가 떨어진다. 뜨거운 이념이나 정치 열정이 없으며 수동적이다. 미국

에선 여기에 속하는 수많은 유권자가 선거에서 통상 투표율이 낮다.

홀리건은 정치에 관심이 크고 정치 성향이 뚜렷하며 정보가 많은 시민이다. 이들에게 정치란 스포츠와 같다. 세상을 내 편과 적으로 나누기 일쑤다. 자신의 믿음에 지나칠 정도로 강한 확신이 있다. 이 때문에 확증 편향이나 집단 편향 등 인지 편향에 시달린다. 근시안이나 외곬수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투표해 정치적 영향력이 크다.

SE시리즈 '스타트렉'에 나오는 논리적이고 좀체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외계종족에서 이름을 딴 벌컨은 이상적인 유권자다. 완벽하게 이성적이고 정보가 풍부하며, 자신의 신념이나 정파에 과도하거나 부적절하게 이끌리지 않는다. 문제는 이들이 소수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현실 정치에서 유권자의 대부분이

호빗이나 홀리건이며 정치와 선거 규칙도 결과적으로 이들이 정한다. 철학적 민주주의 학자들이 내세우는 민주주의 모델과 현실 정치의 괴리가 갈수록 커지는 가장 큰 이유다.

지은이는 미디어·인터넷 등의 영향으로 정치 참여가 늘면서 호빗은 홀리건으로, 홀리건은 더 질 나쁜 홀리건으로 악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한다. 적극적인 정치 참여가 이뤄지면서 과격한 대결과 진영 나누기, 무조건 편들기 등 부작용이 오히려 커진 것이다.

지은이는 대안의 하나로 에피스토크라시(Epistocracy)를 제안한다. 지식을 갖춘 유능한 시민에게는 상대적으로 덜 유능하고 지식이 부족한 시민보다 더 많은 정치적 권한을 주도록 법으로 보장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보다 현명한 사람이 선거와 정치, 정부를 좌우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이다. 한

때 대학 졸업자들에게 두 표를 행사하게 한 나라도 있었다.

문제는 이럴 경우 인구통계학적으로 미국 유권자의 힘은 더 흰 피부에 더 부유하며 더 남성적으로 변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정치 지식이나 정보가 모든 인구 집단에 동등하게 공유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은이는 에피스토크라시가 유일한 대안은 아니라고 말한다. 다른 대안도 검토한다. 선출된 공직자가 가장 긍정적 효과를 낼 정책을 결정하는 퓨타키(Futarchy)나 의회나 기업이 시장 예측을 통해 더 좋은 의사결정을 이루는 프리딕토크라시(Predictocracy) 등 다양한 제안이 있다. 정해진 답은 없다. 시민들이 만들어 나가야 한다. 원제 Against Democracy.

채인택 전 중앙일보 전문기자

## 인간에게 희망은 “생존의 본질”



희망의 책  
제임스 구달의 지음  
변용란 옮김  
사이언스북스

기후 위기에 대한 인식이 행동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지만 자극하는 건 아니다. 공포, 우울, 무기력감, 운명론, 체념 등도 느끼게 한다. 이를 생태적 비애, 생태적 불안이라 부르기도 한다.

위기를 알수록 희망을 품기도 힘든 시대, 아흔을 바라보는 제임스 구달은 '희망'을 말한다. 침팬지 연구에서 환경·빈곤 문제 등까지 활발한 활동을 펼쳤던 그는 공저자 더글러스 에이브람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희망이 무엇이고, 희망의 네 가지 이유가 뭔지 풀어낸다.

케냐의 황폐한 채석장이 시멘트 회사 CEO의 결단을 거쳐 생태 공원으로 탈바꿈한 일은 '자연의 회복탄력성'을 실감하게 하는 사례. 여기에 '인간의 놀라운 지능', '젊은이들의 힘', '굴하지 않는 인간의 정신력'도 있다. 너무 당연한 듯 들려 감흥이 덜한 대목도 있지만, 책 전체로 보면 공저자 에이브람스의 질문과 서술이 균형을 잡는다. 회의주의자를 자처하며 집요하게 이어가는 질문들에 구달은 연구와 사회적 활동을 아우르는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한층 정교한 생각과 구체적 사례들을 들려준다.

그도 희망을 잃어버린 적이 있을까. 구달은 남편이 암으로 고통받던 세상을 떠났을 때를 떠올린다. 재혼한 지 5년도 되기 전, 그가 마흔여섯일 때였다. 이번 책은 20여년 전 나온 『희망의 이유』 같은 회고록은 아니지만, 그의 삶에서 중요한 여러 지점들을 압축적으로 짚어낸다.

강연하며 지친 목을 저녁마다 위스키로 축이고, 과학자보다 '자연주의자'를 자처하는 등의 면모도 드러난다. 구달은 영적인 힘에 대한 믿음 역시 뚜렷이 드러내는데, 그렇다고 다른 이에게 이런 시각을 권하거나 설득하진 않는다.

공저자가 인용한 대로, 그레타 툰베리는 세계경제포럼에서 "당신들의 희망을 바라지 않는다"고 일갈했던 터. 구달은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에 두려움·분노의 반응이 "반드시" 필요하며 말을 잇는다. "희망 아니면 두려움이라거나, 희망 아니면 분노라거나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모두 필요합니다."

그에 따르면 희망은 "인간의 생존의 본질"이다.

이후남 기자

### 책꽂이



우리의 상처가 미래를 바꿀 수 있을까(김승섭 지음, 동아사이언스)=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은 인종과 성별을 가리지 않았지만, 팬데믹으로 인한 고통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가혹했다. 6명의 연구자들이 이주민, 장애인, 노동, 아동, 여성을 초점으로 그 고통을 관련 보도·논문·보고서, 그리고 활동가들 인터뷰를 통해 기록하고 문제점을 살폈다.



송고 미학(박정자 지음, 기파랑)=공포영화나 추리소설에서 보듯 예쁘고 아름다운 것만 아니라 추하고 불쾌하거나 두려운 것이 쾌감을 주기도 한다. 이른바 '송고 미학'의 영역이다. 에드먼드 버크, 임마누엘 칸트, 자크 데리다의 견해와 해석을 중심으로 송고 미학의 길잡이를 120여쪽 분량에 담았다. 부제는 '폭력성과 기괴함의 예술적 원리'.



친구를 입양했습니다(은서란 지음, 위즈덤하우스)=저자는 다섯 살 차이나는 친구와 함께 살다가 현재의 법 제도에서 서로의 울타리가 되어 주기 위해 성인 입양을 통해 가족, 즉 모녀 관계가 됐다. 세간에 큰 화제가 된 이 입양 이전에 비혼으로 시골 생활을 마음 먹고 마을 사람들을 만나 살 곳을 구한 과정 등 지나온 삶부터 찬찬히 그려낸다.



지도 끝의 모험(릭 리지웨이 지음, 이영래 옮김, 라이팅하우스)=미국인 최초로 무산소 K2 등정에 성공한 산악인이자 환경운동가인 저자는 친환경 아웃도어 브랜드로 이름난 파타고니아에서 여러 환경 캠페인을 주도한 부사장이기도 하다. 수십 년간 지구촌 곳곳을 탐험하며 겪은 생생한 경험과 함께 인생과 자연을 아울러 세상에 대한 성찰을 담았다.

## 보험료가 반값! 바로 확인해 보세요~!

사업체 보험

직장상해보험

메디케어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주택보험

건강보험

은퇴연금

### 703-537-9899 | 703-591-0009

👉 자동차 보험료 👈 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미국 굴지의 탑 보험회사가 오퍼하는 확실한 보험”

• 저렴한 보험료 • 확실한 커버 • 신속 친절 서비스

## 조은혜 종합보험

571-232-0702 | 703-591-0009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페어팩스 법원 건너편/모스비 타워)

Partner  
보험회사

\*Top Major 보험회사와의 직접연계로 확실한보장, 저렴한 보험료, 안전한 회사

Nationwide

MERCURY INSURANCE

PROGRESSIVE

National General

STILLWATER

Berkshire Hathaway GUARD

Safeco Insurance

THE HARTFO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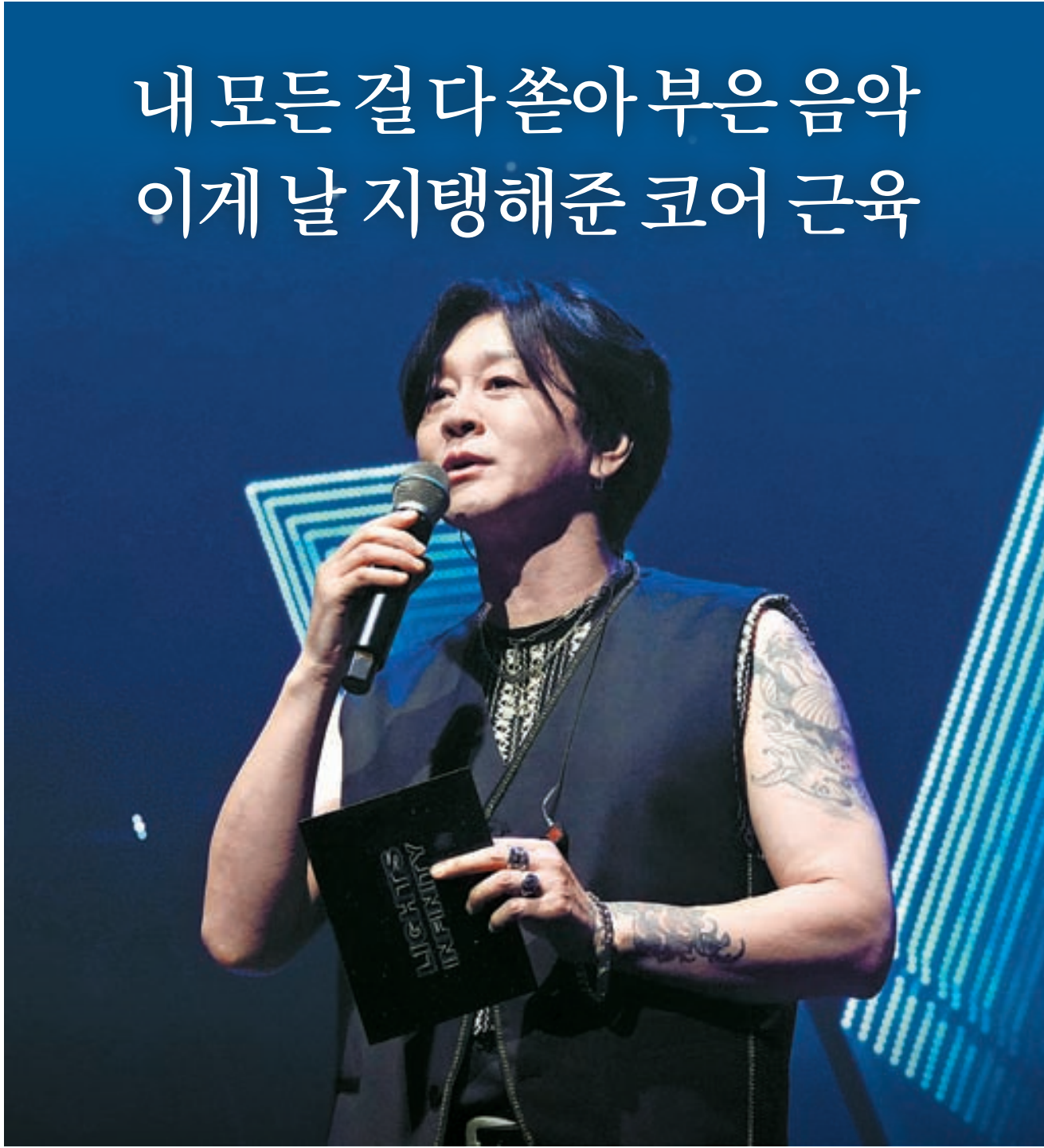
AIG

그런 목소리가 있다. 거침없이 포효하는 사자처럼, 울다가 지쳐버린 외로운 남자처럼, 등 뒤에서 조용히 위로해 주는 친구처럼 들리는 목소리. 이들의 공통점은 기교 없이 묵묵하고 담백하다는 것이다. 가수 윤도현의 노래를 들을 때마다 느끼는 바다.

20대는 폭주기관차, 지금은 KTX 목소리 지난해 8월, 윤도현은 희귀성 암인 위암 림프종 진단을 받고 3년의 투병 끝에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깜짝 고백해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그리고 그가 무대로 돌아왔다. YB는 현재 3월 대구를 시작으로 수원·안산·창원·부산·인천 등 전국을 누비며 '2024 YB TOUR LIGHT; INFINITY' 콘서트를 진행 중이다. 종착지는 6월 8-9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리는 서울 공연이다. 오직 음악과 조명만으로 정면승부를 하겠다는 포부로 시작된 YB만의 공연 브랜드 'LIGHT'에 무한함을 뜻하는 'INFINITY'를 덧붙였다. YB만이 할 수 있는 한계 없는 음악적 스펙트럼을 강조한 의미다.

방송 출연 외에는 내내 미디어 인터뷰를 거절했던 그와 지난달 26일 어렵게 만나 근황에 대해 들었다. 다행히도 그는 건강해 보였다. 콘서트 무대에서도 파워풀한 가창력은 여전하다. "아무래도 건강에 더 신경 쓰니까요. 투어 일정이 주말이라 금요일에 지방에 가면 무조건 호텔에서 8시부터 자요. 공연 끝나면 또 바로 와서 자고. 예전 같으면 자전거도 타고 등산도 했을 텐데 요즘은 공연과 건강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이번 전국 투어에선 특별하게 공감 토크 'YB의 DM 레터' 이벤트를 진행한다. 윤도현의 선후배 뮤지션과 지인들, 깜짝 게스트, 그리고 미리 사연을 보낸 이들이 무대에 올라 '공감'과 '위로'를 주제로 노래하고 이야기하는 코너다. 암 완치 소식 후 많은 암 환자와 가족들이 SNS에 '힘을 얻었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윤도현은 사연마다 모두 댓글을 달았다. 누군가 내 이야기에 공감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는 걸 알기 때문이다. 부산 공연에선 11살짜리 초등학생이 무대에 올랐다. 라디오 프로그램 '4시엔 윤도현입니다'에 10년 간 병마와 싸우고 있다는 사연을 보냈던 학생이다. 윤도현이 공연에 초대했고, 사연을 들은 관객들은 '흰수염고래'를 열창하며 소년을 응원했다.



3년 여의암 투병 후 완치 판정을 받은 가수 윤도현은 지난 3월 대구를 출발해 6월 초 서울까지 이어지는 전국 투어 공연에 나섰다. [사진 디컴퍼니]

공연이 아닐 때는 새 음반 준비에 몰두한다. 6월쯤 첫 선을 보일 새 음반 장르는 메탈이다. "고등학교 때 '단두대'라는 메탈 밴드를 했는데, 80년대 말 얼터너티브 장르가 생기면서 메탈이 촌스럽게 느껴졌어요. 이후 그쪽은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아플 때 우연히 유튜브에서 스타일리시하고 멋진 메탈 음악을 접하고 완전 빠져들었죠. 마치 우주여행을 하는 것처럼 자유로웠어요. 그래, 이거다!"

'말'은 받았지만 록 밴드 YB에게 메탈은 엄청난 도전이라 음반 작업이 쉽지 않다. "YB 스타일도 아니고, 멤버들 나이가 다 50이 넘어서 체력도 달려요.(웃음) 우리가 알던 클래식 메탈이 아니라 최신 메탈이라 더 어렵고. 에릭 클립톤이 메탈에 도전하는 격이랄까.(웃음) 그래도 모두 의지를 불태우며 맹연습 중이죠. 안 될 것 같은 걸 해내는 게 인생의 큰 재미니까요."

보컬리스트인 그에게도 새로운 도전이다. YB의 색깔과 새로운 메탈의 접

점을 찾으려면 멜로디한 목소리와 '그로울링(낮은 톤으로 짐승의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는 창법)'이 공존해야 한다. "한 곡에서 보컬리스트의 자아가 극과 극으로 바뀌는 거죠. 그로울링은 괴물 같은 소리라 들으시면 놀라실 거예요."

올해 나이 52세. 중년이 된 그는 어떤 고민을 할까. 앞에서 데뷔 때부터 29년을 지켜본 기획사 대표는 "형은 만년 뽀로로"라고 했지만 윤도현의 대답은 딱 대한민국 중년 남자다웠다. "멤버들끼리 만나면 애들 얘기, 교육 얘기, 돈 들어가는 얘기, 건강 얘기.(웃음) 록 커도 아깝고, 남편이니까요."

아빠 윤도현은 요즘 속으로 안절부절 못한다. 스무 살 딸내미가 곧 미국 유학을 간다. 딸이 커가는 세상은 남성 위주의 세상도, 여성이라고 무시당하는 세상도 아니길 바라며 부부의 성을 나란히 붙여 지은 이름은 '윤이정'. 한자로는 '정(情)'. 당시 인기였던 초코파이 CF를 보고 지었다. "다른 광고들에 비해 가장 정서적으로 안정을 주는 광고였죠. 그 CF만 나오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좋았어요. 우리 애도 정을 나누는 사람이길 바라 건데, 이름 따라 간다고 진짜 정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예요." 어차피 자주 뉴욕을 오갈 거라면 공연을 해도 좋겠다 했더니 "YB의 미국 시장 진출이 시급하다"며 활짝 웃었다.

비둘기리 만나면 애들 얘기, 교육 얘기, 돈 들어가는 얘기, 건강 얘기.(웃음) 록 커도 아깝고, 남편이니까요."

아빠 윤도현은 요즘 속으로 안절부절 못한다. 스무 살 딸내미가 곧 미국 유학을 간다. 딸이 커가는 세상은 남성 위주의 세상도, 여성이라고 무시당하는 세상도 아니길 바라며 부부의 성을 나란히 붙여 지은 이름은 '윤이정'. 한자로는 '정(情)'. 당시 인기였던 초코파이 CF를 보고 지었다. "다른 광고들에 비해 가장 정서적으로 안정을 주는 광고였죠. 그 CF만 나오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좋았어요. 우리 애도 정을 나누는 사람이길 바라 건데, 이름 따라 간다고 진짜 정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예요." 어차피 자주 뉴욕을 오갈 거라면 공연을 해도 좋겠다 했더니 "YB의 미국 시장 진출이 시급하다"며 활짝 웃었다.

신해철은 내가 아는 사람 중 가장 미친 사람 추억을 찾아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되

는 나이. 그는 얼마 전 '학전 어게인' 공연을 하며 참 많이 울었다고 한다. "학전은 어머니 뱃속 같은 공간이고, 김민기 선생님은 아버지 같은 존재시죠. 김민기 선생님은 아프시고, 학전은 없어지고, 리허설 후 감정이 폭발치더라고요." 데뷔도 전에 윤도현을 알아본 김광석이 자신의 공연에 게스트로 그를 세웠던 공간 또한 학전이다.

어제 10년 전 세상을 뜬 신해철이 AI 목소리 모델 'AI 신(新)해철'로 돌아온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신해철의 생전 육성자료들로 음성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시켰다고 한다. 각별했던 신해철과의 기억을 떠올리며 들려준 일화는 웃기면서도 애뜻하다. "해철이 형은 애티튜드나 음악에 대한 열정이나 제가는 사람 중 가장 미친 사람이었어요. 그런 캐릭터의 사람은 두 번 다시 나올 수 없을 만큼. 개인적으로는 귀여운 형이었지만요. 술 마시자는 청을 귀찮아서 몇 번 피했더니 집으로 불려서 직접 음식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형이 살이 좀 썩 후라 앞치마를 두른 뒷모습이 장모님 같아서 참 웃었죠.(웃음) 그날 저녁 형 작업실에서 컴퓨터에 담긴 미발표 곡을 밤새 들었어요. 미발표 곡이 무려 200곡이나 된다니 이 형 정말 미쳤구나, 대단하다 생각하면서도 새벽 무렵에는 너무 졸려서 형의 질문들에 대충 대답했어요. 그때 내가 더 잘 할 걸... 아쉬워요."

김광석·신해철 모두 아티스트로서 사회적 영향력이 컸던 선배들이다. 요즘 윤도현은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 중이다. KBS 다큐멘터리 '지구 위 블랙박스' 촬영 때는 바닷물이 점차 차오르는 수조 안에서 노래하는 퍼포먼스로 해수면 상승의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다. 메탈리카 30주년 앨범 'The blacklist'에 참여했던 관련 수익은 모두 환경단체 그린피스에 기부했다. 라디오에선 '가치합시다' 코너를 통해 청취자들과 함께 텀블러 쓰기, 세제 물에 풀어 쓰기, 계단 오르기, 일회용품 사용 자제 등 일상 캠페인도 벌인다. "무분별한 난개발들로 자연이 무너지고 있으니 안타깝죠. 이제 단순히 보호·보존 차원을 넘어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위해 지구인 전체가 노력하고 연구할 때예요."

올해는 YB가 결성된 지 29년이 되는 해다. 외국의 60~70대 밴드들이 노익장을 과시하며 공연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밴드가 있기를 바라고, 그 기대를 YB에 걸어보는 /

**막착같은 부동산 비키리**

**5월 HOT 리스팅**

**입든 새입자나, 밀린 렌트비로 고민중이시면 연락주세요. 부동산 매매, 임대주택 리스팅, 임대주택 관리**

**집 팔기 딱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믿을 만한 부동산을 찾으시니까? 최소한의 비용으로 집을 수리하시고 싶으신가요?  
집값은 최고로 받고, 빨리 팔고 싶으신가요? 비키리 부동산에 지금 당장 전화!! Tel: 703.231.5572

**센터빌 타운홈**  
방3+화2/2+차고2  
2004년집,  
넓고 환한 엔드유닛  
**\$650,000**

**센터빌 타운홈**  
방3+화2+차고2  
H마트 부근  
**\$560,000**

**센터빌 타운홈**  
방3+화3.5  
2,184sqft,  
2000년  
**\$730,000**

**센터빌 콘도**  
방2+화2+차고1  
1,270sqft, 2002년  
콘도비 \$463  
**\$430,000**

**전화 문자 703-231-5572**

**비키리 브로커**

**앰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버지니아 / 703-863-0321    D.C., 메릴랜드 / 301-399-0140

HopeSpring Child & Family Clinic, LLC

**홈스프링 아동 가족 상담소**

**정신건강 전문가 권미경, Ph.D.**  
(Dr. Mi-Kyong Kwon)

- ▶ 한국과 미국에서 25년 이상 임상 경험
- ▶ National Certified Counselor
- ▶ National Certified TF-CBT Therapist
- ▶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 Supervisor (VA)
- ▶ Licensed Clinical Professional Counselor & Supervisor (MD)
- ▶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TX)
- ▶ Registered Play Therapist & Supervisor
- ▶ 한국놀이치료학회 편집 전문위원
- ▶ 전) Kennedy Krieger Institute, Psychotherapist
- ▶ 전) Trauma Training Academy, Faculty

**상담분야**  
아동, 청소년, 성인 상담, 부부 상담, 가족 상담, 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 미술 치료, 표현 예술 치료, 자녀문제 컨설팅, 부모 상담, 부모 교육 및 정신 건강 관련 강의

**상담진료분야**  
우울증, 조울증, 불안장애, 분노조절장애, 강박증, 선택적 함묵증, 조현병, PTSD, ADHD, Autism, 섭식 장애, 발달장애 및 지연, 학교 내에서 문제 행동들, 부모자녀 갈등, 대인관계 갈등, 아동 학대(신체적 폭력, 성폭력 등), 가정폭력, 부부 갈등, 고부 갈등, 별거/사별/이혼/재혼 후 심리적인 어려움, 스트레스 관리법

**예약 상담제**  
각종 건강보험 취급

**페어팩스시티 도서관 맞은편**

3915 Old Lee Hwy, #23A, Fairfax, VA 22030  
www.hopespringchildandfamily.com  
info@hopespringchildandfamily.com

**703-259-5617, 410-241-2520**

# “꿈만 같은 40년 만의 카퍼레이드, 매 순간 살아있음 느껴”



서대문구청 선수들이 훈련하는 북아현문화체육센터에서 슈팅 시범을 보여주고 있는 박찬숙 감독. 65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에너지가 넘치고 젊어 보였다. 최영재 기자

1984년 LA 올림픽에서 한국 여자농구 대표팀은 캐나다·유고·호주·중국을 연파하고 올림픽 구기 사상 첫 은메달을 따냈다. 그 중심에 센터 박찬숙이 있었다. 190cm의 큰 키에 민첩한 동작, 정확한 슈팅은 월드 클래스였다. 은메달을 목에 건 선수들은 김포공항에서 서울시청까지 카퍼레이드를 펼쳤다.

40년 세월이 흐른 뒤 박찬숙은 다시 카퍼레이드의 주인공이 됐다. 이번에는 선수가 아닌 지도자로서다. 지난해 3월 서대문구청 여자 실업농구팀을 맡은 박찬숙(65) 감독은 1년 만에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다. 지난달 14일 김천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전국실업연맹전 최종전에서 홈팀 김천시청에 47-46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고 3전 3승으로 우승했다. 현장에서 열띤 응원전을 펼친 이성현 서대문구청장은 “우승의 기쁨을 구민들과 함께하기 위해 카퍼레이드를 열어주겠다”고 약속했다. 선수단은 어린이날인 5일 차량 세 대에 나눠 타고 서대문구 일대 주요 간선도로 15km를 돌 예정이다. 지난달 29일 북아현 문화체육센터에서 박 감독을 만났다.

-창단 1년 만에 우승을 했네요.  
“올해 선수 보강이 좀 됐고 자신감도 있었어요. 1,2차전은 잘 했는데 마지막 김천시청과 게임은 38분을 지다가 2분 남기고 역전했어요, 워낙 드라마틱한 경기라 보는 사람은 짜릿했겠지만 저는 지옥 갔다 왔습니다.(웃음)”  
-어떻게 서대문구청을 맡게 됐나요.  
“저는 국가대표팀 감독까지 했지만 여전히 지도자로서 ‘우승’에 대한 배고픔이 있었어요. 여자농구 팀이 계속 줄어 현재는 프로 6개뿐이고, 각 팀에서 15년 이상 주전으로 뛰는 선수들도 있어요. 그만큼 프로에 가는 길이 좁고, 입단해서도 조기 은퇴하는 선수들이 많죠. 이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기 위

## 앞길 막막하고 좌절 겪은 선수들 함께 뛰며 자신감 심어주려 노력 고난의 세월 아이들 생각해 힘내

해서는 실업팀이 자주 생겨야 하거든요. 마침 이성현 구청장님이 ‘박 감독님이 맡아 주면 팀을 창단하겠다’고 해서 곧바로 오케이 했습니다. 대신, 우리 팀에서 재기해 프로로 가겠다는 선수가 있으면 무조건 보내줘야 한다고 했죠.”

-선수들을 어떻게 조련했나요.  
“한 번씩 아픔과 좌절을 겪은 아이들이라 조심스럽게 접근해 자신감을 심어주려고 했습니다. 연습 때는 저도 선수들과 함께 뛰었고, 평소엔 ‘나를 큰엄마나 엄마라고 생각하고 뛰든지 털어놔라’고 했습니다. 경기 중 위기가 오고 선수들이 흔들릴 땐 ‘선생님을 봐. 무서울 게 뭐가 있어. 자신 있게 싸워’라고 독려했죠.”

-선수단 운영은 어떻게 하나요.  
“구청에서 마련해 준 아파트를 숙소로 씁니다. 오전에는 북아현문화체육센터에서 체력 및 슈팅 훈련, 오후에는 서대문문화체육센터에서 전술과 실전 훈련을 하죠. 전용체육관이 없지만 구민들이 배려해 주셔서 체육센터를 쓰는 데 어려움이 없고, 급여도 공무원에 준하는 정도여서 안정적으로 운동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초·중고 팀들이 베스트5 구리기도 어려울 정도인데요.  
“우리 때는 실업팀이 13개여서 농구 잘하면 은행도 갈 수 있고 대기업에도 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어요. 지금은 팀도 적고 게임 뛰기도 어려워니 바늘구멍으로 안 들어가려는 거죠. 프로만큼은 아니지만 급여를 받고 안정적으로 농구를 할 수 있는 실업팀이 4개인 데 더 생각해 합니다. 그래야 재능 있는

아이들이 엘리트 쪽으로 가는 길이 넓어지고 선택지가 늘어나겠죠.”

결혼과 출산 후에도 선수 생활이 이어졌던 박찬숙은 은퇴 후 여성 최초 농구 국가대표 감독, 대한체육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그러나 2009년 남편이 직장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시련이 찾아왔다. 남편을 키우기 위해 생활 전선에 뛰어 들었는데, 지인의 권유로 시작한 사업이 실패했고 자신이 모든 빚을 떠안게 됐다. 법원에 파산·면책 신청을 했으나 ‘숨겨둔 소득이 있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고 끝에 2016년 12월 면책 선고를 받았다. 딸 서효명씨는 배우·리포터로 활동했고, 아들 서수원씨는 엄마와 같은 190cm의 키에 미국적인 외모가 돋보이는 모델이다.

-아프고 힘든 세월을 보내셨죠.  
“평생 운동만 한 사람으로서 상상도 못한 일들을 겪었죠. 의지할 남편도 없고 아무한테나 가서 아쉬운 소리 하려니 자존심이 허락지 않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냥 숨 쉬고 싶지가 않았어요. 극단적인 생각을 하다가도 아이들을 떠올리면서 ‘아니야.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야’라며 정신을 차렸어요. 일단 부딪쳐 보자, 조언도 받아 하면서 하나하나 해결하다 보니 풀려 나가더라고요. 속된 말로 잔대거리 굴렀으면 해결 안 됐을 겁니다.”

박 감독은 “물꼬를 댔으니 6월 태백시장배 대회, 10월 전국체전에서도 우승컵을 갖고 오고 싶습니다”라며 욕심을 감추지 않았다. “역시 우승은 좋은 거네요. 40년 만에 카퍼레이드를 다시 할 거라고 생각이나 했었어요? 대회 끝나고 ‘역시 박찬숙’이라며 격려해 주시는 팬들이 정말 많았어요. 저는 매 순간 살아있음을 느끼고 행복합니다.”

정영재 문화스포츠 에디터

이들이 많다. “데뷔 후 4년 간 앨범을 계속 발표했지만 히트곡이 없었어요. 그래도 계속 했죠. 사람들이 한 곡도 모르는 앨범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계속 했어요. 대중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쏟아 붓는 음악, 이런 음악이 우리를 오래 지탱해 준 코어 근육 같은 존재죠. 꾸준히 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가 오래 갈 수 있는 에너지인 것 같아요.”

인터뷰 내내 그 특유의 목소리를 들

으면서 질문이 생겼다. 29년 동안 늙지 않는 목소리의 비결이 뭐냐.

“변했어요.(웃음) 20대 때는 폭주기 관차 같았는데 지금은 KTX예요. 20대에는 투박하지만 불을 활활 태워가며 막 달렸다면, 지금은 뭔가 힘이 달리니까 노련미와 기술의 힘으로 보완하는 거죠.” 세월이 다듬은 윤도현의 진짜 목소리를 확인하려면 공연장에 가야겠다.



서정민 기자 KBS 환경다큐멘터리 '지구 위 블랙박스'에 출연한 윤도현이 물이 차오르는 수조 안에서 노래하며 해수면 상승 위기를 경고했던 장면. [사진 디컴퍼니]

### 단기연금 개런티 이자

/ 개런티 이자  
/ 단기 (3년, 5년, 7년)  
/ 복리 이자

이제는 원금보장과 함께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받을 때입니다.

| 원금        | 3년                 | 5년                 | 7년                 |
|-----------|--------------------|--------------------|--------------------|
| \$100,000 | 4.95%<br>\$115,597 | 5.30%<br>\$129,461 | 5.30%<br>\$143,548 |
| \$300,000 | 4.95%<br>\$346,791 | 5.30%<br>\$388,385 | 5.30%<br>\$430,645 |

\*이자율은변경될 수 있습니다. \*\*Virginia 기준

유니티 보험      상담 예약 및 문의 Tel: 703-200-1412      앤디 김 VA Lic# 639047

### 신성재 변호사      교통사고 / 개인파산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대에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지킬 것은 지켜 드립니다. 파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난 10년간 1,000건의 파산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믿을 수 있는 로펌.

- 교통사고 / 최대보상
- 개인상해 보상청구
- Chapter 7: 개인 파산
- Chapter 13: 개인 파산-Payment Plan
- 비즈니스 관련 민사 소송

교통사고 최대보상! 소송전문 변호사들이 약속 드립니다. 아무리 작은 케이스라도 법원에서 끝장을 보는 근성 있는 변호사들!

같이 일하실 사무장 구합니다. 전화 또는 이력서를 이메일 sjshin.esq@gmail.com 으로 보내주시요.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VA 571.999.2755      MD 301.775.2774      Regina Domingo Esq. | Chris Shin Esq. | Robert Harris Esq.      Hours: Mon-Fri (10:00 ~ 18:00)      E-mail: sjshin.esq@gmail.com / Fax: 240.775.3004

# “어린이에게도 사람의 권리” 선전지 12만 장 뿌린 방정환

야주개·사직골서 자란 종로 토박이  
손병희 사위 돼 천도교단 지원 받아

“아-나는 이담에 크게 자라서/이 몸이 무엇을 해야 좋을지/나 홀로 선택할 수 있게 되거든/그렇다 이 몸은 저 이와 같이/거리에서 거리로 돌아다니며/집집이 장명등에 불을 켜리라.”(‘개벽’, 1920년 8월)

이 구절은 이 땅에서 ‘어린이’라는 기호가 처음 등장했다고 알려진 시 ‘어린이의 노래: 불 켜는 이’ 3연의 일부이다. 방정환재단의 연희경 선생에 의하면 이 시는 방정환이 『보물섬』 『지킬박사와 하이드』의 저자로 유명한 R. L. 스티븐슨의 시 ‘The Lamplighter’의 일역본인 『子供の歌園』(아카호시 센타(赤星仙太)역, 1912년) 중 ‘點火夫’를 중역한 것이다. 방정환은 이 시집의 제목에 있는 ‘자공(子供)’을 ‘아동’이나 ‘아이’가 아니라, 인권을 지닌 근대적 존재로 상상이 가능한 ‘어린이’로 번역하여 시의 제목으로 삼는다.

이 시에서 ‘어린이’는 “아무리 구차한 집도/밝도록 환-하게/불 켜주는” 사람이며, 방정환은 이들로 인하여 “거리가 더 밝아져서/모도가 다-가티 행복되리라”고 말한다. 이렇게 그는 제국의 문화를 경유하여 그 식민체제에 균열을 낼 새로운 조선적 인간상, ‘어린이’를 창출하고자 한 것이다.

### 동화극 사진 소설 등 다양한 실험도

1920년 9월부터 1923년 11월까지 일본에 있었던 기간을 빼고 방정환의 생애 전반에 걸쳐 이루어진 치열한 아동문화운동의 거점은 종로였다. 방정환은 1899년 서울 야주개(지금의 당주동과 신문로1가에 걸쳐 있던 낮은 고개)에서 장남으로 태어나고 자란 종로 토박이다. 본적은 경성부 견지동 118번지.

조부가 시장에서 어물전과 미국상을 경영하여 비교적 유복하게 자라던 그는 현 조계사 자리인 수송동 보성소학교를 다닌다. 그러다가 9세 때 부친의 사업 실패로 점심 도시락을 싸 가지 못할 정도로 가세가 기울어, 식구들 모두 도정궁 아래 사직골의 허름한 초가집으로 이사를 간다. 그리고 1910년 서대문구 근동으로 이사하여 미동보통학교에 전학하기 전까지는 매동보통학교(현 통의동)에 다녔다. 1918년 천도교단이 인수하여 박동에서 낙원동으로 이전한 보성법률상업학교(보성전문학교)를 다니기도 했다. 무엇보다 ‘세계 어린이운동의 발상지’로 알려진 종로구 경운동은 그의 전 생애를 걸쳐 가장 중요한 시공간이었다.

꿈 많고 재능 많은 가난한 청년이 본격적으로 아동문화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은 그가 천도교단의 교주인 손병희의 셋째 사위가 되어 교단의 인적 물적 지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전 작품에 등장하는 학대받는 조선 아동에 대한



1 1932년 8월 개벽사에서 발행한 잡지 ‘어린이’ 통권 99호 표지. 2 소파 방정환 선생. 3 1922년 5월 어린이날에 맞춰 천도교회월보에 실린 어린이 인권 존중 항목. [사진 중앙포토, 국립한글박물관, 방정환연구소]

절절한 연민과 관심은 방정환이 겨울에 고사리 손으로 차가운 물을 지고 날랐던 사직골에서의 어린 시절 경험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결혼한 후 그는 재동 처가에 머물며 거기가 가까운 경운동 ‘개벽사’를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며 ‘어린이’와 ‘개벽’ ‘신여성’ 등 매체를 발행하며 각종 문화운동을 수행하는 데 온 힘을 다한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대중들의 민족의식을 고양시킬 강연회를 열었고, 어린이를 위한 동화회는 당대 최고의 흥행을 기록했다. 늘 만원이었고 앉을 자리가 없어 돌아가는 이가 많았다고 전한다.

그는 10세 때 선물 받은 환등기를 가지고 변사가 되어 영상회를 열었던 에피소드가 보여주는 것처럼 매우 뛰어난 문화기획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그가 처음에는 잡지 ‘어린이’ 발행에 회의적이었던 천도교단을 설득할 수 있었던 것은 10만 이상 인쇄하여 2만 부까지 발행한 세계명작동화집 『사랑의 선물』(1922년 7월 7일, 개벽사)의 성공 덕분이었다.

방정환이 직접 기획하고 번안한 이 동화집에는 ‘신데렐라’ ‘난파선’ ‘행복한 왕자’ 등 10편의 세계명작동화들이 실려 있다. 평균 판매 부수가 3만 부 정도였고, “3판을 발행한 것이 또 7일 만에 없어”(‘어린이’, 1925년 2월)였다는 잡지 ‘어린이’의 인기도 문화 운동에서 ‘곱고’ ‘자미있고’ ‘유익함’을 표방한 그의 다양한 기획 능력 때문이다. 그는 ‘어린이’에서 창작 동화, 위인전(역사동화), 동요(동시) 등 다양한 장르 외에 동화극(‘노래주머니’), 사진 소설 등 새로운 유형의 콘텐츠를 시험적으로 선보인다. 이밖에도 상품을 내건 현상문제, 현상문예, 독자 담화실 등을 통해 어린이 독자의 참여를 유도했다.

무엇보다 그는 어린이가 ‘자미있는’ 문화를 향유하며 행복하길 원했다. 그의 신념이 실천적으로 수행된 수많은 예 중 대표적인 것은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축제처럼 기념행사를 시행한 것이었다.

천도교 소년회 창립 1주년이 되는 1922년 5월 1일, 그의 주도로 전 세계 최초로 어린이날이 제정돼 행사가 열린다.(5월 5일이 어린이날이 된 것은 해방 이후다) 그날 오후 1시에 탑골공원·전동교동·광화문통 등 종로 일대에 어린이날의 취지를 선전하는 선전지가 뿌려지고, ‘어린이날’ ‘소년보호’ 등의 문구가 새겨진 세 대의 자동차가 종로 큰길을 위시하여 시내 각처를 달리며 선전

하는 기이한 광경이 펼쳐진다.(동아일보, 1922년 5월 2일)

집회결사의 자유가 억압당했고 특히 검열 대상 1위였던 전단지 존재가 이렇게 정치 1번지 종로에 뿌려진 그날의 상황은 어른과 아이 할 것 없이 당대 식민지 주체 모두에게 어떤 해방감을 주었는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다. 당시 그가 뿌린 ‘어린이날’이라는 제목의 전단지에는 어린이 인권 존중의 항목인 “1. 어린 사람을 헛말로 속이지 말아주십시오. 2. 어린 사람을 늘 가까이 하시고 자주 이야기하여 주십시오. 3. 어린 사람에게 경어를 쓰시되 늘 부드럽게 하여 주십시오.(중략) 7. 장가와 시집을 보낼 생각마시고 사람답게만 하여 주십시오” 등 7가지 항목이 인쇄돼 있었다.(동아일보, 1922년 5월 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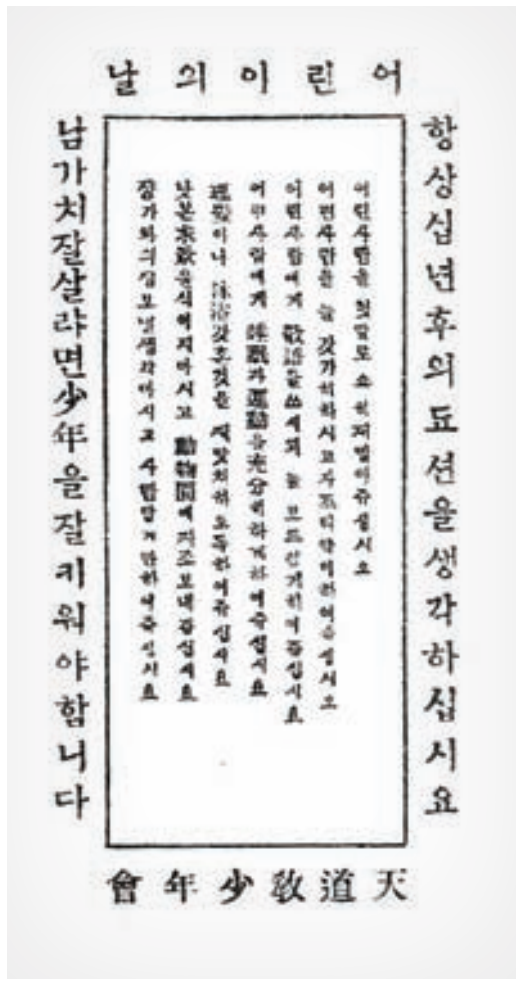
**유토피아적 시공간 꿈꾸다 31세 요절**  
이듬해인 1923년에 어린이날 행사는 더욱 확장된 규모로 펼쳐진다. 이 날은 아동문화연구회 ‘색동회’가 발회되고, 천도교청년회를 비롯하여 40여 개의 소년단체가 연합한 조선소년운동협회가 세워져 어린이날 행사를 주최한다.

이 날 “5월 1일이 왔다. 조선에서 처음으로 어린이에게도 사람의 권리를 주는 동시에 사람의 대우를 하자고 떠드는 날이 돌아왔다”로 시작하는 취지문이 신문에(동아일보, 1923년 5월 1일) 실리고, 12만 장이라는 어마어마한 양의 선전지에 인쇄된다. 그날은 노동절이기도 하여, 옥양목 띠 앞에는 붉은 글씨로, 뒤에는 초록 글씨로 ‘어린이날’이라고 쓴 휘장을 두르고 시가 선전 행진을 하며 선전지를 뿌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총독부의 허가를 받지 못하여(조선일보, 1923년 5월 2일) 경운동 천도교당에서 3시에 축하식을 갖고 4시경 200명의 소년들이 차 4대에 나눠 타고 선전지 12만 장을 시내에 배부하였다고 한다.(동아일보, 1923년 5월 2일)

이렇게 방정환은 여러 번에 걸쳐 종로 경운동 일대에 많은 사람들을 북적이게 하며 축제 분위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재미있는’ 행복한 순간을 제공하고 정작 그는 31세에 짧은 생을 마감한다.

과로로 쓰러지도록 죽도록 일하며 그가 꿈꾸었던 것은 과연 무엇일까? 행사를 기획하면서 그는 10년을 내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린이가 북적대는 종로, 그들이 행복한 장면을 보면서, 그는 이들이 10년 후에 이루어 갈 해방구를 상상했는지 모른다. 물론 방정환이 꿈꾸었던 그 세상은 영원히 유보될 유토피아적 시공간일 수 있다. 그러나 당장 그 시공간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어린 시절 모두 모여 행복했던 그 순간의 경험은, 삶에서 돌출하는 고통스러운 순간을 넘어 꿈꾸는 자를 만들 것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박지영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연구원



**리얼티 원 부동산**

MONTGOMERY, HOWARD, ANNE ARUNDEL PRINCE GEORGE 카운티 전문

3450 Ellicott Center Dr. Suite 107, Ellicott City, MD 21043 / O: 410-696-2268 / F: 866-531-7541

집을 예쁘게 꾸미는 것은 주택매매에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Realtor  
**지니 최**  
301-318-4242  
Jinny19619@yahoo.com

**후원 투자 리스닝**    **집매매, 렌트 놓으실때**    **“집을 예쁘게 단장 해 드립니다”**    **정직, 신용, 친절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택 인테리어 소품 구비)

|                                                                                                        |                                                                                    |                                                                                      |                                                                           |                                                                                     |
|--------------------------------------------------------------------------------------------------------|------------------------------------------------------------------------------------|--------------------------------------------------------------------------------------|---------------------------------------------------------------------------|-------------------------------------------------------------------------------------|
| <br><b>Bowie</b><br>\$639,000<br>싱글홈, 방4, 화4, 차고2                                                      | <br><b>UNDER CONTRACT</b><br><b>Edgewater</b><br>\$575,000<br>싱글홈, 방3, 화2, 0.45에이커 | <br><b>UNDER CONTRACT</b><br><b>Rockville</b><br>\$280,000<br>콘도                     | <br><b>COMING SOON</b><br><b>Perry Hall</b><br>싱글홈, 방3, 화2.5              | <br><b>SOLD</b><br><b>Ellicott City</b><br>\$689,000<br>싱글홈, 렌치 스타일 좋은 학교, 0.75 에이커 |
| <br><b>UNDER CONTRACT</b><br><b>Cooksville</b><br>\$1.3Million<br>싱글홈, 방6, 화4.5, 차고3 Finished Basement | <br><b>SOLD</b><br><b>Columbia</b><br>싱글홈, 방4, 화2                                  | <br><b>UNDER CONTRACT</b><br><b>Ellicott City</b><br>\$475,000<br>타운홈, 방2, 화2.5, 차고1 | <br><b>UNDER CONTRACT</b><br><b>Rockville</b><br>\$520,000<br>싱글홈, 방4, 화2 | <br><b>UNDER CONTRACT</b><br><b>Cockeysville</b><br>\$449,000<br>싱글홈, 방4, 화2.5      |

《《《 렌트 매니지먼트 해 드립니다. 《《《

Realtor  
**스테이시 양**  
443-668-0453  
stacy4989@gmail.com

**RENT**    **RENTED**    **RENTED**    **COMING SOON**    **RENTED**

|                                                                   |                                                                          |                                                                |                                                                 |                                                                       |                                                                 |
|-------------------------------------------------------------------|--------------------------------------------------------------------------|----------------------------------------------------------------|-----------------------------------------------------------------|-----------------------------------------------------------------------|-----------------------------------------------------------------|
| <br><b>RENTED</b><br><b>Elkridge</b><br>월 \$2,800 타운홈 방4, 화3, 차고1 | <br><b>RENTED</b><br><b>Hanover</b><br>월 \$3,100 타운홈 방3, 화2.2, 차고2, 전채마루 | <br><b>RENTED</b><br><b>Germantown</b><br>월 \$2,400 타운홈 방3, 화4 | <br><b>RENTED</b><br><b>Glen Burnie</b><br>월 \$1,750 타운홈 방2, 화1 | <br><b>COMING SOON</b><br><b>Hanover</b><br>월 \$3,000 타운홈 방3, 화3, 차고2 | <br><b>RENTED</b><br><b>Odenton</b><br>월 \$2,500 타운홈 방3, 화3, 차고 |
|-------------------------------------------------------------------|--------------------------------------------------------------------------|----------------------------------------------------------------|-----------------------------------------------------------------|-----------------------------------------------------------------------|-----------------------------------------------------------------|

집 렌트하기 원하시는 분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치료 전문



# 멜시척추신경

여러분 가정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24년 임상경험의

##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 병원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 ▷ 교통사고 · 운동사고 · 직장사고
- ▷ 스포츠 · 노동 후유증
- ▷ 오십견 및 급만성 요통
- ▷ 좌골 신경통

- ▷ 척추측만, 거북목 증후군
- ▷ 관절 클리닉
- ▷ 손발 통증 및 저림

- 최신 물리치료, X-Ray 완비
- 유학생 보험 / 여행자 보험
- 교통사고 보험처리에 필요한 모든 서류작성을 도와드립니다.
-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



전문의 박종현

한 의사 김경환

전문의 정지현

[www.jungmercyclinic.com](http://www.jungmercyclinic.com) • Email : [jungspinechiropractic@gmail.com](mailto:jungspinechiropractic@gmail.com)

애난데일

**703.256.3005**

7535 Little River Trpk. #200-B  
Annandale, VA 22003  
(한국일보 영 건물 2층)



센터빌

**703.830.0993**

13880 Braddock Rd., Suite 102  
Centreville, VA 20121



엘리콧시티

**410.465.3221**

9005 Chevrolet Dr. #4  
Ellicott City, MD 21042



#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교통사고**  
**직장사고**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 직원모집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플타임 가능

**703-256-3005**  
**703-830-0993**  
mercy4resume@gmail.com

# 회계사 사무실

## 구인

- 유경험자 우대
- Benefit 있음 (건강보험/보너스/유급휴가)
- 영주권 스폰서 가능 함
- 무경험자도 함께 성실히 열심히 함께 일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luvacct1986@gmail.com

# 정성옹보험

보험료를 확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인 보험!**

내가 탄 거리만큼만 내는

**실속형 보험!**

-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사업보험 • 생명보험
- 화재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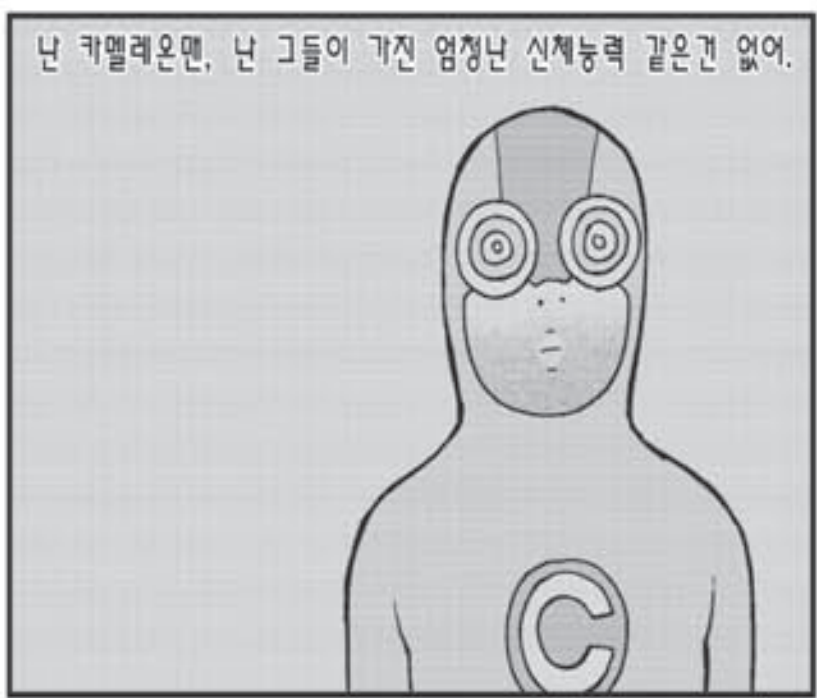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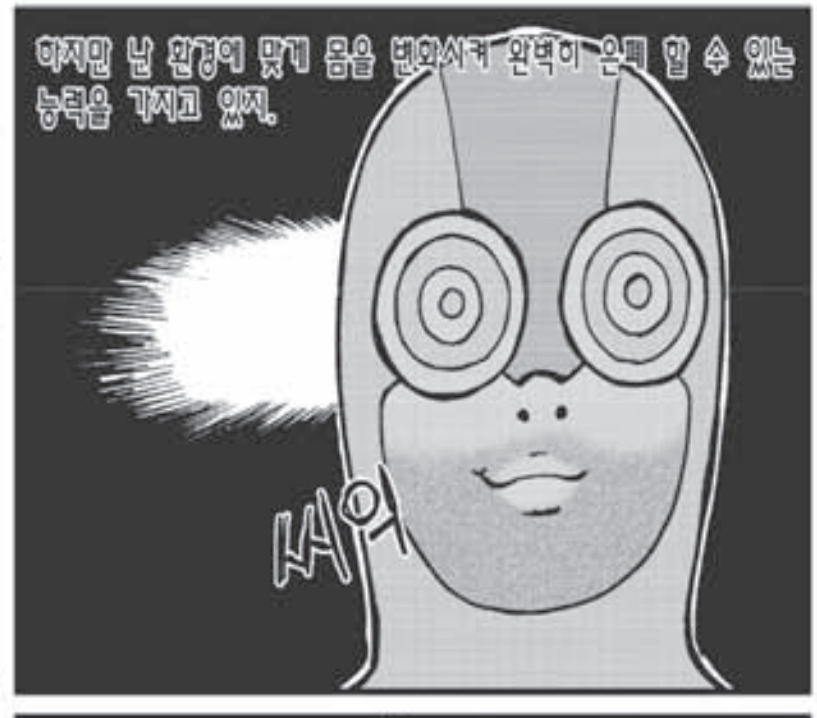
**703.825.2945**

카툰 릴레이  
THE SIXTH SENSE

# 식스센스

오늘의 주제 **환경**

이상신 · 국중록 · 고리타 · 병수씨 · 양영순 · 손준혁 · 장우혁



바른 정보 · 빠른 신문 중앙일보

## 무슨 신문 읽으세요?

Tel: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 L & 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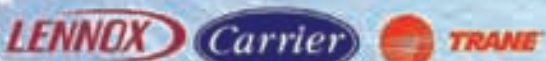
## L&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AIR CLEANER AND HUMIDIFIER
- INDOOR AIR QUALITY PROBLEMS
- FURNACES & AIR HANDLERS
- NEW FURNACE INSTALLATION
- FURNACE REPAIR SERVICE
- AIR CONDITIONERS & HEAT PUMPS
- AC INSTALLATION
- AC REPAIR



##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못 믿으시겠죠?



### 덕트 클리닝

Air에 관한 모든 것! L&B Universal 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찌든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합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http://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universal](http://www.facebook.com/LandBUuniversal)

5월  
구  
인  
광  
고

**WBS**  
월드뱅크카드 서비스  
**직원 모집**

▶ 모집분야 ◀  
사무직 (월-금)  
▶ 대우 ◀  
유급휴가 / 건강보험  
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Resume to:  
hr@worldbankcard.net  
▶ 문의: 703-225-5500 ◀

**지휘자 청빙**  
연합감리회 워싱턴교회에서  
지휘자님을 모십니다

**자격**  
• 음악 전공자  
• 지휘경력자 우대

**제출 서류**  
• 이력서  
• 신앙고백이 들어간 자기소개서

**제출**  
nationalkumc@hotmail.com  
**301-309-6856**  
2181 Baltimore Rd, Rockville, MD 20851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직원 모집**

**WE ARE HIRING**

▶ 풀타임 & 파트타임  
▶ 정규직원 베네핏 제공  
▶ 이중언어 우대  
▶ 무경험자 환영

◆ 이력서 보내실 곳 : carefreeland@gmail.com

**회계직원 구함**  
Assistant Accounting Manager

Gov't contracting firm  
(FULL TIME)

1년이상 회계업무  
(Quickbooks경험)

좋은 인성과 세밀함/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55,000

703-691-2852  
www.visitlod.com  
admin@visitlod.com

**LÓTTE Plaza** 롯데플라자  
**스털링점  
푸드코트**

롯데플라자 스텔링점(VA) 에서  
근무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캐시어**

풀타임/파트타임

sijang.sterling@gmail.com  
성함, 연락처 남겨 주세요!

**코너스톤  
종합보험**

**사무직원 모집**

\* 풀타임/파트타임  
\* 영어/컴퓨터 사용  
\* Annandale 지역

**이력서**  
joshuaoh123@gmail.com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NO.1  
GOLF LOUNGE**

"No.1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ounge.com

**구인**

• Office  
청소하는 사람 구함

• 경험있는  
Area Manager 구함

매나사스 지역 (버지니아)

**301-537-3800**

**구인**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T. 301-977-4484  
C. 240-246-4477**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미용학과  
코디네이터 / 강사**

▪ 라이선스 보유  
▪ J-1(교환교수, 인턴)  
▪ H-1B Transfer 가능

이력서 제출  
raphaell@ccdc.edu  
www.ccdc.edu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덕트클린

**HELPER  
TECHNICIAN**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나투라 치과  
직원 모집**

**어시스턴트 및  
리셉셔니스**

• 파트타임 (월/화/목/금)  
• 영어 가능하신 분  
• Entry-Level Welcome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애난데일 회계사무소  
직원 모집**

▶ 풀타임 가능하신 분

▶ 영어와 컴퓨터  
사용가능하신 분

▶ 무경험자도 성실히  
함께 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topcpainfo@gmail.com

대형믹서기  
**핫 세일**

HOBART Mixer 140 qt.

Lease end  
Machine less used  
Low price  
Year-end Quick Sale

Sfood90@gmail.com  
Text: 703-200-5541  
(Alex, VA)

**엘리콧시티  
택시**

볼티모어 지역 환영  
장거리 특별 요금  
어느 곳이든 24시간 OK

**TAXI**

회사 위치:  
볼티모어 롯데 마켓 근처

**OK 택시**  
**240-796-0093**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하지 않습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윤택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 보험

###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

59년생, C플랜, 약보험

신규가입 · 재가입

### 자동차 주택 사업체 보험

#### “보험료” 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 냉·난방

###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값은 고장이 기계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드립니다.

####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문을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피드 먼지와 세균 알라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AWARDED**  
Porch Pro  
HomeAdvisor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 건축 / 페인트

## TK 종합건축

Since 1988

###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시공 및 건물·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관리 대행

####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센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 703-504-6116 / Cell : 703-675-7401

## 와니건축

###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욕, 그외 모든 공사

####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센스/책임보험가입-

#### Call 24시간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 wani6811

## 571-331-6811

## 레드문 페인트

- ▶ 주택, 상가 페인트 전문 닥터
- ▶ 욕, 마루, 캐비닛 샌딩 보수
- ▶ 플로밍, 핸디맨 서비스



### 703)965-3011

## 라돈 가스 검사/유리

### 라돈 가스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라돈 가스는 폐암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2위에 해당하는 보이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집에서 많이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미국 15채중 1채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꼭 **검사**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십시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 범양해운

###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입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무료견적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Door to Door Service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VA/DC/MD↔NY 정기운행
- 쓰레기 처리가능
- 입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02-2093-2093
KOREA(BUSAN) 051-469-4191
USA(LOS ANGELES) 310-767-5699
USA(SAN FRANCISCO)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 HD 현대 통운

귀국, 해외 이사  
타주, 시내 이사  
귀국, 타주 차량운송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 조양운송

20년 전문!!

신속

안전

- ▶ 귀국 이사 전문
- ▶ 자체 창고 보관
- ▶ 타주, 시내 이사
- ▶ 전문 포장 이사

###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 JK 유리 & Window

###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 ·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 · VA · DC 지역, 신속시공

## 범양해운 USA

Tel.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02-2093-2093
KOREA(BUSAN) 051-469-4191
USA(LOS ANGELES) 310-767-5699
USA(SAN FRANCISCO)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 종합업소안내 가격표

| Professional Business Directory |          |          |         |  |
|---------------------------------|----------|----------|---------|--|
|                                 | 3 Months | 6 Months | 1 Year  |  |
| 1BOX                            | \$300    | \$550    | \$1,000 |  |
| 2BOX                            | \$600    | \$1,100  | \$2,000 |  |
| 4BOX                            | \$1,200  | \$2,000  | \$3,600 |  |

광고 문의 : 703-281-9660

## MD 업소 안내

## 냉난방



###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아이스 머신

## 소독



###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 박을구

## 703.929.9601

## 보석

Golden Dew Jewelry



다이아몬드 전문점

- 백금 (Platinum)
- K14, K18, Setting 전문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 골든 듀 보석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순금 아기를 받지 팔지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각종 보석 감정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Ellicott City, MD 21043  
엘리컷시티 롯데몰라자 내

## 용자

맞춤 용자의 길인

## 마이클 장

말인과 함께하면 용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상업용자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301-275-1494

## 전기공사, 페인트

- ◆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 ◆ 24시간 출장가능
- ◆ 리모델링

## 703-582-7757

에어컨&히팅 / 핸디맨 / 리모델링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페인팅

**애난테일·페어팩스·센터빌 핸디맨**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 드립니다!

페인트, 플러밍, 전등, 토일렛, 퍼셋, 핫탱크 등 교환 및 수리

**T. 571-567-5165**

**토탈카펫**

25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Chung's Refrigeration  
**정스냉동**

가정용 상업용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프러밍, 워킹쿨러, 아이스 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한국 미국 경력30년

Mr.Chung  
**301-572-2786**  
**703-953-0801**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http://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냉동·냉장고 사고팝니다

**아라냉동** 판매장 및 장비 수리 센터

에어콘·히팅·냉동·보일러·세탁장비 수리  
케리아웃 장비수리·Ice Maker·플러밍  
지하수 펌프·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TEL. (443) 850-3703 / (410) 979-4242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 전기)
-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 Gas 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 집 안밖 물세는것

**24Hr**  
**703.499.5984**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410.917.1888** Lee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 플러밍**

-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 싱크, 욕실, 화장실, 부엌
-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 Dishwashers, Disposals
-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32년 전통의 **베스트**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 최상의 트러파워 카펫 스티밍 샴푸 (고온 300°F)
-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 제거
- 최상의 브러쉬 발크 에어덕트 크리닝
- 파워 폴청소 (택, 사이딩, 벽돌 및 마블플로어)
-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 폴로어 왁스

서비스 지역 : VA, MD, DC  
**703.967.4155**

**빅스톤**

◆플러밍◆페인트  
◆목수◆전기◆수도

직접 타일 창문 화장실  
시공 지하실 마루 부엌

**571-338-0977**

**핸디맨** Since 1999

REPAIR  
REMODELING  
VA Class A. Insured

**571.239.8525**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작은일도 성의껏 일합니다.

**703-340-5858 (VA)**  
**443-980-5858 (MD)**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일체

“일단 전화주세요!”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선스 보유 \*라이어블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목수, 각종 집수리

Licensed and insured  
**240-687-5155**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linds.com](http://www.bbgblinds.com) / [bbgblinds@gmail.com](mailto:bbgblinds@gmail.com)

**PARK's Floor**  
마루경력 20년/견적무료

- 우드, 카펫, 장판 (Hardwood/Carpet/Vinyl)
- LVT (Luxury Vinyl Tile)
- VCT (Vinyl Commercial Tile)
- 라미네이트 (Laminate)

**703-395-0050**

임업 벌칭 / 토지, 들판, 잔디, 올타리, 목초지 관리

**ALLIANCE LAND MANAGEMENT**  
FORESTRY MULCHING & LAND SERVICES

핸드폰 540-905-2849  
이메일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임업 벌칭이란 무엇입니까?**

임업 벌칭은 자란 나무, 덩굴, 초목을 토양에 최소한의 교란을 주면서 잘게 잘라 멀칭하는 특별한 기술입니다. 뿌리 덮개는 원치 않는 식물의 성장을 억제하고 토양 침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업 벌칭**

- 토지 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
- 올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용자 가능**

군인, 응급 구조대원, 간호사, 교사에 대한 할인 요금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Vicky: Hi dad, What are you doing?  
 비키: 안녕 아빠. 뭐하세요?  
 Clay: I'm building a bookcase for the den.  
 클레이: 서재에다 갖다놓을 책장을 만드는 중이지.  
 Vicky: Could you help me with my algebra homework please?  
 비키: 제 대수 숙제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Clay: In a little while, I'm busy right now.  
 클레이: 조금 있다가. 지금은 바쁜 걸.  
 Vicky: I can bring my homework out here.

비키: 숙제하는 걸 여기로 가져올 수 있는데요.  
 Clay: I've got to concentrate on what I'm doing. I can't let my mind wander.  
 클레이: 내가 하는 일에 집중을 해야 돼. 정신을 팔 수가 없어.  
 Vicky: Okay. Do you need any help?  
 비키: 알았어요. 뭐 도와드릴까요?  
 Clay: No thanks. I think I can handle it by myself.  
 클레이: 됐다.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아.  
 Vicky: Where did you learn to build stuff?

비키: 가구 만드는 건 어디서 배우셨어요?  
 Clay: My father taught me some things and trial and error taught me the rest.  
 클레이: 우리 아버지가 몇 가지 가르쳐주셨고 나머지는 시행착오를 거쳐 배웠다.  
**기억할만한 표현**  
 ▶ in a little while: 조금 있다가  
 "I'll be finished with the computer in a little while."  
 (조금 있으면 컴퓨터 다 쓸 것 같은데.)

**trial and error; 시행착오**

(Clay is in the garage building a bookcase when Vicky enters-)  
 (클레이가 차고에서 책장을 만들고 있는데 비키가 들어온다-)

▶ (one's) mind wanders: 하던 것으로부터 정신이 벗어났다 헤메다  
 "When my mind wanders I make mistakes."  
 (정신이 좀 흐려지면 전 꼭 실수를 합니다.)  
 ▶ handle (something): 상황을 다루다 문제를 다스리다  
 "I don't think she handled the pressure very well."  
 (제 생각에 그녀는 스트레스를 잘 다스리지 못합니다.)

**날말퀴즈**

|    |    |    |    |    |    |    |    |    |
|----|----|----|----|----|----|----|----|----|
| 1  |    |    | 2  |    | 3  |    | 4  |    |
|    |    | 5  |    |    | 6  |    |    |    |
| 7  | 8  |    |    | 9  |    |    | 10 | 11 |
|    |    |    |    |    |    | 12 |    |    |
| 13 |    | 14 |    |    | 15 |    | 16 |    |
|    |    |    |    | 17 |    |    |    |    |
| 18 | 19 |    | 20 |    |    | 21 |    | 22 |
|    |    | 23 |    |    | 24 |    |    |    |
| 25 |    |    | 26 |    |    |    | 27 |    |

**●가로 열쇠**

(1)어민들이 모여 사는 바닷가 마을 (2)설날 어른에게 절하고 반조 (4)농악대들이 쓰는 뽀족하게 생긴 모자 (5)푸짐하게 잘 차린 음식 (6)아궁이에 불을 때어 방을 덥게 하는 난방 장치. □구□ (7)일제 강점기, 중국에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투쟁하던 군대 (9)추울 때에 소의 등을 덮어 주는 명석 (10)관객을 웃기기 위하여 하는 익살스러운 대사나 몸짓. ~ 콘서트 (13)마음이 음흉하여 겉과 속이 다른 (15)어린이의 말로. 설날의 전날을 이르는 말. 까치 ~은 어저께 (18)2013=뽕피, 2014=□□, 2015=양띠 (20)주소, 이름을 적어서 대

문 옆에 붙이는 것 (21)가을철의 부채. 철이 지나서 쓸모없이 된 물건 (23)동남쪽에서 부는 바람. ~이 불면 꽃망울 고운 눈도 띄워 새 세상 선보이는 봄바람이더라(구름나그네) (24)추첨에서 뽑힘 (25)같은 나이 (26)대지와 하늘이 맞닿아 보이는 선 (27)남쪽에 있는 마을. 산 너머 ~에는 누가 살길래 해마다 봄바람이 남으로 오네(김동환)

**●세로 열쇠**

(1)어른에게 귀여움을 받으려고 예쁜 태도를 보이는 일 (2)세배를 하러 온 사람에게 대접하는 음식 (3)돈이 많이 든 이것을 깔고 앉고 싶어 하죠 (4)마소의 가슴결이에 다는 방울 (5)어질고 뛰어난 임금. ~ 세종대왕 (8)

음력 정월 초하룻날 새벽에 걸어 놓는 조리 (9)상대방이 잘되기를 빌어 주는 말. 설날에 일가친척들이 모여 ~을 나누었다 (11)음력으로 그 달의 마지막날 (12)경사에 음식을 차려놓고 손님을 청하여 먹으며 즐기는 일 (13)한나라에서 공용어로 쓰는 규범으로서의 언어 (14)재물이 많아살림이 넉넉한 사람. ~ 되세요 하며 덕담을 나누었다 (16)눈과 함께 휘몰아치는 차가운 바람 (17)적의 칼. 창을 막는 데에 쓰던 무기 (19)12살 차이가 나는 사람 (20)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바람을 막기 위해바른 종이 (21)제비 뽑기 (22)선수들이 모여 기량을 연마하는 곳. 태릉 ~을 방문하여 소치 동계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단을 격려했다 (24)선거에서 뽑힘

**스도쿠**

|   |   |   |   |   |   |   |   |   |
|---|---|---|---|---|---|---|---|---|
|   |   |   |   | 2 | 3 |   |   |   |
| 3 | 7 |   |   |   |   |   | 1 | 9 |
|   |   |   | 4 |   |   | 7 |   |   |
|   | 9 |   |   |   | 5 |   | 8 | 7 |
| 7 |   | 5 |   | 1 |   | 9 |   | 2 |
| 6 | 2 |   | 3 |   |   |   | 5 |   |
|   |   |   | 4 |   |   | 3 |   |   |
| 2 | 5 |   |   |   |   |   | 6 | 4 |
|   |   |   | 6 | 5 |   |   |   |   |

자료제공 = 올드북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도쿠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   |   |   |   |   |   |   |   |   |
|---|---|---|---|---|---|---|---|---|
| 8 | 6 | 2 | 1 | 5 | 9 | 7 | 3 | 4 |
| 4 | 9 | 1 | 8 | 3 | 6 | 5 | 2 | 7 |
| 5 | 7 | 3 | 2 | 6 | 4 | 9 | 1 | 8 |
| 1 | 5 | 4 | 6 | 7 | 3 | 8 | 2 | 9 |
| 2 | 3 | 6 | 9 | 1 | 8 | 5 | 4 | 7 |
| 7 | 8 | 9 | 5 | 4 | 2 | 3 | 6 | 1 |
| 3 | 2 | 5 | 7 | 8 | 1 | 4 | 9 | 6 |
| 6 | 1 | 8 | 4 | 9 | 5 | 2 | 7 | 3 |
| 9 | 4 | 7 | 3 | 2 | 6 | 1 | 8 | 5 |

① 워싱턴 중영일보

정기구독 신청 1년 (\$120) 및 가판대 무료배포

**1년 정기 구독료 \$120**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의 유일한 종합일간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발행**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무료로 매일 배포**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도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게재**



① 워싱턴 중영일보 **구독신청서**

|                                 |                                                                                                                                |                                                                                                                                  |
|---------------------------------|--------------------------------------------------------------------------------------------------------------------------------|----------------------------------------------------------------------------------------------------------------------------------|
| 성명 (Name)                       | 영문 (Eng)                                                                                                                       | 한글 (Kor)                                                                                                                         |
| 주소 (Address)                    |                                                                                                                                |                                                                                                                                  |
| 연락처 (Phone #)                   | Home                                                                                                                           | Cell                                                                                                                             |
| 구독료 (Subscription Fee)          | 1년 선납 \$120                                                                                                                    | 지불 방법 <input type="checkbox"/> Check <input type="checkbox"/> Bill <input type="checkbox"/> Credit Card <input type="checkbox"/> |
|                                 | Pay to the Order of: The Korea Daily                                                                                           |                                                                                                                                  |
| 카드 종류 (Card Info)               | VISA <input type="checkbox"/> Master <input type="checkbox"/> Amex <input type="checkbox"/> Discovery <input type="checkbox"/> | 카드 뒷면 3자리 (EXP. DATE: / month year) CVS:                                                                                         |
| 신청서 보내실 곳                       | The Korea Daily<br>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                                                                                                                                  |
| 20    년    월    일    서명 (sign): |                                                                                                                                |                                                                                                                                  |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광고문의 213-368-2525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기타 지역

구인

**한식당**  
 경험자 우대  
 숙소제공 가능  
 연봉 협의후 결정  
 오레곤주 포틀랜드  
 (971)451-9022

**성실하신분**  
 컨비니언스투어  
 \*루이지애나주  
 (504)430-8426  
 (504)373-2163

koreadailyus.com



**한인사회의 든든한 대변인**  
 미주 중앙일보는 한인사회의 뉴스와 목소리를 주류사회와 한인 2~3세들에게 전달하고자 영어뉴스 사이트 (Koreadailyus.com)를 출범시켰습니다.  
 Koreadailyus.com은 주류사회에 한인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든든한 대변인이 되겠습니다

차별화된 한국제품이 많은~  
**미주 최대 한인 온라인 쇼핑몰**  
 Hotdeal.Koreadaily.com



**HOT DEAL** LA KTown 213.368.2611  
 690 Wilshire Place Los Angeles, CA 90005

**법무사가 되세요**  
 대면 수업 시작!!!  
 항상 고소독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자격증을 받을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사모님을 위한 반을 다시 시작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InterpacU.com  
 (213) 674 - 7000



총장 법학박사 허워드리

**개인 / 비지니스 / 용자전문**

- ▶ GOOD크레딧, BAD 크레딧 상관없이 용자상담환영
- ▶ 비지니스론, SBA론, 머천트론 전문
- ▶ 개인용자, 카드용자 및 현금화 전문
- ▶ 집 모기지 페이먼트 헛드신분
- ▶ 메이저은행에서 용자 거절된분 환영
- ▶ 다스크레딧카드 한도 증액 후 재용자 가능
- ▶ 사업체 운영 / 매매 / 폐업시 용자 가능
- ▶ 역이민 고려하시면 연락요망 (귀국플랜)
- ▶ 나쁜크레딧 리퍼어 빌드업 전문

중부컨설팅 (213)357-1010, (213)820-3912

80-90대 남성도 잠자리를 갖기 25분 전에,  
 1캡슐 복용으로 1주일 지속효과  
 비아그라의 부작용이 전혀 없는 MADE IN USA  
 천연 비아그라, 즉효성 남성 발기제  
 & 남성 발기 링, 전설의 낙타 속눈썹  
 & 바르고 하면 남녀 모두 흥풍가는  
 바르는 성생활 흥분제, 율환유 겔  
 1-213-210-9720, 전화,보이스톡,카톡,텍스트

미주 중앙일보 스마트폰 App  
 미주 최대 뉴스 통합  
 한인 업소록 + 모바일 App  
 리스트 광고 문의 (213)368-2532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서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o#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미라클터치다 살매 **Up to 40% 혜택** 새입상  
 5파운드 이상 구입시 홈세일 가격 판매  
 • 30년 1파운드 \$750 → \$550  
 • 40년 1파운드 \$1,500 → \$950  
 • 50년 1파운드 \$2,350 → \$1,500  
 • 견산삼 40% ~ 50% 파격세일  
 US Wildlife & Natural Food Inc. (Dealer #90-447305)  
 3003 W. Olympic Bl, #201 LA, CA 90006  
 (213)800-3662 (818)518-0033

치질·치루 수술 안하고 OK  
 미라클터치로 발기 능력 쑥쑥  
 향문폴립·변비·요실금도 해방  
 새끼손가락 크기 향문삽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터치로 뱃속 독소 제거  
 불면증·이명·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터져 나옵니다  
 LA (213)675-6877 | OC (213)255-1410

**잠 못 이룰 정도로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중풍·류마티스 관절염은 불치병이 아닙니다.**  
**요통,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히스패닉 중풍환자 2개월 치료받고 "이제 웃을 수 있어요"  
 10여일 만에 뼈아픈 류마티스 관절염 통증에서 벗어난 실제 치료사례

성민산삼한방병원  
 환자들과 가족 모두 놀라는 중풍환자 실제 치료사례 [사진왼쪽, 서영수 한의학박사와 델희노씨]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사진 오른쪽 치료전, 치료후]

**BAYVIEW ADVISORS FOR HEDGE FUNDS** All about Hedge Funds Investment

30 Years of CPA experience for Hedge Funds  
 회사 설립 도와 드립니다.  
 운영, 투자, 회계 관리 전문  
 경력 QR code 참조

**CHRIS CHUNG** MANAGING DIRECTOR 516-321-0353 chris@bayview.llc  
**JOHN CHUNG** John.chung@bayview.llc 917-609-5690

CONTACT US : EMAIL / TXT ONLY

당뇨환자와 다이어트에 **희소식!**  
 칼로리를 내리는 날씬한 **저당밥**  
 탄수화물은 낮추고 **내 몸을 건강하게**  
 당뇨와 다이어트에 좋은 저당밥술 SALE  
**banustory.com**

40%-49% 탄수화물 DOWN

1세대 저당 밥술  
 New 2세대 스테인리스 304 내술 직접가열식



# 고객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World Bankcard Service가 새로운 혁신과 서비스로 찾아왔습니다.



## 1 새로운 크레딧 카드 기계:

결제 중 끊김과 오랜 결제 시간 등의 불편을 해소합니다.  
신속하고 원활한 결제를 보장합니다.

## 2 새로운 POS 시스템:

효율적이고 신속한 POS 시스템을 도입하여  
여러분의 사업을 한 단계 높여드립니다.  
간편한 운영으로 비즈니스 성과를 더욱 향상시킵니다.

## 3 더 낮은 카드 수수료:

부담스러운 고물가 시대!  
사장님들을 위해 더 낮은 카드 수수료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World Bankcard Service와 함께라면 더욱 원활하고 효율적인 비즈니스 운영이 가능합니다.  
저희와 함께 성공을 이루어가십시오. 더 많은 정보 및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함께하는 비즈니스의 파트너가 되어드립니다.  
함께 성장해나가는 여정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EL. 703-225-5500, 1-800-927-5675 | FAX 703-225-5507  
10855 FAIRFAX BLVD 3<sup>rd</sup> FL., FAIRFAX, VA 22030  
World Bankcard Service